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工學碩士 學位論文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軸)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The Possibilities of the Concept 'Axis'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채우리

## 국 문 초 록

###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軸)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채 우 리  
지도교수 전 봉 희

축은 보편적인 건축언어로서 건축 관련 배치를 설명하는 단편적인 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기록, 추상적인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어휘, 또는 건축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건축에서 축이라는 단어 혹은 축과 관련된 개념은 어떤 위상을 가지며 그 외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축이라는 근대의 건축언어는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는가. 한국에서 축이 담론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이며, 축이라는 건축언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축 개념은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가. 본 연구는 한국건축의 해석에 있어 축이라는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축에 대한 정의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조영 원리와 근대의 건축언어인 축 개념은 어떻게 연관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건축의 해석에 있어 축을 사용하는 서술자의 의도에 주목하여, 축이라는 서술적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서양에서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것은 1800년대 이후이며, 공간 개념이 인간과 공간, 시간 사이의 관계를 인간의 지각적 감각을 통해 설명하려는 공간지각론으로 발전되어 나가면서 대두된 하위 개념 중의 하나가 축이다. 19세기 에펠 데 보자르식 건축 훈련 과정에서 축은 설계의 보편성을 가능케 하는 계획 도구로 그리드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고, 추상적인 공간 개념과 기존 건물을 분석할 때 서술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서술과정에서 언급되는 공간과 축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공간 내에 삽입된 인간의 의식을 통해 인식된다.

축 개념이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계, 혹은 점과 점의 연결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형성되었음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의 여러 개념을 축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축은 기본적으로 선(線)적인 요소이기에 방향성, 중심성, 대칭성 등의 속성을 가지며, 공간 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의 시지각적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질들은 축이라는 키워드의 등장과 더불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고부터 존재하였으나 다른 방법으로 구현, 또는 설명되어 왔다.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지리관 중에서 오행설의 경우는 오행 사이의 관계 고찰을 통해 만물의 질서체계를 이해하고자 한 결과물로, 주요 요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은 이때부터 드러난다. 유교사상이 반영된 남면의 원리, 불교우주론의 수미산설과 만다라, 풍수지리관에 속하는 좌향론과 형국론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방향성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수미산설과 만다라는 수직적 축을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성립되는 등 구심성을 강조한다. 또한, 주종(主從)관계를 반영하는 남면사상이나 좌우개념, 그리고 주위 환경을 통해 땅의 혈을 찾아내어 건물의 입지를 결정짓는 풍수지리관에서는 동서남북의 방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의 다양한 전통적 조영원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축의 성질과 직간접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하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 건축의 해석에 있어 축의 사용 방식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974년 출간된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을 필두로, 한국건축사의 연구 중 일부에서는 건축 배치를 유형화하기 위해 중축형(中軸型, 重軸型), 교축형(交軸型), 병렬축형(並列軸型) 등 배치축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를 사용해왔고, 이러한 배치 유형의 특징을 사상적 표현의 결과물로 연관짓기도 하는 등 포괄적으로 ‘축 개념’이라 지칭할 수 있는 해석의 흐름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불교건축, 궁궐건축, 유교건축, 능묘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는데, 물론 학자의 연구 목적과 대상, 접근 방법에 따라 축 개념이 적용된 배경이나 사용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축 개념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분야는 사찰건축의 배치에 대한 연구이다. 정인국과 안영배는 축형의 세분화를 이끌어내어 초기 축 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축선을 건축군의 평면적 배치에 적용하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만 사용하였다. 반면, 이후의 연구들은 축을 사상적 발현의 도구로 인식하여 축 개념을 외재적인 사상적 논리와 연관짓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김봉렬의 연구는 불교 종파별 특징과 축선의 성질을 연결지어 고찰함으로써 축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범주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축은 배치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키워드인 동시에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간감을 조성하는 공간의 성질로 인식되는 등 다수의 연구 대상을 분류하고 유형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분류기준이다. 하지만, 사찰건축의 연구에 적용된 축선의 성질은 사찰 건립 당시의 조영 원리나 사찰 구성의 변천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사찰 이용자인 신도들이나 승려들의 공간 이용 행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소 한계를 가진다.

한편, 유교건축의 연구에서는 축형의 세분화나 인간의 동선을 의미하는 진입축이 강조되기보다는 축의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한 사례가 많다. 축은 유학사상의 禮를 위한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성리학의 윤리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대칭적 질서를 낳는 도구로 인식된다. 또한, 음양오행론이 서원의 배치에 구현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음양오행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균형을 잡기 위해 중축이라는 물리적 형태가 드

러나는 것으로 본다.

궁궐건축의 해석에는 축 개념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경복궁의 주요 전각은 정형적이고 대칭적 질서를 보여주는데, 사회적 위계 질서의 반영뿐만 아니라 의례 형식을 위해 엄격한 동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궁궐의 영조목적은 차별적 의례의 공간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 조재모는 ‘축’을 강조하기보다는 군주의 위치로 인해 결정되는 중심성 및 차별적 위계의 물리적 구현 여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반면, 안영배의 궁궐배치에 관한 설명은 관찰자의 시선 및 동선 등의 지각적 경험을 중요시하여, 축의 설정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에 대한 관찰자적 서술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영배의 해석에는 공간 개념과 축이라는 키워드, 음양오행론, 평면 배치와 인체 구조의 비유 등 다양한 해석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축 개념을 활용한 해석과 이외의 개념을 활용한 해석을 비교 고찰해본 결과, 한국건축의 해석에서 축 개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대입된 인간의 시지각적 공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3차원적인 공간 분석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초기 사례들은 관찰자적 시점의 주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두 번째는 건물군의 주요 요소들을 연결하는 구성축을 평면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연구 대상을 직선축형, 곡선축형, 교축형, 병렬형, 자유형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축은 배치론적 접근 방식의 연구에서 일차적 분류 체계로 사용되지만, 단순한 분류 기준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다수의 연구 대상을 하나의 기준 아래 수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각 학자들의 적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서서히 서술도구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다. 마지막은 축이 유형 분류의 도구를 넘어서서 배치 상의 상징적 의도를 반영하는 계획의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축이라는 기하학적 질서의 물리적 구현이 천문지리관이나 유교사상, 불교 교리, 풍수지리관 등 당대의 사회적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조영 원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면 구성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결국 축 개념을 사용한 한국건축 연구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축이라는 건축언어가 가지는 한국건축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축’과 그와 함께 수반되는 부수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 하겠다.

---

주요어 : 축(軸), 축 개념, 정인국, 안영배, 공간론, 가람배치, 유교건축, 궁궐건축  
학 번 : 2013-20574

# 목 차

|  |     |
|--|-----|
| ■ 국문초록 .....                           | i   |
| ■ 목차 .....                             | iv  |
| ■ 표 목차 .....                           | vi  |
| ■ 그림 목차 .....                          | vii |
| <br>                                   |     |
| I. 서 론 .....                           | 1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1   |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 4   |
| <br>                                   |     |
| II. 한국건축의 전통적 조영 사상과 축 .....           | 7   |
| 2.1 동아시아의 고대 천문지리관 .....               | 7   |
| 2.2 한국건축과 풍수지리관 .....                  | 12  |
| 2.2.1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설 .....                | 12  |
| 2.2.2 풍수지리와 방위 및 입지의 관계 .....          | 14  |
| 2.3 권위건축에서의 배치와 축 .....                | 18  |
| 2.3.1 유교사상의 사회적 질서가 반영된 궁궐 건축배치 .....  | 18  |
| 2.3.2 불교의 우주론 및 종파별 교리가 반영된 건축배치 ..... | 21  |
| 2.4 조선시대 문헌에서 본 축(軸)의 용례 .....         | 26  |
| <br>                                   |     |
| III. 근대건축의 축 개념 수용 .....               | 30  |
| 3.1 근대기 서양에서의 축 개념 형성 배경 .....         | 31  |
| 3.1.1 축의 속성과 축 개념의 다양성 .....           | 31  |
| 3.1.2 용도에 따른 축 개념의 차이 .....            | 36  |
| 가. 계획을 위한 축 .....                      | 36  |
| 나. 해석을 위한 축 .....                      | 41  |

|   |            |
|---|------------|
| 3.2 축 개념에 대한 공간론의 영향과 동아시아의 수용 .....      | 46         |
| 3.2.1 공간 개념의 담론화와 축 개념 형성의 상관 관계 .....    | 46         |
| 3.2.2 근대기 일본건축사학자들의 연구 동향과 축 개념 활용 사례 ... | 49         |
| 3.3 한국건축 연구의 축 개념 수용 .....                | 57         |
| 3.3.1 축 개념의 도입 배경 및 전개 단계 .....           | 57         |
| 3.3.2 축 개념의 확장 및 세분화 과정 .....             | 61         |
| 3.3.3 축 개념의 정체 시기 .....                   | 66         |
| <b>IV.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된 축 개념의 변화 .....</b>   | <b>71</b>  |
| 4.1 사찰건축의 가람배치 연구와 축 개념 .....             | 72         |
| 4.1.1 축 개념과 불교 사상의 동시 고찰 가능성 .....        | 72         |
| 4.1.2 축 개념 적용 해석과 풍수지리 적용 해석의 비교 .....    | 79         |
| 4.2 유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 .....              | 84         |
| 4.2.1 유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               | 84         |
| 4.2.2 축 개념과 유교 사상의 혼재적 양상 .....           | 87         |
| 4.3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 .....              | 91         |
| 4.3.1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               | 91         |
| 4.3.2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유가적 사상 .....          | 94         |
| 4.4 소 결 .....                             | 100        |
| <b>V. 결 론 .....</b>                       | <b>103</b> |
| <b>▣ 참고문헌 .....</b>                       | <b>108</b> |
| <b>▣ 부 록 .....</b>                        | <b>112</b> |
| <b>▣ Abstract .....</b>                   | <b>118</b> |

## ■ 표 목차

|  |     |
|--|-----|
| [표 1-1] 연구 대상의 목록 .....  | 4   |
| [표 2-1] 五行의 分類體系 .....   | 13  |
| [표 3-1] 계획을 위한 軸 내용 정리 .....   | 40  |
| [표 3-2] 최근 단행본 내 축 언급 사례와 내용 정리 .....  | 41  |
| [표 3-3] 해석을 위한 軸 내용 정리 .....   | 44  |
| [표 3-4] 축 개념의 활용 내용에 대한 시기 구분 .....  | 57  |
| [표 3-5] 축 개념의 활용 방식 이해를 위한 분류틀 .....   | 58  |
| [표 3-6] 정인국의 축 개념 활용 방식 .....  | 61  |
| [표 3-7] 안영배의 축 개념 활용 방식 .....  | 63  |
| [표 3-8] 축의 역할 설정에 따른 학문적 접근 방식의 차이 .....                                     | 67  |
| [표 4-1] 1970-80년대 한국사찰 가람배치 유형분류 관련 연구에서 축을<br>기준으로 사용한 연구자 및 분류 유형 정리 ..... | 72  |
| [표 4-2] 김봉렬의 축 개념 활용 방식 .....  | 73  |
| [표 4-3] 김봉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연구된 사찰별 형식에 따른 건축구성의<br>차이 .....                       | 74  |
| [표 4-4] 안영배와 김봉렬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된 대상 사찰과 유형<br>분류 결과 .....                    | 76  |
| [표 4-5] 안영배와 김봉렬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축형의 의의 및<br>통합내용 .....                           | 78  |
| [표 4-5] 이상해의 『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에 나타난<br>축 개념 활용 방식 .....                     | 82  |
| [표 4-6] 도용호의 연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 85  |
| [표 4-7] 김지민의 연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 87  |
| [표 4-8] 박정해의 연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 89  |
| [표 4-9] 최근 단행본 내 축 언급 사례와 내용 정리 .....  | 92  |
| [표 4-10] 조선시대 궁궐 내 의례의 공간 활용 방식 .....  | 94  |
| [표 4-11] 안영배의 축 개념 활용 방식-궁궐건축 .....  | 99  |
| [표 5-1]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                                    | 106 |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 6  |
| [그림 2-1] 한대 장안도(長安圖)와 북두(北斗), 남두(南斗)의 대응도 .....                | 10 |
| [그림 2-2] 인체의 축, 명당의 방위, 음양론의 체계 .....                          | 17 |
| [그림 2-3] 전통 조영 사상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공간 관련 성질 .....                    | 25 |
| [그림 2-4] 지석영의 아학편에 실린 축의 영문, 일문, 한문 표기 .....                   | 26 |
| [그림 3-1] 솔즈베리 성당의 내부 모습 .....                                  | 32 |
| [그림 3-2] 앙드레 르 노트르의 베르사유궁전 정원계획/랑팡의 워싱턴 설계 ·                   | 34 |
| [그림 3-3] 축과 그리드를 이용한 듀랑의 건축설계방법 예시 .....                       | 37 |
| [그림 3-4] 축의 종착요소 구성과 시각적 힘의 변화 .....                           | 39 |
| [그림 3-5]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드러나는 축 .....                            | 43 |
| [그림 3-6] 해석을 위한 축 분류 다이어그램 .....                               | 45 |
| [그림 3-7] 야나기 무네요시의 ‘관람 순서에 따른 석불암 내부 그림’<br>편집본과 원본 .....      | 50 |
| [그림 3-8] 아시하라 요시노부가 제시한 내적 질서와 외적 질서 .....                     | 54 |
| [그림 3-9] 후지시마 가이지로와 정인국의 가람배치 유형 분류법 .....                     | 59 |
| [그림 3-10]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기록된 공간의 유형 .....                  | 61 |
| [그림 3-11]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기록된 축의 유형 .....                   | 62 |
| [그림 4-1] 양산 통도사 내 주요 불전의 축선 .....                              | 77 |
| [그림 4-2] 안영배의 해인사 배치도와 김봉렬의 해인사 배치도 .....                      | 80 |
| [그림 4-3] 인정문 조참동선 .....  | 96 |
| [그림 4-4] 안영배가 해인사, 불국사, 경복궁의 배치와 인체의 구성을<br>동일시하여 작성한 도판 ..... | 98 |

# 1장. 서 론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남북 직선축 상에 중심 건물이 놓이고”, “지형 지세에 맞추어 축을 달리하고 있으며”, “남북 관통의 도시축이 될 것이며”, “전체를 하나의 축선 상에 집결시키는 공간형식으로” 등의 설명은 모두 건축 관련 단행본들에서 건축 배치나 도시 계획을 설명할 때 사용된 어구들이다.<sup>1)</sup> 이 설명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축’이다. 축(軸)은 10가지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 사용된 축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은 사전에 제시된 11가지 정의 중 한 가지도 없다. 굳이 짚어내자면, ‘좌표를 정할 때 그 표준이 되는 선’ 혹은 ‘산맥의 가운데 부분’의 의미와 가장 비슷할 것이다.<sup>2)</sup> 하지만, 위에 제시한 어구들만 보더라도 “남북 직선축”이나 “도시축”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즉, 건축에서의 축이라는 키워드가 가지는 의미는 이 단편적인 설명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건축에서 축이라는 단어 혹은 축과 관련된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외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축은 위와 같이 기존 건물군의 배치를 설명하는 단편적인 서술에서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의 다이어그램이나 추상적인

---

1) 각 인용 어구의 출처는 순서대로 1) 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194쪽/ 2) 김석철,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창비, 137쪽/ 3) 김석철,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창작과 비평사, 236쪽  
2) 국립국어원, 『네이버 국어사전』의 <축(軸)> 항목 참조.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 또는 건축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sup>3)</sup>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보편적인 건축 언어이다.

건축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 중 ‘축’이 아니더라도 선뜻 그 단어의 정수(精髓)를 담백하게 설명하기 힘든 단어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단어와 개념들을 별 고민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래 그 단어의 기원이나 용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본인이 인식하게 된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축의 경우도, 건축 분야에서 공통되게 인정한 정의가 없이 상황이 나 서술자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르 꼬르뷔지에<sup>4)</sup>는 축이 “건축의 정리자다”라고 표현하는 한편, “목적지를 향해 이끄는 방향선”이라 설명하였고,<sup>4)</sup> 루돌프 안하임은 축이 “관찰자와 대지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이야기한다.<sup>5)</sup> 이 중, 틀린 표현은 없다. 다를 뿐이다. 즉, 축이라는 단어가 워낙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포할 수 있는 의미도 다양해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건축의 해석에서 축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개념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이다. 1970년대부터 한국건축사의 연구 중 일부는 건축 배치를 유형화하기 위해 중축형(中軸型, 重軸型), 교축형(交軸型), 병렬축형(竝列軸型) 등의 단어를 사용해왔고, 이러한 배치 유형의 특징을 사상적 표현의 결과물로 연관짓기도 하는 등 포괄적으로 ‘축 개념’이라 지칭할 수 있는 흐름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불교건축, 궁궐건축, 유교건축, 능묘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는데, 물론 학자의 연구 목적과 대상, 접근 방법에 따라 축이 적용된 배경이나 사용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축의 다의성과 맥락적 의의를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축이 건축 분야에서 언제부터 개념화되었고 어떻게 담론화되었기에 이렇게 보편적인 건축 언어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축의 뜻과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 분석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축 개념의 외연을 파악함으로써, 축으로 설명되는 건축을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1970-1980년대에 진행된 한국사찰의 가람배치 연구 중 다수는 가람배치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축선(軸線)의 성질을 제시한다. 이들은 중심축형, 교축형, 단선축형, 절선축형, 병렬축형, 곡선축형, 자유형 등의 다양한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4.1절 참고

4) 르 꼬르뷔지에,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 191쪽

5) Rudolf Arnheim,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11

그런데 미리 명시할 점은, 한국의 전근대 문헌에서는 축과 건축을 관련짓는 기록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sup>6)</sup> 축은 오히려 19세기 이후 서양의 근대건축계에서 담론화되기 시작한 건축언어로 사료된다. 특히 해석을 위해 사용된 축이라는 키워드는 기디온의 공간론을 기점으로 ‘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sup>7)</sup> 그들의 저서에서 축을 사용하여 건축을 설명한 슐츠(Norberg Christian Schulz)나 제비(Bruno Zevi), 꼬르뷔지에(Le Corbusier), 안하임(Rudolf Arnheim) 등의 학자들도 모두 20세기 이후에 활동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이라는 건축언어가 서양에서 생성되어 한국에 유입되고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되기 이전에는, 비슷한 개념들이 한국건축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왔을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를 위해서는 근대적인 축 개념의 용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동아시아의 건축에 영향을 미쳐온 전통적 조영 원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20세기 한국의 건축학자들이 한국건축의 해석을 위해 사용한 축이라는 개념을 재고찰함으로써, 한국건축에서 축이 건축언어로서 가지는 위상과 그 개념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와 축 개념이 내포하는 성질의 상통 여부를 분석하고, 축을 사용한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된 축이라는 키워드가 축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건축 조영 원리 중 어느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으며, 축이 적용된 공간의 분석에 있어 어떤 성격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결국 축으로 해석된 건축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축이라는 건축언어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축’과 그와 함께 수반되는 부수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 하겠다.

6) 한국의 궁궐건축을 설명할 때 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고려도경이나 조선 왕조실록, 경복궁영건의회계 등의 고문헌에서 軸이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들 기록에서 등장하는 軸은 문서의 두루마리, 車軸, 행렬의 중심대열, 대자연을 뜻하는 地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Pai & Woo, 「In and Out of Space: Identity and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19(3), 2014,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부분 참고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축에 대한 많은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축에 대한 정의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건축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축 개념의 구체화를 위해, 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축 이외의 개념들로 설명한 내용과 비교 고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축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 중에서 축과 관련지어질 수 있는 개념들을 파악하기 위한 2장에서는 고대 중국의 문화, 한국의 풍수지리, 유학사상, 불교사 관련 서적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조선왕조실록 등의 고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제시한다. 본격적으로 건축에서의 축이 개념화, 담론화된 과정을 확인하는 3장에서는 근대 건축학자들의 서술 내용을 토대로 각 상황에서 축이 대변하는 속성 및 역할을 정리한다. 또한 서양의 건축계에서 축 개념이 형성된 배경과 동아시아로 유입되는 과정 정리를 통해 초기의 축 개념과 공간론의 상관 관계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4장에서는 2, 3장의 예비적 고찰을 토대로 한국건축의 해석 속에서 축을 적용한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1-1 연구 대상의 목록

| 연구분야 |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룬 연구의 목록   |
|------|--|
| 사찰건축 | 안영배-『한국건축의 외부공간(1978)』<br>『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1984)』<br>김봉렬-『조선시대 불교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1989)』<br>이상해-『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1995)』  |
| 유교건축 | 도용호-『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1986)』<br>『유학적 질서규범에 의한 향교건축의 배치에 관한 연구(1995)』<br>김남응-『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1979)』<br>김지민-『향교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1981)』<br>박정해-『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2012)』 |
| 궁궐건축 | 안영배-『한국건축의 외부공간(1978)』<br>『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1984)』<br>조재모-『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型式(2003)』   |

4장의 연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 이후의 한국건축 연구들이다. 한국건축과 관련하여 축 개념을 사용한 초기 사례인 안영배의 연구를 기준으로 다른 연

구들과 비교 고찰하며 각 연구에서 축이 의미하는 바와 서술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비교 대상이 된 연구들은 시기별, 분야별로 많이 인용되는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연구들의 목록은 표 1-1의 내용과 같다.

한편, 용어의 차이에서 생기는 괴리감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와 축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축에 대한 고찰이 결국 '점과 점 간의 연결 관계, 공간과 공간 간의 연결 관계'라는 개괄적인 이해를 전제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연결 관계'에 대한 사상과 축 개념에서 나타나는 '연결 관계'에 대한 논리를 연관지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축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축'을 양끝에 종착점을 가진 선(線)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축이라는 단어'는 축이 언급된 기록에 등장하는 축을 본문에서 다시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축 개념은 단순히 축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축에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거나 속성이 부여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축 개념은 축이 자아내는 공간의 성격(3장에서 설명하는 대칭성, 방향성, 통일성, 영역성 등)과 결부지어지는 경우에 축뿐만 아니라 축성(axiality, 軸性)이라 할 만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은 한국건축에 영향을 미친 전통적 조영 원리를 정리하고, 이 개념들과 축이 상통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설명한 개념들은 대부분 한국건축의 해석에서 언급된 축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도출한 것이다. 한국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고대 중국의 천문지리관부터 풍수지리관, 유가적 사상, 불가적 사상에서 건축(특히 축 개념)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건축에서 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담론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근대의 축 개념과 그 개념의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축에 대한 기록들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초기의 사례들은 대부분 서양의 건축이론에 기반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 개념이 다양한 의도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용 목적에 따라 계획을 위한 축과 해석을 위한 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4장에서 건축 해석 내용을 대상으로 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3장의 후반부에서는 공간론이 축 개념의 형성 및 확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건축계에서 축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한 배경을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분석한 전통 조영 원리와 건축에서의 축 개념 고찰을 토대로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의의와 분야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통 조영 원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축이 적절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한 사례에 대해 축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한 기록과 풍수지리, 천문지리, 유교사상, 불교사상 등 이외의 개념을 활용한 해석을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서술하고, 논의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필요성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의 축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축 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 축 개념의 다의성을 파악하고, 이 개념이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한 예비적 고찰 과정인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와 근대 축 개념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모든 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축 개념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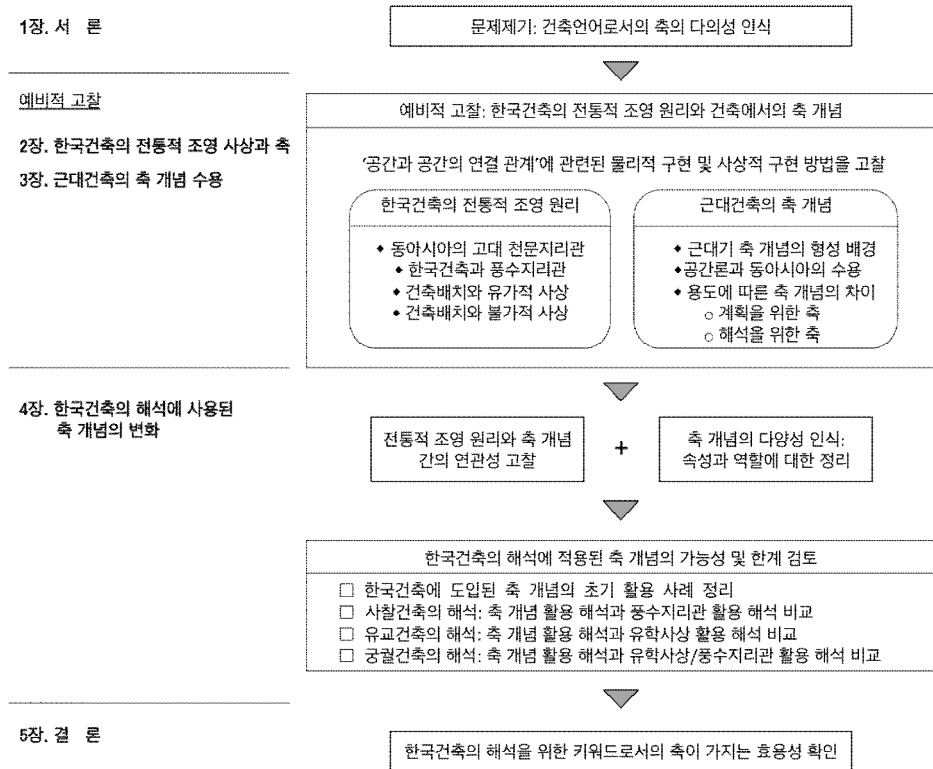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2장. 한국건축의 전통적 조영 사상과 축

---

- 2.1 동아시아의 고대 천문지리관
- 2.2 한국건축과 풍수지리관
- 2.3 권위건축에서의 배치와 축
- 2.4 조선시대 문헌에서 본 축(軸)의 용례

서론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축 개념은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계, 혹은 점과 점의 연결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 관계에 대한 고찰은 사실 건축물의 배치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 역사에 걸쳐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2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천문지리관, 풍수지리관, 유가적 사상, 불가적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결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건축과의 관련성을 분석해보겠다.

### 2.1 동아시아의 고대 천문지리관

우주관이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관념’으로 고대 중국인의 세계와 만물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8)</sup> 우리에게 익숙한 천원지방(天圓地方) 또한 고대 중국인의 우주관(宇宙觀) 중 하나이다. 천문지리관도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데, 그 핵심은 하늘의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땅의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있다. 천문관과 지리관을 별개로 간주하지 않고 천문지리관이라 지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문지리관과 정치, 그리고 건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살기 위한 구조물에서 더 나아가 궁궐건축이나 종교건축 등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

---

8)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41쪽



를 가진 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건물의 배치나 형태 등에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왕조실록 중 태종 18년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예부터 성곽(城廓), 궁궐(宮闕)의 제도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물었을 때, 신하 박은이 “성곽, 궁궐은 천문(天文), 지리(地理)에 따라서 방위(方位)를 정하는데, 천문, 지리는 오행(五行)의 이치를 논한다”고 답한다.<sup>9)</sup> 즉, 오행설(五行說) 또한 천문지리관에 속하고, 이러한 관념들이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문지리관이나 우주관의 어떤 측면이 어떠한 의도로 건축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지리관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논의 중 하나는 오행설이다. 오행설의 기초는 서경(書經)의 홍범(洪範) 중에 있는데 홍범(洪範) 구주(九疇)의 차례는 水, 火, 木, 金, 土로 되어 있으며, 오행의 성격에는 어려 해석이 있으나 민용오재(民用五材)라 하여 고대인의 생활 소재(素材)를 들어 오행이라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sup>10)</sup>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세계관을 구성하는 인자가 된 배경은, 각 요소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형성하는 관계에 있다. 아래는 오행설(五行說)에 대한 조셉 니덤(Joseph Needham)<sup>11)</sup>의 설명으로, 오행설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행의 개념이 다섯 종류의 기본물질이라기보다는 다섯 종류의 기본 과정이며, 중국의 사고는 역시 **실체보다는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행설은 물질로 이루어진 사물의 기본적 성질들, 즉 그것들이 변화를 겪고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성질들을 분류하려는 시도였다. 사실 ‘행들’은 움직이지 않는 수동적인 기본적 실체들이 아니라, 영원한 순환운동 속에서의 다섯 가지 강력한 힘들이었다.<sup>12)</sup>

조셉 니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오행설의 의의는 다섯 가지 행들의 관계 파악을 통해 하나의 체계가 가지는 생리(生理)를 이해하는데 있었다. 실

9) 上又問曰：“自古有城郭宮闕之制，何所據乎？” 朴嘗曰：“城郭宮闕，從天文地理，以定方位，天文地理，論五行之理，不可無也。

〔태종실록〕 태종 18년 2월 7일 - 검교 한성 윤 최덕의가 대군의 장일을 골라서 바치다 申]

10) 오행설의 기초가 民用五材였기 때문에, 오행의 배열 또한 사람의 생명의 지속에 가장 직접적인 水, 火로 시작하여 다음에 生活資材로서의 木, 金에 이르고, 최후로 일체의 素材의 기본이 되는 土가 제시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창조, 『韓國의 風水地理』, 민음사, 1984, 73쪽

11) 조셉 니덤(1900-1995):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교수로 과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12)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사상적 배경』, 까치, 1998, 193쪽

제로 이러한 오행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의 궁궐 배치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세자가 머무르는 곳인 동궁(東宮)은 궁궐의 정전의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동궁은 춘궁(春宮) 또는 청궁(靑宮)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명칭의 배경에 오행이 있다.<sup>13)14)</sup> 세자는 계절적으로 흔히 봄에 비유되는데, 오행에서는 청(靑)이 봄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궁, 춘궁, 혹은 동궁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sup>15)</sup> 즉, 오행이란 다섯 가지 행의 연결관계에 대한 고찰이며, 군주라는 중심을 가지는 궁궐의 체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연결관계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 천문지리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결 관계’에 대한 사상들은 결국 건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고대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인들이 ‘연결 관계’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우주관에서는 해와 달, 그 외 별자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많은 별들에 대한 관찰은 결국 별들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이문규 저의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는 고대 중국인의 우주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분석하고 주요 형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 『개원점경(開元占經)』<sup>16)</sup>에 따르면 하늘의 중심은 북극과 남극으로 나뉘어, 북반구의 중심은 북극이, 남반구의 중심은 남극이 된다. 따라서, 북반구의 천체들은 북극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남반구의 천체들은 남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하늘이 도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의 운행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sup>17)</sup>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축선이 이 하늘 체계의 중심이 되는 형상은 연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레바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軸은 본래 수레바퀴의 차축(車軸)을 뜻하는 글자이다. 말하자면, 축을 점과 점의 연결관계라고 생각하고 북극과 남극이 각각 축의 양끝점이라고 간주했을 때, 고대 중국인들이 수립한 우주관의 설명에도 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중심을 북극성이라 간주하고 건축의 배치에 재구현하는 현상은 중국과

1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中 태종 25권 주석 부분 참고

14)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에는 동궁이 오행을 기반으로 한 명칭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 배경을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보면 漢대의 사마천이 지은 「천관서(天官書)」에서 별자리를 나누는 분류명이 각각 중궁(中宮), 동궁(東宮), 남궁(南宮), 서궁(西宮), 북궁(北宮)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천문지리관과 오행설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77쪽

15) 이덕수, 『新궁궐기행』, 대원사, 2004, 139쪽

16) 당(唐)나라 때 천문이나 점술(占術)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다.

17) 이문규, 앞의 책, 325쪽

한국의 궁궐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사실 천문지리관을 건축에 표현하는데 있어서 초기 사례는 배치가 아니라 건축의 형태에 별자리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도였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한(漢)대의 장안성 성곽이 북두와 남두의 형상을 본딤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sup>18)</sup> 하지만 북극성이 이보다 중요한 입지를 가지게 된 것은 북극성의 위치를 임금의 위치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세종실록 99권에 보면, 후궁을 건설하는 일을 중단하고자 청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 상소문에는 “제왕(帝王)의 거처는 하늘에 북극성이 있어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아니함과 같사오니, 북극성이 한 번 자리를 옮긴다면 온 천하가 해괴하게 볼 것입니다. 별궁을 짓고 자주 옮기시는 것이 이 어찌 천체의 현상을 본받아 백성에게 정한 바를 보임이 되겠나이까”라는 내용이 등장한다.<sup>19)</sup> 이렇게 임금이 거처하는 전각을 북극성에 비유하고 하늘의 체계를 본받고자 하는 관념은 동아시아 역사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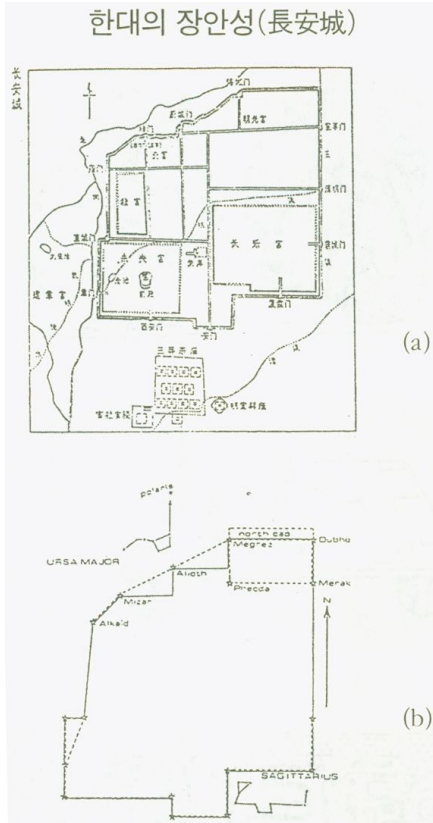


그림 2-1 (a) 한대 장안도(長安圖)  
 (b) 장안성 외벽의 북쪽과 북두(北斗),  
 남쪽과 남두(南斗)의 대응도  
 출처: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48쪽

이 상소문에는 “제왕(帝王)의 거처는 하늘에 북극성이 있어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아니함과 같사오니, 북극성이 한 번 자리를 옮긴다면 온 천하가 해괴하게 볼 것입니다. 별궁을 짓고 자주 옮기시는 것이 이 어찌 천체의 현상을 본받아 백성에게 정한 바를 보임이 되겠나이까”라는 내용이 등장한다.<sup>19)</sup> 이렇게 임금이 거처하는 전각을 북극성에 비유하고 하늘의 체계를 본받고자 하는 관념은 동아시아 역사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극성이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임금의 자리를 상징한다는 데 있지 않다.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춘추 전국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용해서 계절이나 방위 등을 정하는 방법을 두건(斗建)이라 한다.<sup>20)</sup> 중국 한(漢)대의 역사가였던 사마천은 두건을 통해 시각과 방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양(陰陽)을 나누고, 사시(四時)을 세우고, 오행(五行)을 가지런히 하고,

18) 이문규, 앞의 책, 48쪽  
 19) 且帝王之居，如天之有(如)(北)辰，有定位而無遷移，北辰一移纏次，則天下駭見。營別宮數遷移，是豈法天象而示民以定乎？  
 [「세종실록」 세종 25년 2월 29일 -후궁 건설을 중지할 것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 중]  
 20)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78쪽

절기와 도수(度數)의 변화 및 기년(紀年)을 정하는 일이 모두 북두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sup>21)</sup> 즉, 천문지리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체계를 땅 위에 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만물의 질서를 결정해줄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건축에도 영향을 미쳐 땅의 체계, 사회적 질서의 체계, 건축질서의 체계가 하늘의 체계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건축질서의 체계는 군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심성이 강조되며, 모든 요소가 평등하지 않고 특정한 구분을 가진 위계질서를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

21) 이문규, 앞의 책, 78쪽

## 2.2 한국건축과 풍수지리관

### 2.2.1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설

풍수지리론은 우리 민족이 땅을 이해하는 논리 체계 중 하나로 한국의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sup>22)</sup> 따라서 전통건축, 특히 건물들의 배치 분석에는 풍수지리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풍수지리 이론들 중 건물에 대한 개념들이 축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풍수지리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연결 관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창조의 『한국의 풍수지리』에서는 풍수가 하나의 지리사상으로 확립된 이후, 음양오행설이 가장 큰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sup>23)</sup> 앞의 절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음양오행설은 고대 중국인의 천문지리관의 큰 영향을 받았다. 최창조의 책에서 음양오행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陰陽五行說은 古代 中國인들이 몇 가지 대원칙에 따라 論理的으로 宇宙萬象을 보아온 애니미스틱 Animistic한 世界觀으로 陰陽은 말하자면 中國的인 辨證法이며 五行은 곧 일상생활에서의 素材論으로 一般의 통설과 같이 易에서 유래된 것만은 아니다.<sup>24)</sup>

즉, 음양오행설은 음양론과 오행설이 합쳐져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게 된 것으로,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음양이란 결국 時空上의 상반되는 구체적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陰이 추위, 구름, 비, 여성, 내면성, 그늘진 곳을 암시한다면 陽은 빛, 열, 봄, 여름, 남성들의 성격을 가리킨다고 한다.<sup>25)</sup> 이와 같은 설명에서 음과 양의 대비되는 구조가 강조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중요시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山法全書<sup>26)</sup>에 기록된 음양론에 의하면, 地理의 道란 결국 陰 중에서 陽을 구하고 陽 중에서 陰을 찾는 일에 불과하다고 한다.<sup>27)</sup> 결국, 음양론 역시 두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관계’에 대한 고찰

22)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서울민족대관-11.풍수편/12.관습편/13.종교편』, 서울특별시, 1996, 37쪽

23) 최창조, 『韓國의 風水地理』, 민음사, 1984, 71쪽

24) 최창조, 앞의 책, 71쪽

25) 최창조, 앞의 책, 72쪽

26) 중국인 섭태구(葉泰九)의 풍수지리서인 『山法全書』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한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서.

27) 최창조, 앞의 책, 74쪽

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음양론과 천문지리관에서 간단히 설명한 오행설이 결합된 배경은 무엇일까.

표 2-1 五行의 分類體系  
출처: 최창조, 『韓國의 風水地理』, 민음사, 1984

| 五行 | 方位 | 其帝 | 其治 | 其神 | 其獸 | 其音 | 其日 | 其色 | 十干 | 十二支 | 季日數    |
|----|----|----|----|----|----|----|----|----|----|-----|--------|
| 木  | 東  | 太皞 | 春  | 歲星 | 蒼龍 | 角  | 甲乙 | 青  | 甲乙 | 寅卯辰 | 春七十二日  |
| 火  | 南  | 炎帝 | 夏  | 熒惑 | 朱鳥 | 徵  | 丙丁 | 赤  | 丙丁 | 巳午未 | 夏七十二日  |
| 土  | 中央 | 黃帝 | 四方 | 鎮星 | 黃龍 | 宮  | 戊己 | 黃  | 戊己 | 四季  | 中央七十二日 |
| 金  | 西  | 少昊 | 秋  | 太白 | 白虎 | 商  | 庚辛 | 白  | 庚辛 | 申酉戌 | 秋七十二日  |
| 水  | 北  | 顓頊 | 冬  | 辰星 | 玄武 | 羽  | 壬癸 | 黑  | 壬癸 | 亥子丑 | 冬七十二日  |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오행설과 같이 五를 근본으로 하는 사상은 오행뿐 아니라 五色, 五味, 五聲, 五音 등 사물을 생각하는 여러 방면에 이용되고 있었고, 이 원리화된 오행조직(五行組織)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이라고 한다.<sup>28)</sup> 월령이란 음양가(陰陽家)<sup>29)</sup>의 직능으로, 결국은 天文, 역(曆)의 학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이 하나로 결부되고, 四時, 四方의 관념에 따라서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형세(形勢)도 취하게 된 것이라 한다.<sup>30)</sup> 여기에서 음양오행에 四時와 四方의 관념이 더해지는 과정이 생활 전반에서 시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조명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조선시대 궁궐건축은 전각의 명칭뿐만 아니라 전각의 좌향 또한 오행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음양오행설은 방위, 계절, 색, 절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적 표현을 해석하기

28) 최창조, 앞의 책, 73쪽

29) 고대 중국에서 음양설(陰陽說)을 신봉하던 학파. 전국시대 제자백가(諸子百家) 중의 한 파로 제(齊)나라의 추연(鄒衍)·추석(鄒奭) 등이 그 대표적 사상가이다.

두산백과, 철학>동양철학>중국철학>고대철학>陰陽家 부분 참고

30) 최창조, 앞의 책, 74쪽

위한 도구로 적합하다.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건축의 해석에 있어 음양오행설은 빈번히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축이라는 개념과도 자주 연관 지어진다. 특히, 방위상의 축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매체로서 중심 축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2.2 풍수지리와 방위 및 입지의 관계

풍수지리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개념들로는 앞에서 설명한 음양오행을 비롯하여 산을 보는 법인 간룡법, 바람을 갈무리하는 법인 장풍법, 흐르는 물을 보는 법인 득수법, 혈을 정하는 법인 정혈법, 좌향을 잡는 법인 좌향론, 땅의 모양새를 보는 법인 형국론, 지형의 과부족을 보완하는 법인 비보압승론 등이 있다.<sup>31)</sup> 이중, 건물의 배치와 직결되는 좌향론을 먼저 살펴보겠다.

좌향(坐向)이란 건물의 선 자리를 뜻하며, 풍수지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혈에서의 위치로 본 방위를 말한다.<sup>32)</sup> 건물이 등진 방위를 좌(坐)로, 건물의 정면을 향(向)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좌향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며, 방향의 개념과는 달리 특정한 선호성에 따라 결정된다.<sup>33)</sup> 좌향은 산(山)과 수(水)와 더불어 풍수의 3요소로 꼽힐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는데,<sup>34)</sup> 3요소 중에서도 건물을 짓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향 개념 중에서도 정복을 등지고 정남을 향함을 뜻하는 자좌오향(子坐午向)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sup>35)</sup> 세종대부터 고종대까지 꾸준히 등장하는 자좌오향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궁궐의 전각부터 장지(葬地)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사례에서 자좌오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6)</sup>

3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앞의 책, 제 2장 풍수일반 부분을 참고

32) 혈(穴)은 용맥(龍脈, 산의 정기(精氣), 즉 땅 속으로 흐르는 생기의 움직임)을 뜻한다. 중 음양이 합해지고 산과 물의 정기가 모이는 곳을 말하는데, 산의 혈, 사람의 혈, 건물의 혈 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앞의 책, 62쪽

3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앞의 책, 62쪽

3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앞의 책, 57쪽

35) 자좌오향(子坐午向)에 대한 정의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세조 34권 주석 부분 참고

36) “백악산(白岳山)의 명당(明堂)은 배임향병(背壬向丙)이며 궁궐(宮闕)은 자좌오향(子坐午向)입니다.”

「세조실록」 세조 10년 9월 7일 -풍수학훈도 최연원이 최양선을 반박하는 상언을 올리다 中

“안산(安山)의 장혈(葬穴)은 계좌정향(癸坐丁向)이운데, 고서(古書)에서 꺼리는 바이오니, 청하옵건대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고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세종 23년 9월 2일 -목효지가 천인으로서 상언한 죄에 관해 논의하다 中

북쪽은 水, 남쪽은 火를 뜻하는 것으로, 물과 불은 결국 음양의 이치가 가장 잘 맞는 오행으로서 최대로 길한 방위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좌향이라는 개념은 건물 여러 동을 포함하는 건축군보다는 단일건 축물에 크게 작용하고, 건물의 정면과 배면의 방향을 결정지움에 따라 방향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좌향이 일반적인 방향과 다른 점은 한 지점이나 장소는 수많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만, 좌향은 건물에 주어진 단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축선 또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좌향을 이야기할 때 축이라는 키워드가 종종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정북에 앉아 정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좌오향의 경우는 정면이 남향으로, 배면이 북향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북축을 가지게 된다.

좌향론이 건물의 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건물의 입지와 건물군 내의 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지리관으로는 형국론과 양택론이 있다. 형국론이란 ‘산의 모양새를 보고 그 땅의 성격과 기질을 짐작하고 또한 혈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sup>37)</sup> 이렇게 파악된 혈에 주요 건축을 배치하기 때문에 건물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물배치를 설명할 때 흔히 주산(主山)과 안산(案山), 좌청룡, 우백호 등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산의 모양새를 통해 땅의 기질을 파악하려는 원리가 형국론에 속한다. 형국론은 결국 ‘우주의 만물 만상에는 각각 고유의 이치와 기운과 형상을 갖고 있어 물체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그와 상응한 기운과 이치가 드러나 있다’<sup>38)</sup>는 믿음을 근거로 자연의 기를 거스르지 않을 장소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형국론의 주요 개념들을 보면, 집터의 뒤쪽에 위치한다는 주산이나 집터의 맞은편에 위치한 안산, 터의 왼쪽 산맥을 일컫는 좌청룡(左靑龍), 오른쪽 산맥을 가리키는 우백호(右白虎) 등의 설명과 명칭에서 ‘방향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좌향론과 형국론의 공통적인 핵심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 환경의 중심이 될 입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심성과 방향성을 강조하게 된다.

건물의 입지와 관련하여 특히 주거건축의 입지를 택하는데 흔히 거론되는 조영원리 중 하나는 양택풍수이다. 거시적 양택론은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사람이 살아갈 집터, 마을, 혹은 도읍을 정하는 것이고, 미시적 양택론은 주택 내의 배치관계를 다루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1929년에 손유헌에 의해 출간된 『역단

37)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서울민족대관-11.풍수편/12.관습편/13.종교편』, 서울특별시, 1996, 58쪽

38)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앞의 책, 58쪽



회도조선민택삼요(易斷繪圖朝鮮民宅三要)』는 중국에서 전해진 양택풍수논리를 토대로 조선의 가옥에 알맞게 보완한 것으로,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삼요(三要, 門·主·灶)를 다루고 있다. 특히, 육십사괘효를 풀이하면서 이를 주택의 삼요와 연결하여 집안의 길흉을 논하며 사례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태극, 양의, 사상, 팔괘의 생성 과정과 더불어 방위, 신체, 장부 등을 설명하는 등 주거 관련 풍수지리서의 종합적 저서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삼요의 해석에 있어서는 팔괘와 방위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역단회도조선민택삼요』에 수록된 설명 중 일부로, 삼요의 배치 순서와 삼요와 방위 간의 관계가 집안의 길흉을 좌우함을 논하고 있다.

양택은 먼저 대문을 보고 다음에 주방을 본다. 문과 부엌은 동사 서사<sup>40)</sup>로 나뉘지만 주방은 문득 정한 위치가 없다. 고대자가 즉 이것이니 그 요지는 문과주상생에 길함이 있고 문주 상극에 흉하니 양택을 보는데 필연의 이치이다. 부엌의 부뚜막은 양생의 장소니 그 관계가 심히 크다. 먼저 문과 더불어 상생하고, 다음에 주와 더불어 상생하니 만약 대부분 부엌의 부뚜막으로 중함을 삼아 화복의 가치를 결정하고 문주의 상생 상극의 이치를 가벼이 여긴다면 또한 바른 이론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門主灶-문과 주가 상생하고 주와 조가 상생하고 조와 주가 상생하는 이 삼자는 서로 상생하고 상극함이 없게 하며 혹 서로 비화하고 또 집주인의 본명과 일치한즉 사람들이...<sup>41)</sup>

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택론은 방위뿐만 아니라 주택 내 주요 구성요소의 구성 순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 주요 구성요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풍수지리관은 건물의 향이나 입지를 결정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택의 배치와 공간 이용행태에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이와 같은 풍수지리관의 주요 원리들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으로 중심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림은 인체의 얼굴에 방위와 중심축을 대입한 것으로 이마와 코와 입이 지나가는 이 선은 곧 주산과 명당이 위치하는 중심선, 태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남북축이 된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관의 다

39) 정정남, 『조선 후기 주택의 양택론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9쪽

40) 동사택이란, 삼요가 감리지손(북, 남, 동, 동남)에 속하는 방위에 위치하는 것이고 서사택이란 삼요가 건곤간태(서북, 서남, 동북, 서)에 속하는 방위에 위치하는 양택을 말한다고 한다. 정정남, 앞의 논문, 26쪽

41) 손유현, 『역단회도조선민택삼요』, 권일, 양택삼요론 본문 중에서/정정남, 앞의 논문, 26쪽에서 재인용

양한 논리들은 결국 어떠한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므로 체계의 균형을 잡는 중심점이나 중심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중심점과 중심선, 방위 등의 개념은 건축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들로 이로 인해 중심성과 방향성 등의 공간의 성질이 구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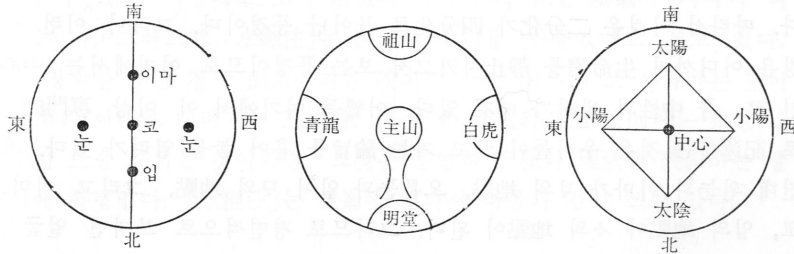


그림 2-2 인체의 축, 명당의 방위, 음양론의 체계  
출처: 박용숙, 『한국고대미술문화사론』, 일지사, 1976, 107쪽

우리나라의 전근대 건축은 건물의 좌향이나 남면사상 등의 풍수지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명시할 점은 우리나라의 전통 조영 체계는 축이나 그리드 등의 기하학적 요소로써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건축에서는 축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이와 비슷한 ‘연결 관계’에 대한 개념들이 다른 사상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2.3 권위건축에서의 배치와 축

### 2.3.1. 유교사상의 사회적 질서가 반영된 궁궐 건축배치

좌향이 단일건축물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라면, 한국건축의 좌우 개념은 방향성뿐만 아니라 건축군의 중심성 및 대칭성과도 연관이 있다. 공간의 주요 요소들을 한 지점 혹은 하나의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질서정연하게 배치하여 공간의 중심을 강조하고 대칭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은 전근대 한국건축 전반의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좌우 개념은 사실 건축 배치와 같은 물리적인 형태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위계나 관념에서도 드러난다. 일례로,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을 가리키던 말인 ‘양반(兩班)’ 또한 좌우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근정전 앞마당의 품계석은 조정의 질서를 잘 보여주는데, 용상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좌우로 구분되는 이 체계는 각각 왼쪽은 문반(文班), 오른쪽은 무반(武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2)</sup> 즉, 궁궐에는 임금이라는 중심이 있고, 이에 더해진 방위체계가 조정의 질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축과 건축을 관련지은 언급은 없지만, 좌우 대칭의 개념을 이용하여 법궁의 체제를 갖추려는 시도는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선조 39년에 신하들이 궁궐영건과 관련하여 올린 상소문의 내용으로 법궁이 되려면 좌우 구조가 먼저 잡혀야한다는 관념을 반영한다.

궁궐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광화문(光化門)에서 근정전(勤政殿)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좌우의 월랑(月廊)이 있어야 되고 근정전에서 사정전(思政殿)·강녕전(康寧殿)까지는 전후좌우의 회랑(回廊)을 먼저 영건하여 법궁(法宮)의 체제를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43)</sup>

이 상소문의 주된 내용은 영역의 경계를 결정짓는 월랑과 회랑을 지어 궁궐 내 주요 전각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법궁이라는 공간의 지위가 가지는 좌우 구조의 중요성 또한 엿볼 수 있다.

전근대의 한국건축 중 궁궐건축이나 국가시설, 불교건축, 유교건축에서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사상적 표현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때문에 건축 공간에도 사회적 위계질서가 반영되어 주종(主從)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42) 이덕수, 『新궁궐기행』, 대원사, 81쪽

43) 宮闈營建都監啓曰:…自光化門至勤政殿, 皆有左右月廊; 自勤政殿至思政殿、康寧殿前後, 左右回廊, 不得不爲先營建, 以備法宮體制。

〔선조실록〕 선조39년 11월 7일-궁궐영건 관련 상소문 中

많다.<sup>44)</sup> 주(主)가 되는 임금이 자리할 전각이나 불상이 놓이는 주불전,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 등의 위치나 좌향이 먼저 정해지고 주변의 부속요소들이 배치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건축군 배치의 근간이 되는 사상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군주가 법궁에 앉아 남면하여 나라를 다스려야한다는 규범에 대해 논하는 광경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특히 정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잠시 다른 전각이나 다른 궁궐로 이동해있을 경우에 남면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반복된다. 다음 구절은 성종이 우의정 홍응(洪應)과 창덕궁을 수리하는 동안 창경궁에 거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교한 내용이다.

**임금은 반드시 남면(南面)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창경궁은 동향인지라 임금이 정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긴다. 다만 창덕궁을 수리할 동안 잠시 옮겨 있을 뿐인데 정승(政丞)이 스스로 거처할 곳이라고 말하니, 이는 오로지 이 궁(宮)을 내가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다.**<sup>45)</sup>

성종은 임금이 반드시 남면하고 다스려야하는데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明政殿)은 동향이기에 때문에 정치할 곳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임금은 정전에서 남면하여 다스린다는 규범은 중국의 황제를 위한 예를 올릴 때를 제외하고는 지켜야하는 중요한 관습으로 전해져 왔다.<sup>46)</sup> 또한 이를 통해 궁궐 내 사회적 위계

44) 건축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 사회적 위계질서가 구현되었다는 견해는 비단 한국건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돈정의 『중국고대건축사』에 따르면, 중국 고대건축의 배치에서 드러나는 좌우 대칭적 구조가 중국 고대사회의 종법(宗法)과 예교제도(禮敎制度)에 적합하고 존비(尊卑), 장유(長幼), 주복(主僕)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중국의 삼합원은 종축선 위에 주요한 건축을 안치하고, 마당의 좌우 양측에 횡축선을 따라서 형체가 비교적 작은 두 개의 부차적인 건축을 서로 대치시켜 ㄱ형 혹은 H형을 구성한다. 사합원의 경우는 주요건축의 맞은편에 다시 한 동의 보조건축을 지어 방형, 장방형의 정원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합원식 배치는 당시의 기능, 안전, 예술상의 요구에 적합하게 부응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궁전, 사묘, 주택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 고대건축이 축선을 중심으로 건축군의 배치를 결정했던 배경에는 건축의 형태가 곧 봉건사회의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반영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축선과 횡축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형화된 형식의 중국 사합원은, 강한 종축을 중심으로 주제와 부속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건축에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보편적인 배치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돈정,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2003, 33-34쪽

45) 予意 ‘人君必須南面出治，昌慶宮東向也，非人君出治之所。’ 但昌德宮修理間，暫移御耳，政丞以自處言之，是專以此宮爲予居處也。

〔성종실록〕 성종 15년 10월 11일 -우의정 홍응이 창덕궁에 임금이 거처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변명하다 中〕

46) 중국의 황제는 조선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를 위하여 예를 올릴

질서도 정립되었다. 남면이란 오직 군주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세종이 세자가 남면하고 조회를 받도록 명하였을 때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이에 관련된 상소문에서는 임금이 남면하는 것을 북극성에 비유하여 언제나 제자리에 위치하여 주변의 질서를 잡는 제왕의 자리라 여기는 생각이 잘 드러난다.

전하께서 이미 남면하여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데, 동궁도 역시 어찌 감히 남면하고 조회를 받아서 지존과 같게 하겠습니까. **제왕(帝王)의 자리는 마치 북극성[北辰]이 그 자리에 항상 거(居)하고 못별이 둘러 있는 것과 같은 것이옵니다.** 만약 동궁이 오늘은 북면(北面)하여 전하께 조회드리고 내일은 남면하여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다면, 사체(事體)의 미편(未便)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때는 임금이 서향하였다. 이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지켜진 규범으로 선화봉사고려도경 25권 중, 고려의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서 내려온 조서를 받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에도 이와 같은 의례의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

“국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회경전으로 들어가면 궁정 아래 향안(香案 향로나 향합을 올려 놓는 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국왕은 서쪽을 향해 서고** 정사와 부사는 북쪽 위에 자리잡고 남쪽을 향해 선다. 상절(上節)의 관원들은 차례에 따라 정사와 부사 뒤에 서고 나라의 관원들은 왕의 뒤에 선다.”

〔선화봉사고려도경〕 제 25권 수조(受詔)-배조(拜詔)의 일부분 발췌

“이날 제전의 예가 끝나고 잠시 물러나 있다가 조위(弔慰)의 예를 거행하였다. 먼저 궁정 안에다 향안(香案)을 마련하고 **서쪽으로 천자의 궁궐을 바라보았다.** 왕해(王楷)는 소복으로 서쪽을 향해 서고, 정사는 남면하여 서쪽 윗자리에 자리잡고, 부사는 또 그 다음에 자리잡았다. 부사가 조서를 정사에게 주니 정사는 이를 왕에게 주었다. 왕은 허리를 깊이 굽혀 국공하고 재배하고서 꿇어앉아 그것을 받았다.”

〔선화봉사고려도경〕 제 25권 수조(受詔)-조위(弔慰)의 일부분 발췌

한편, 이러한 공식적인 의례가 아니고 중국의 사신들을 맞아 잔치를 여는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임금이 남면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동하여 두 사신을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청(請)하여 잔치하였다. 상사(上使)가 고두(叩頭)하면서 사례하기를, “우리 집안 소시(小廡) 들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 주시니, 전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머리에 이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고, 친히 **어좌(御座)와 연탁(宴卓)을 잡아 정북(正北)에 옮겨 설치하여 남면(南面)하게 하고,** 아뢰기를, “청컨대 전하께서 옥좌(玉座)에 오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히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국(本國)의 토민(土民)들이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옥좌(玉座)에 오르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지난해에 왔을 때에 나로 하여금 실례(失禮)를 많이 하게 하였는데, 내가 부득이하여 대인(大人)의 말대로 많이 실례를 하였으므로, 십분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어찌 나더러 실례하라고 합니까?” 하자, 상사(上使)가 말하기를, “**이곳은 전하의 궁궐(宮闕)이 있는 곳이니, 바로 남면(南面)하여 앉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丙申/上, 幸景福宮, 請宴兩使于慶會樓下。 上使叩頭謝曰: “我家小廡, 陞堂上官, 殿下莫大之恩, 頂戴不起。” 親執御座與宴卓, 移設正北, 南面啓曰: “請殿下陞座。” 上曰: “不敢當。” 兩使曰: “我輩, 是本國土民, 請殿下陞座。” 上曰: “大人去年來時, 教我多失禮, 我不得已依大人說, 多有失禮, 十分後悔。 今年又何教我失禮?” 上使曰: “此是殿下宮闕所在, 正宜南面坐。”

〔성종실록〕 성종 12년 5월 22일 -중국 사신을 경회루에 청하여 잔치하다 中]

이것이 신 등이 여러 번 여쭙어 그만두지 못하고 기어이 윤희를 얻으려는 까닭입니다.<sup>47)</sup>

이러한 남면의 원리는 궁궐 배치와 의례 운영의 두 가지 관점에서 경복궁 주요 공간 내 축의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첫째로는 군주의 공간을 남향으로 만들고 정전, 편전, 침전이 일직선 상에 위치한다는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각들 사이에 남북축이 조성되는 것이다. 둘째로, 각 전각 영역 내에서 의례가 진행될 때, 군주가 남면하고 좌우에 신하들이 자리함으로써 좌우대칭이 완성된다. 이러한 균제(symmetry)는 중심성과 축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 2.3.2 불교의 우주론 및 종파별 교리가 반영된 건축배치

현존하는 한국의 문화재 중 상당수가 불교 사찰이다. 이 사찰들의 공간은 지역과 시대 등 상황에 따라 풍수지리나 민간신앙, 유학사상의 영향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불가적 사상의 구현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찰의 배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불교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불교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결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천문지리관과 마찬가지로, 불교관 중 건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논의 중 하나는 불교의 우주론이다. 그 중에서도 수미산설과 만다라는 사찰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 간주된다. 불교사학자인 염중섭은 불교의 우주론이란 인도 전통의 우주론인 수미산설(須彌山說)을 수용하여 불교적인 관점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불교가 주류이던 시대에는 종교의 관점인 동시에 과학이었다고 설명한다.<sup>48)</sup> 이 우주론의 중심이 되는 수미산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 건축의 구현에도 적용되었다. 사전적 뜻에 따르면, 수미산이란 불교의 우주론에 나오는 상상의 산으로 세계의 중심에 솟아 있는 거대한 산이라고 정의된다.<sup>49)</sup> 다음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개괄적인 설명이다.

---

47) 殿下既以南面而朝群臣矣，東宮亦安敢南面受朝，以擬至尊乎？帝王之位，如北辰，居其所，衆星拱之。若東宮今日北面而朝，殿下明日南面而朝，群臣事體之不便，莫甚於此矣。此臣等之所以屢瀆不已，期於得請也。

〔세종실록〕 세종 25년 4월 23일 -사간원에서 세자가 정사를 행하고 남면하여 조회를 받도록 한 명을 회수할 것을 상소하다 中〕

48) 염중섭,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에 관한 공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초록에서 발췌

49)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21세기북스, 2014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승신주(勝身洲)·섬부주(臚部洲)·우화주(牛貨洲)·구로주(俱盧洲)의 4대 주가 동남서북에 있고, 그것을 둘러싼 구산(九山)과 팔해(八海)가 있다. 이 수미산의 하계(下界)에는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는 인간계가 있다. 또 수미산 중턱의 사방으로 동방에는 지국천(持國天), 남쪽에는 증장천(增長天), 서쪽에는 광목천(廣目天), 북쪽에는 다문천(多聞天)의 사왕천(四王天)이 있다.<sup>50)</sup>

이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서 수미산은 수직적 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미산 주위 四方에 주요 요소가 배치되는 형식으로 구심적 질서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람배치에 대한 해석에서도 이러한 우주관을 토대로 각 구성 요소의 위치 및 의미를 분석하는 서술 방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염중섭의 논문인 「불교우주론과 사원구조의 관계성 고찰」에서는 수미산의 위쪽으로 천계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아, 불교우주론에서 수미산은 중심축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천지의 연결적 의미를 확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sup>51)</sup> 또한, 이 논문은 천왕문이 사왕천(四王天)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찰의 공간적 한계에 따라 4방위에 입각한 4동의 각기 다른 건축물로 구현하지 않고 사찰의 진입로에 동남서북의 방식에 따라 한 곳에서 표현한 사례라고 덧붙인다.<sup>52)</sup> 또한, 불교우주관의 한 측면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 구현은 중국적인 일향성의 건축양식에 인도식의 동심원 구조가 내포된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한다.<sup>53)</sup> 이와 같은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구심적 구조를 가진 수미산론을 우리나라의 사찰건축에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부분적인 적용과 상황에 따른 변형을 거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수미산설을 포함한 불교 우주론의 다양한 측면을 사찰건축의 배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연구한 학자로는 김봉렬이 있다. 그는 조선시대의 사찰건축 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각 종파별 교리와 가람배치 형식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봉렬의 박사학위논문 중 6.2절에서는 수미산설과 법화사상, 만다라 등의 사상이 조선시대 통불교적 가람배치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수미산설이 다분히 인도 중심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 원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미산설의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수미산」 부분 참고

51) 염중섭, 「불교우주론과 사원구조의 관계성 고찰」, 건축역사연구, 17(1), 2008, 68쪽

52) 염중섭, 앞의 논문, 77쪽

53) 염중섭, 앞의 논문, 77쪽

구조는 고대 세계관의 일반적인 모델<sup>54)</sup>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사찰건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불교적 우주관 전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결국은 수미산설의 등장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sup>55)</sup> 특히 수미산설에 나타난 체감적 수직형상을 기초로 대승(大乘)의 십계(十界)가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sup>56)</sup> 이뿐만 아니라 법화사상에 의해 불단-보살단-신중단으로 구성되는 동심원적 삼단구조가 구성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만다라(漫荼羅, Mandala)<sup>57)</sup>의 요소 가운데 구심성, 다중성, 축과 방향성이 추가되어 형성된 것이 통불교 사찰의 구성형식이라고 설명한다.<sup>58)</sup>

이렇게 만다라의 요소가 주로 공간적, 회화적 의미로 이해되고 활용되는 것은 만다라의 연원이 구상화와 표현상의 문제 해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sup>59)</sup> 흔히 회화적으로 표현되는 만다라의 형태는 고대 인도의 왕성을 본뜬 실재적 건축의 형태로, 겹겹이 둘러싼 방형과 원형의 경계(境界)는 성곽을 의미하며, 사방의 四門은 사천왕이 수호하는 성문이라고 한다.<sup>60)</sup> 여기에서도 수미산설과 마찬가지로

54) 건축 이론에서 축 개념이 형성되고 담론화되기 이전에는 축이라는 선(線)적 요소가 고대 세계관의 상징적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역할은 대부분 도상학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본문에 서술한 수미산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대 세계관에서 받아들이는 축의 이미지는 수직적 축으로 구심성 또는 중심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상학적 관점에서 세계 문화의 대표적 상징들을 정리한 『세계 문화 상징 사전』에서는 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스러운 에너지가 현현(顯現)되는 장소, 창조가 시작되는 점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린다. 이 점을 상하로 관통하는 수직축이 우주축(세계축, Axis Mundi)이다. ‘우주축’은 시간과 공간의 중심점, 만물을 떠받치는 최고점, 만물이 그 주위를 회전하는 축, 규범,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우주축’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우주수(宇宙樹)’, 성산(聖山), 하늘의 빛, 기둥, 장대, 방추(紡錘), 창, 장창(長槍), 화살, 지팡이, 땃줄로 끈 실, 전차의 차축, 못, 열쇠 등이 있다.”

J. C. 쿠퍼, 이윤기 역, 『세계 문화 상징 사전』, 도서출판 까치, 1994, 24쪽

55)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55쪽

56) 김봉렬, 앞의 논문, 159쪽

57) 만다라는 불교에서는 주로 밀교적 용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manda는 중심(中心) 또는 본질(本質)이나 심수(心髓)라는 의미를 갖고 la는 소유(所有)를 의미하는 접미사라 하여 결국 mandala란 중심 또는 본질을 얻는다는 합성어이며 이를 다시 말하면 본질 그 자체 또는 심수를 원만히 하는 것이란 말이 된다.

홍윤식, 『만다라』, 대원사, 1992, 8쪽

밀교에서 말하는 만다라는 양부만다라(兩部漫荼羅), 혹은 양계만다라(兩溪漫荼羅)인데, 이는 태장계(胎藏界) 만다라와 금강계(金剛界)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만다라의 활용이 발견된 예가 없으며, 단지 화엄만다라(華嚴漫荼羅)의 형태로 전해온다고 하는데, 그의 한 사례인 예천 용문사의 화엄만다라는 양부만다라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체계를 간략화 및 추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김봉렬, 앞의 논문, 159쪽

58) 김봉렬, 앞의 논문, 162쪽

59) 홍윤식, 앞의 책, 8쪽



구심적 질서와 사방의 형태가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회화적으로 묘사되는 수미산과 만다라를 비교해보면, 수미산은 상상 속의 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만다라는 정사각형과 원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평면 상 문양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미산에서는 수직적 축의 존재가 강조되지만 만다라에서는 평면 상의 종축과 횡축이 강하게 드러난다.

정리하자면, 불교 교리나 사상이 사찰건축의 가람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과정은 각 사찰의 입지와 향, 종파별 배경,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수미산설과 만다라의 경우, 그 형상이 구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수반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심적 질서를 구현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경사지에 사찰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찰의 전반적인 배치에 이러한 사상이 직접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 부분적인 구성이나 주불전 영역에 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다양한 변용을 통해 불교우주론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현대의 건축언어인 축으로 전통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건축의 조영원리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축 개념과 비슷한 당시의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천문지리관의 경우 오행설에 등장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통해 만물의 질서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드러난다. 이 오행설의 의의는 각기 다른 요소들의 관계를 고찰하려는데 있다. 또한, 하늘의 체계를 관찰하여 땅의 체계를 바로잡으려 한 천문지리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늘의 위계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하나의 체계에 중심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써, 더 나아가 군주의 위치를 북극성의 위치에 대비하여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립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풍수지리관이 기초가 된 것은 오행설과 음양론이 일체화된 음양오행론이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론은 시간, 계절, 방위 등의 다양한 관념을 포괄함으로써, 시공간 개념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음양오행론을 토대로 건물의 방위와 입지를 결정하는 좌향론과 형국론에서는 주위 환경을 통해 땅의 혈을 찾아내는 등 동서남북의 방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풍수지리관은 권위건축의 상위 사례인 궁궐건축에서도 드러나는데, 군주를 위한 공간인 궁궐에서는 유교 사상 또한 가미되어 남면사상과 좌우개념 등이 구현된

---

60) 김봉렬, 앞의 논문, 159쪽

다. 결국, 궁궐의 공간적 질서가 사회적 위계 질서를 반영하므로 군주가 중심이 되는 중심성과 의례를 위한 방향성, 대칭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불교우주론의 수미산설과 만다라에서는 강렬한 구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사방에 우주론의 체계를 잡기 위한 주요 개념들이 배치되는 등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건축의 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전통 조영 사상들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공간 관련 성질 및 의의를 정리해보면 그림 2-3의 내용과 같다. 남면사상, 수미산설, 만다라, 좌향론, 형국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방향성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수미산설과 만다라는 수직적 축을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성립되는 등 구심성이 강조된다. 남면사상과 천문지리관의 북극성 관련 이론은 궁극적으로 중심성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는 오행설과 음양오행설(음양설과 오행설이 조합된 이론)이 있다. 오행설은 음양오행설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사상적 질서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보다 발전한 음양오행설은 시공간개념의 일체화를 통해 보다 세세한 세계관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 조영 사상에서 도출된 성질들은 이후의 건축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변의 성질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성질들이 시기별, 지역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구현, 혹은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건축에서 축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후의 동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계 혹은 점과 점의 연결 관계를 뜻하는 건축에서의 축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글자 축(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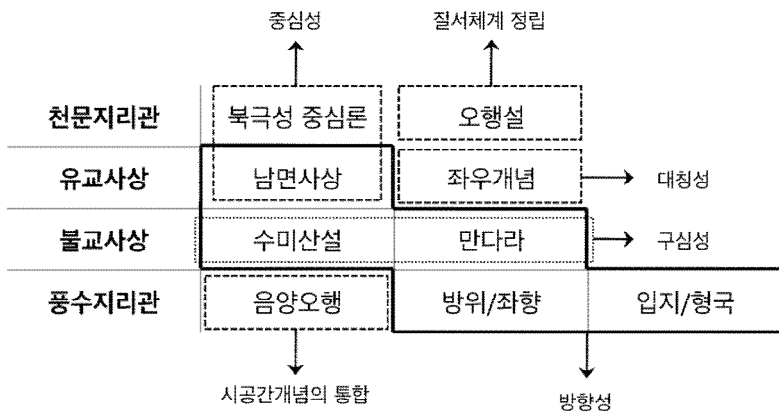


그림 2-3 2장에서 거론한 전통 조영 사상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공간 관련 성질

## 2.4 조선시대 문헌에서 본 축(軸)의 용례

軸이라는 한자가 axis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897년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편찬한 『한영자전(韓英字典)』에는 축을 axis로 번역한 기록은 없지만, 중축(中軸)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다. 중축은 가운데라고 설명되어 있고, 영어로는 mediocre; middle quality라고 적혀있다.<sup>61)</sup> 이 설명으로 보아 형태 상의 가운데 선을 말하는 기하학적인 개념보다는 추상적으로 중간(中間)의 의미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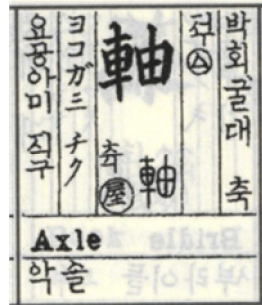


그림 2-4 지식영의 아학편에 실린 축의 영문, 일문, 한문 표기

국내 학자에 의해 軸이 영어 단어로 번역된 최초의 문헌은 지식영이 편찬한 『아학편』이다.<sup>62)</sup> 아학편은 총 2,000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상권은 유형적인 개념을 담은 글자들, 하권은 무형적인 개념을 담은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축은 상권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로 이 당시 축에 대한 개념은 유형적인 범주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軸은 axle, 즉 바퀴의 차축(車軸)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한글 뜻은 박회골대 축이다. axle과 axis의 어원은 그리스어 axon으로 같다.

궁궐 건축의 배치를 논할 때 축이라는 키워드가 흔히 사용되지만, 실제로 1865년 경복궁이 중건될때 작성된 『경복궁영건일기』에는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궁궐 건축과 관련하여 axis를 의미하는 축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거론하는 예가 없다. 다만, axis가 아닌 다른 뜻을 의미하는 軸이라는 글자가 사용된 사례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당시에 軸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글자 軸의 용례 변화에 대한 전조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 軸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례는 약 500여 건이 넘는 데, 이 중 사람 이름에 軸이 쓰인 것과 두루마리를 뜻하는 軸을 제외하면, 대표적

61) James Scarth Gale, 『한영자전(韓英字典)』, Kelly & Walsh, p.791

62) 『아학편』은 본래 조선후기(1804)에 정약용이 편찬한 아동용 한자교습서이다. 본문의 그림은 정약용의 『아학편』이 아닌, 1908년 지식영에 의해 새로운 판본으로 재출간된 『아학편』에 실린 軸 단어 설명이다. 지식영은 정약용의 『아학편』에 덧붙여 일어 표기법, 한글로 표기한 일어 발음, 같은 뜻의 영어 단어, 한글로 표기한 영어 발음 등을 수록하였다. 한국인에 의해 편찬된 다국어 문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성우 편,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지식: 지식영 편찬의 『兪學編』의 언어 자료, 인하대학 출판부, 13쪽

으로 세 가지 경우에 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는 중요한 관직을 지칭할 때, 두번째는 행렬의 중심대열을 뜻할 때, 마지막으로는 자연의 대지(大地)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례는 중요한 자리의 관직을 지칭하는 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軸을 사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단어로는 기축(機軸), 균축(鈞軸), 추축(樞軸), 정축(鼎軸), 형축(衡軸), 병축(秉軸), 정축(定軸)이 있다. 기축, 균축, 추축은 요임(要任), 즉 정치나 권력의 중심을 뜻하는 상황에서 쓰인 단어이다.<sup>63)</sup> 정축(鼎軸)이나 형축(衡軸)은 정승의 자리를 뜻하는 단어로, 정승이란 벼슬이 조선시대 문하부의 정일품 으뜸벼슬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4)</sup>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국역의 주(註)에 따르면, 병축은 정권을 잡는다는 의미이고, 정축(定軸)은 재상을 임명한다는 의미이다.

행렬의 중심대열을 뜻할 때는 중축(中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중축에 임금이나 높은 벼슬아치가 위치할 때이다. 이 단어가 사용된 기록은 태종실록에 4건, 세종실록에 2건, 성종실록에 1건으로 총 7건인데 대부분이 조선 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태종실록 12권에 실린 기사에는 태종이 “사냥을 보는 것은 반드시 사냥터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중축(中軸)을 따라가며 사졸(士卒)들의 용감함과 겁내는 것을 볼 뿐이다. 그대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뒤를 따르면서 보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실려 있다.<sup>65)</sup> 이 사례에서는 사냥을 하는 대열의 중축에 임금이 위치하지만, 보다 더 큰 행렬로 추정되는 전쟁에 나간 군사들의 대열에 관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휘자가 중축에 서게 된다.<sup>66)</sup> 이렇게 대열의 중간을 중축

63) “삼공(三公)은 지위가 백관(百官)의 우두머리로서 나라의 균축(鈞軸)을 잡는 것인데, 신과 같은 작은 그릇으로 어찌 물망에 부합하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쇠하고 늙었으므로 치사(致仕)함이 이치에 마땅하니 빌건대 기무(機務)를 해임하여 남은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

〔성종실록〕 성종 5년 9월 27일 -창성 부원군 의정부 우의정 성봉조의 졸기 中〕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국역 데이터베이스의 註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의 균축(鈞軸)은 ‘국정의 중추’로 해석되고 있다.

64) 「네이버 국어사전」, “정승”, 2014, 국립국어원 제공

65) “임금이 말하였다. “사냥을 보는 것은 반드시 사냥터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중축(中軸)을 따라가며 사졸(士卒)들의 용감함과 겁내는 것을 볼 뿐이다. 그대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뒤를 따르면서 보라.”

上曰:“觀獵必由射場,不可從直路。但從行中軸,以觀士卒之勇怯而已。爾等不信予言, 可隨後而觀之。”

〔태종실록〕태종 6년 9월 14일 -철원의 봉성별이 강무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강행하다 中〕

66) “노원식은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중축(中軸)이 되고, 전(前) 판사(判事) 김성(金成)·전(前) 호군(護軍) 위신충(魏臣忠)은 길주(吉州)·단주(端州) 군사를 거느리고 좌·우익(左右翼)이 되어

(中軸)으로 지칭하고 이 자리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리하는 등, 대열의 질서는 곧 사회적 위계 질서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지칭하거나 특히 대지를 뜻할 때 지축(地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지진이 일어남을 “지축이 진동”한다고 표현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남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지축이 흔들리고” 또는 “지축이 안정을 잃었다고” 기록한 사례가 있다.<sup>67)</sup> 대부분 지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때때로 곤축(坤軸)을 지축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지축은 일반적인 대지나 자연의 기운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다 정확하게 천하의 중간을 뜻하는 단어로 지축(地軸)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광해군 7년인 1615년에 김일룡이란 자가 새 궁의 터에 관한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에 반하여 선수 도감이 아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창경궁(昌慶宮)을, 동향으로 세워졌던 정전(正殿)의 옛터대로 하지 않고 남향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로 고쳐서 창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금내(禁內)로 도량을 통하게 할 양으로 흙을 파내고서 구불구불 물길을 터 검을 현(玄)자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염의 민가에서 지세가 낮은 곳에다가 물을 끌어대고 돌계단을 쌓아 정원의 완상거리로 삼는 것과 비슷한 바, 아마도 왕궁의 아름다운 제도가 아닌 듯 합니다. 더구나 함춘원(含春苑)의 남쪽 기슭을 장차 지맥을 가로질러 끊으려고 하는데, …중략…

이른바 함춘원 한줄기는 바로 경복·창덕·창경궁 및 종묘의 동편에 있는 바, 바로 이 것은 내청룡(內靑龍)입니다. 이는 보충시켜 북돋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깎아내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곳은 도읍을 정하던 초기에도 일찍이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지맥을 깎아내면서 상서로움을 불러들이고 길함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하니,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서경》 우공(禹貢)의 주(註)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기도(冀都)는 바로 천하의 중간인 풍수가 좋은 곳으로 산맥이 운중(雲中)으로부터 뻗어내려오는데, 운중은 바로 높은 산등성이가 있는 곳이다. …중략…우리나라의 산천이 비록 조대(朝對)가 시원스레 멀리 뻗친 기방(冀方)만은 못하지만, 어찌 천연적으로 이루

쫓았다.”

原混率甲士爲中軸, 前判事金成, 前護軍魏臣忠率吉州, 端州兵, 爲左右翼追之。

〔태종실록〕태종 10년 5월 15일 -갑사를 거느린 노원식이 경원에 침구한 적에게 패하자 대책을 의논하다 中〕

67) “지축(地軸)이 재차 진동하고 음우(淫雨)가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니 저 천의(天意)에 무엇이 기쁘지 못한 것이었고 장래에 무슨 응보가 있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坤軸再震, 淫雨彌旬, 不知天意, 有何未豫, 而將來有何事應也?

〔선조실록〕선조 27년 5월 30일 -대사헌 김우옹 등이 올린 상소문 中〕

어진 형세를 버리고 인력을 빌려서 조작해서 자연적으로 응결된 것처럼 하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의 금구(禁溝)는 대개 위수(渭水)나 하수(河水)를 끌어들었다는 말과 교차되는 개울과 소용돌이치는 여울을 완성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폐(殿陛)와 지척이 되는 곳에 꼬불꼬불 흘러들게 하고 궁궐 담과 가까운 곳에다가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질구레하게 구획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축(地軸)을 옮기고** 지기(地氣)를 소통시켜 만분의 일이나마 휴징(休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궁궐의 지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가 아뢴 내용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뜻하는 지축이란 자연의 지세를 볼 때 “천하의 중간인 풍수가 좋은 곳”으로 한 나라의 중심인 궁궐이 위치할만한 명당(明堂) 자리를 뜻한다고 추정된다. 이 당시에 지축이란 대지의 기운이 모여있는 곳이자 인간이 개입하여 제어하기 힘든 거대한 자연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궁궐의 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터를 결정짓는데 있어 지축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축은 근대 이후 축이라는 건축 언어와는 차이가 있다. Axis로 번역되는 축은 대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기보다는 건물의 배치 형태로 인해 드러나는 기하학적 질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軸은 지금처럼 건축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권력, 무리, 자연의 측면에서 중추 또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된 글자였다. 축이 중심을 의미한다는 맥락에서는 현대에 축이 의미하는 바와 같지만, 건축과 관련하여 축을 언급한 기록은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축 개념은 다른 접근방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장. 근대건축의 축 개념 수용

---

- 3.1 근대기 서양에서의 축 개념의 형성 배경
- 3.2 축 개념에 대한 공간론의 영향과  
    동아시아의 수용
- 3.3 한국건축 연구의 축 개념 수용

2장에서는 축을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계, 점과 점의 연결 관계라고 보았을 때 축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한 동아시아의 전통 조영 원리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건축에서의 축 개념이 가지는 속성 및 역할에 대해 파악하여, 건축언어로서의 축의 의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건축에서의 축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누구에 의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은 4장에서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필요하다.

앞의 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의 전근대시기에 축(軸)이라는 한자가 건축과 관련되어 사용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서양의 경우에도 axis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건축과 관련하여 축 개념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고찰을 수반하는 담론은 대부분 19세기 이후 근대건축계에서 생겨났다고 판단된다.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계획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 축을 사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이론적 분석을 위한 건축언어로 축을 공간의 부속 범주에 적용시킨 경우이다. 후자는 대체적으로 기디온(Sigfried Giedion)의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담론이다. 3.1절에서는 근대기 서양의 건축계에서 축 개념이 형성된 배경을 정리하고 이 당시의 축 개념이 가지는 의의와 다양성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또한, 용도에 따른 축 개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을 위한 축과 해석을 위한 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

하겠다. 3.2절에서는 초기 축 개념의 담론화를 이끈 공간론의 영향과 동아시아에서 이를 수용하게 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3절에서는 4장에 대한 배경 이해를 위해 한국 전통건축 연구사의 흐름에서 공간론의 영향이 드러나는 동향과 축 개념의 수용 과정을 짚고 넘어갈 것이다.

## 3.1 근대기 서양에서의 축 개념 형성 배경

사전적 의미대로 축이 ‘활동이나 회전의 중심’이거나 ‘대칭 도형의 기준이 되는 선’<sup>68)</sup>을 의미한다면,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보편적인 선(線)적 요소일 뿐이어서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뜻과는 다르게 건축에서의 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축 개념’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성질 및 담론을 수반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이고, 무엇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먼저, 축에 대한 20세기 서양 학자들의 서술 내용을 통해 ‘축 개념’에 속할 수 있는 부수적인 논의들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 3.1.1 축의 속성과 축 개념의 다양성

건축관련 연구나 서적 내용 중 축에 대한 언급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축 개념의 다양성을 조명하기 위해, 축을 상이하게 정의하거나 각기 다른 축의 속성에 대해 설명한 서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 가. 축과 방향성

먼저, 20세기의 저명한 건축가이자 건축학자인 브루노 제비(Bruno Zevi, 1918-2000)는 공간에 대한 분석에서 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건축사적 흐름을 대변하는 주요 키워드로 축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제비는 1948년에 출간한 저서인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에서 축을 언급할 때, 공간 관찰자의 방향성, 즉 동선을 제시해주는 선으로 간주하였다.<sup>69)</sup> 축뿐만 아니라 모든 평면적, 공간적 개념은 건물 내 관찰자의 궤적을 결정해주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제비가 언급한 축은 결국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그 의의를 증명한다. 즉, 평면적

68) 국립국어원 제공 네이버 국어사전, ‘축’ 부분 참고

69)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s』, Da Capo Press, 1993, p.83



인 형태를 가지는 축에서는 대칭성이 강조되는 반면, 인간이라는 주체가 대입되어 3차원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축은 동선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 강조된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지(大地)의 개념까지 결부시킨 다른 학자로는 안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이 있다. 그는 축선이 관찰자와 대지를 연결하는 선으로 단순히 일차원적인 선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축선이 거리와 방향성, 속도를 가질 때 비로소 무한한 규모의 원통형 환경이 그 주위로 조성된다고 주장했다.<sup>70)</sup> 여기에서는 축선과 연결되는 개념이 공간과 인간에 더불어 환경까지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나. 축과 대칭성

앞에서 언급한 브루노 제비의 다른 저서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1978)』에서는 현대건축의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축과 대칭적 건물을 관찰하여 다소 공격적인 어투로 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고전주의의 폐해 중 가장 큰 부분을 “축(軸)과의 관계로 인한 제약”이라고 판단하고, 건축의 전역사(全歷史)가 축으로 인해 생긴 “대칭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것으로 재평가”하고 있다.<sup>71)</sup> 하지만 이렇게 무찔러야 할 적으로 간주된 축 개념이 반고전주의 건축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의미와 맥락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솔즈베리 성당의 내부 모습  
출처: www.bouletfermat.com

브루노 제비는 축으로 인해 생긴 대칭성에 대한 노이로제를 언급하며 대칭성을 비난하였지만, 피에르 폰 마이스(Pierre von Meiss, 1938-)는 그와 다른 관점에서 대칭성을 조성한 의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건축의 보편적 원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그의 저서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Form to Place』에서 고딕 성당에서 나타나는 축과 대칭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고딕 성당에서는 출입로를 축으로 하여 대칭성이 생기는

70) Rudolf Arnheim,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Based on the 1975 Mary Duke Bidde Lectures at the Cooper Un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11

71) 브루노 제비, 이해성 역, 『建築의 現代言語』, 세진사, 21쪽

데, 이 대칭성은 현재의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성을 상징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sup>72)</sup> 즉, 고딕 성당에서의 축은 신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믿음, 성인의 죽음, 우주관 등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신의 행렬을 위해 보류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출입로를 중간에 위치시킨 이유를 단순히 편리한 동선을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sup>73)</sup> 이렇게 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축공간의 경우는, 대칭성을 자아내는 축이 권력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2장에서 정리한대로, 좌우 관계의 성립을 통해 주종 관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유가적 사상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고딕 성당에서 신의 행렬을 중심으로 좌우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조선의 궁궐에서 어로(御路) 좌우에 품계석을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둘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물리적인 공간에 대칭성이라는 성격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 내부에 구현된 축성(axiality)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과 인간의 동선을 동일시하여 공간을 경험하는데 있어 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선(線)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공간에서는 인간의 지각적 감각이 자극된다는 전제를 토대로 축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1926-2000)는 중심적 평면을 가지는 고전주의적 공간에서는 공간 이용자가 오직 중심에 설 때 그 공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반면, 대칭적으로 배치된 연속적인 공간은 우리가 반드시 축(axis)을 따라 움직여야만 알맞게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74)</sup> 이와 같은 설명에서 축의 성질은 대칭성으로 대변되지만, 대칭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움직임이 없이는 축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된다. 슐츠는 축이 선(線)에 따른 정렬이라고 설명하며, 이 선이 직선일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형태가 불안정한 위상적 연속성(topological continuity)과는 대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5)</sup> 또한, 정해진 형태를 가진 선은 구성요소에 연속

72) Pierre von Meiss,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Form to Place』, Routledge, 2013, p.66

73) Ibid, p.66

74) “A symmetrically organized succession of spaces is only perceived adequately if we move along its axis, while the centralized space of the Renaissance should be experienced by placing ourselves in its centre.”

Christian Norberg-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6, p.197

75) “The word ‘axis’ expresses that we are referring to an organization relative to a line. The line does not have to be straight, but it must have a determined shape, in contrast to topological continuity where the shape is irrelevant. A line with a

성을 부여하고 이 순서에 방향성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숄츠는 축에 대해서 제비와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비는 축으로 인해 생긴 대칭성의 엄격함에 주목하여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개념을 바라보았다면, 숄츠는 축선이 꼭 직선일 필요는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 다. 축과 통일성

축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범주가 다양해지면서, 단일건축물이나 몇 동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축군의 배치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의 공간 설명에서도 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그 중, 도시의 시계(視界)를 위해 축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학자로는 트랜식(Roger Trancik, 1943-)이 있다. 특히, 그는 축과 시각적 관점(perspective)의 적극적인 사용을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로 꼽았다.<sup>76)</sup> 그에게 있어 도시란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제멋대로 형태를 잡는 광범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시각적으로 정돈된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정렬시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77)</sup> 이와 같은 원리가 잘 드러나는 사례로는 앙드레 르 노트르의 베르사유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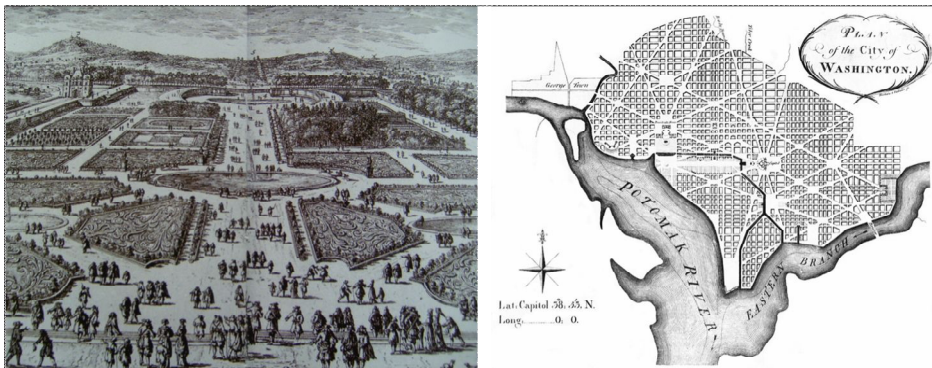


그림 3-2 左: 앙드레 르 노트르의 베르사유궁전 정원계획/右: 랑팡의 워싱턴 설계  
출처: 左-Nicolas Pérelle, « Veüe du jardin des Tuileries comme ilest à présent »,  
dessiné par Le Nôtre  
右-Andrew Ellicott, revised from Pierre(Peter) Charles L'Enfant;  
Thackara & Vallance sc., Philadelphia 1792 - Library of Congress

determined shape orders the elements in succession and gives the order a direction.”

Ibid, p.143

76) Roger Trancik, 『Finding Lost Space: Theories of Urban Design』, John Wiley & Sons, 1986, p.225

77) Trancik, 앞의 책, p.226

정원계획과 랑팡의 워싱턴 설계를 제시한다.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같은 사례에서 적용되는 축은 시선(視線)을 따라 만들어지는 시계(視界)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 축선을 중심으로 주변 영역이 정리되고 통일된 느낌이 형성되기 때문에 좌우대칭과는 별개로 통일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라. 축과 영역성

한편, 서양에서 형성된 축 개념의 속성은 아니지만, 한국사찰의 가람배치 연구에서 조성된 축 개념의 특징으로는 영역성이 있다. 4장에 서술한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한계 중 한 가지는 영역 설정의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영역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서양의 근대건축계에서 축에 대해 언급할 때는 영역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한국사찰의 가람배치 연구에서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축의 생성으로 인해 생기는 영역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김봉렬의 박사학위논문인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에서는 ‘영역’의 설정이 축선의 성질을 토대로 가람배치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김봉렬은 축을 진입축과 구성축으로 나누고 각각의 설정 방법을 설명한다. 진입축은 진입문에서 주요 전각에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에 가까운데, 이 진입축은 사찰의 지형조건에 큰 영향을 받아 일관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그는 사찰의 규모와 주불전의 수에 따라 형성되는 구성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구성축은 각 영역과 영역, 또는 주불전 사이를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서술하였다.<sup>78)</sup> 따라서, 이 ‘영역’의 설정 단계가 축선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김봉렬이 설명하는 영역이란, “담이나 회랑, 다른 건물들의 정면에 의해 독립된 구역이지만 때때로 중심적 외부 공간이 없이 여러 건물이 모여 있는 전각군도 포함”한다고 한다.<sup>79)</sup> 그는 하나의 주도적 전각, 또는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적 범위를 일단 영역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고 덧붙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축과 관련지어 하나의 축을 공유하는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강한 영역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sup>80)</sup> 이 경우에는, 축이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믿고 그 대표적인 성격으로 영역성을 지목하는 것이다.

78)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62쪽

79) 김봉렬, 앞의 논문, 61쪽

80) 김봉렬, 앞의 논문, 61쪽

### 3.1.2 용도에 따른 축 개념의 차이

건축에서의 축 개념이 근대에 들어서 필요해진 이유에 대한 고찰은 결국 축 개념의 형성 과정 및 수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양식을 중요시하던 전 근대의 건축과는 달리, 근대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건물의 용도와 규모, 공간 이용자의 유형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한 설계 방법 또한 필요해졌다. 따라서, 실천적 도구로서 축을 건축 설계에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서서 기디온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아 건축양식보다는 공간 개념에 주목하는 흐름이 생긴 후에는, 축이 공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체로서 공간의 성질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축과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축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 가. 계획을 위한 축

계획을 위한 축에 해당하는 사례는, 설계 단계에서 축을 공간구성의 주요 원리로 삼거나 건물배치 또는 구조 결정의 도구로 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축을 건축 계획의 도구로 도입한 서양의 학자로는 듀랑(Jean-Nicolas-Louis Durand, 1760-1834)과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가 있다. 물론 이 두 학자의 축 이용 목적은 다르다. 듀랑은 19세기의 에콜 데 보자르식 건축 훈련 과정이 성행하기 시작한 시대의 교육자로 그리드와 축 등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설계의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신고전주의 건축을 위해 고전주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전주의의 대칭성과 비례를 완벽하게 익혀 근대 건축에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실천 과정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물의 평면이나 형태를 조성하기 위해 축을 사용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 축이 공간의 성격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매체라고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설계 단계에서 축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나 건축군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 설계자의 의도를 문헌이나 도면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례만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설계 단계에 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향은 흔히 19세기 에콜 데 보자르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진다. 고전주의 건축이나 보자르 건축은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의 방형 평면을 구성하는 계획을 기본으로 한다.<sup>81)</sup> 보자르의 건축 훈련은 역사적 전통을 가진 고전주의 건축, 고딕, 절충적 양식 등의 대표적 건물의 도면들을 반복적으로 베껴 그려보면서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학

---

81) Simon Unwin, 『Exercises in Architecture: Learning to Think as an Architect』, Routledge, 2013, p.123

습을 바탕으로 평면구성 능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실제로 보자르의 중요한 훈련 과정 중 하나는 에스키스로, 제한된 시간에 건물의 기본계획을 잡아야 하는 일종의 '설계 시험'이었다고 한다.<sup>82)</sup> 이와 같이, 보자르 건축 교육은 비례 체계와 대칭성이 강조되는 고전주의건축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었고, 빠르고 일률적인 평면 구성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선과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에콜 데 보자르와는 대응관계에 있었던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교육자였던 듀랑(Jean-Nicolas-Louis Durand) 또한 기술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심선과 그리드를 설계의 도구로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sup>83)</sup> 그가 펴낸 설계 교육용 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축성(axiality, 軸性)과 그리드를 토대로 무한한 다양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sup>84)</sup> 그가 스스로 축이라고 부르는 중심선을 이용해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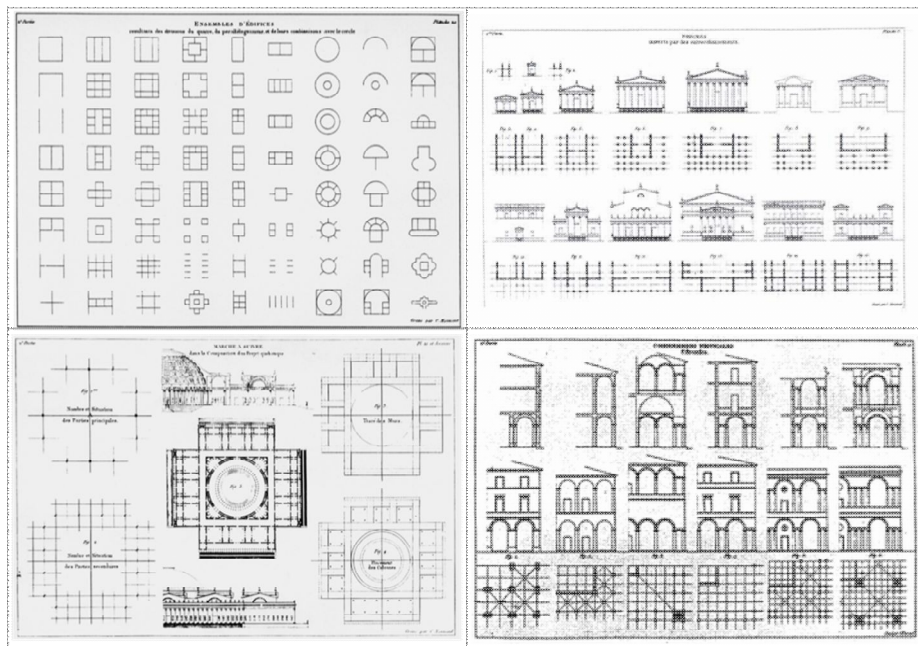


그림 3-3 축과 그리드를 이용한 듀랑의 건축설계방법 예시

출처: Nouveau Précis des Leçons D' architecture : Données a l' Ecole Impériale

Polytechnique by J.N.L. Durand pub. Fantin; (1813)

New Specific Lessons of Architecture: Data of Imperial Polytechnique

82) 배형민, 「미국 보자르 건축의 이론과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2), 2000, 87쪽

83) Leupen, Grafe & Kornig, 『Design and Analysis』, 010 Publishers, 1997, p.133

84) Michael Snodin, 『KARL FRIEDRICH SCHINKEL: A Universal Man』, Yale University Press, 1991, p.29

축을 설정한 다음, 벽과 기둥의 위치 등 평면 구조를 잡아나가는 방법이었다.<sup>85)</sup> 듀랑이 이용한 축은 단일건축물 내부에서의 구조중심선이라는 점과 설계의 용이함을 위한 계획의 도구라는 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드러나는 이론 상의 축과는 다르다.

에콜 데 보자르나 듀랑이 사용한 축은 축 개념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부족하다. 단순한 계획의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의 도구로서의 축은 참조선의 역할을 담당했고, 설계 단계 이후에는 큰 의의를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을 위한 축이라고 해서 구조중심선이나 그리드를 형성하는 단위선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르 꼬르뷔지에는 이러한 평면적인 축의 사용을 비판하고, 축을 건물의 배치와 연관지어 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축을 통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는 에콜 데 보자르의 축 사용법과 르 꼬르뷔지에가 축에 부여하는 의미의 맥락이 같다. 하지만, 다름 구절을 보면, 르 꼬르뷔지에가 에콜 데 보자르의 축 사용법을 비판하는 배경을 알 수 있다.

**축은 건축의 정리자다.** 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곧 일에 착수하는 것이다. 건축은 축을 따라 확립된다. 그러나 에콜 데 보자르에서 사용하는 축은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다. **축은 목적지를 향해 이끄는 방향선**이므로 건축에서 축은 목적지를 가져야 한다. 에콜에서는 이 점을 잊어버려 그들의 축들은 별모양으로 서로 교차되고 정의되지 않은 채 무한을 향해 갈 수 없는 곳으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끌어 갈 분이다. 에콜에서의 축은 일종의 비법이며 속임수다.<sup>86)</sup>

르 꼬르뷔지에는 이 구절의 각주에서 이렇게 덧붙인다: “공작이 꼬리를 펴는 것처럼 별을 만들기 위해 종이 위에 축을 그리는 것은 진짜 속임수다.” 즉, 그는 도면 위에서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만으로 존재하는 축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배치란 “중요도에 따라 축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므로 목적의 위계이며 의도의 분류”이다.<sup>87)</sup>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적이라는 단어라고 판단된다. 건축가에게는 축 자체가 목적이며, 축이 소멸하는 곳에 목적지를 배당한다는 의도에는 축이 인간, 즉 공간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숨어있다.<sup>88)</sup> 르 꼬르

85) 배형민, 「현대건축에서 그리드와 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2, 102쪽

86) 르 꼬르뷔지에,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 191쪽

87) 르 꼬르뷔지에는 이 구절을 책 전반에 걸쳐 몇 번이나 반복한다.

르 꼬르뷔지에, 앞의 책, 191쪽

88) 이렇게 축을 공간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로 간주하는 학자들은 르 꼬르뷔지에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3.2.1 소절 참고.

뷔지에는 축의 구성요소로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 공간이  
 용자의 지각적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  
 중에 주목할 점은 축이란 평면도에 그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  
 라 땅 위에 서서 자신의 전면을 주시할 때여야만 비로소 보인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 따라서, 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시각이라는 지각적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에콜 데 보자르의 축선 그리기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관찰자의 시선  
 이 반드시 축선에 의해 결정된 중심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한다.<sup>89)</sup> 그에게는 축선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고, 축선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와 축선의 주변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르 꼬르뷔지  
 에는 축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축을 “목적지를 향해 이끄는 방향선”이라고 정의  
 함으로써 계획을 위한 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sup>9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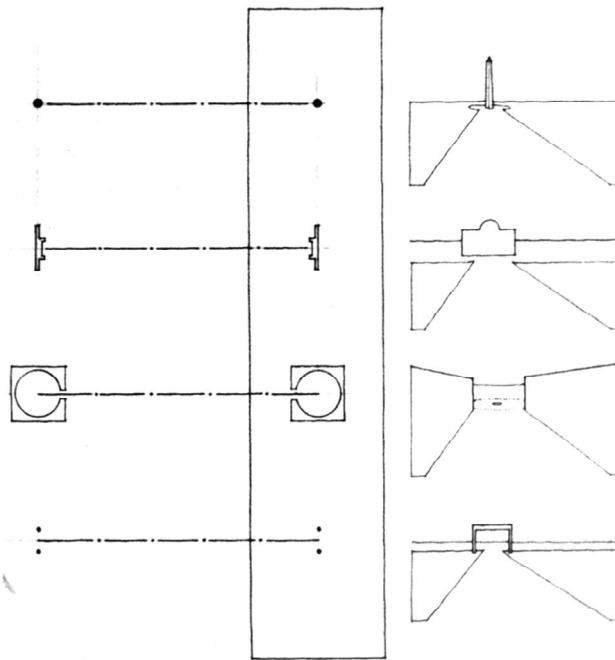


그림 3-4 축의 종착요소 구성과 시각적 힘의 변화  
 출처: Francis Ching, 황연숙 역,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도서출판국제, 1997, p.323

축의 양끝점 구성요소 고찰을 통해 공간의 시각적 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교육자는 미국의 프란시스 칭이다. 30여년 전에 출간된 그의 책,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1975)』는 여전히 자주 참고되는 건축계획의 개론서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건축 공간 구성의 기초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졌다. 칭은 축을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한다.<sup>91)</sup> 그는 축의 구성 방법에 따라 공간이 가지는 시각적 힘이

89) 르 꼬르뷔지에, 앞의 책, 194쪽

90) 르 꼬르뷔지에, 앞의 책, 191쪽

91) Francis D. K. Ching, 황연숙 역,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도서출판국제, 1997, 322쪽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축의 종착요소로 수직적 포인트, 건물의 정면, 중앙집중형 평면, 외부로 열린 문을 각각 위치시킴에 따라 어떤 동작과 시선이 유도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즉, 축 자체보다는 축의 구성요소와 시작점, 종점에 대한 고찰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계획하기 위해 제도판에 그려지는 선에 불과했던 축에서 벗어나, 축 자체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르 꼬르뷔지에가 구체화한 축의 의미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을 프란시스 칭이 이 책에서 시각적으로 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92)</sup>

정리하자면, 계획 단계부터 의도된 축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에콜 데 보자르의 영향으로, 평면적인 작도 단계에서 직선을 사용하면서 ‘축’이라 지칭했던 경우와 이러한 축의 의미를 부정하고 축의 구성 요소나 공간적 성격 형성 가능성에 주목하여 3차원적인 축을 설정하려는 경우이다. 전자에서는 축이 일률적인 계획을 돕는 도구 정도로 인식되지만, 후자에서는 축 자체가 지각적 감각 부여라는 역할을 가지므로 각각의 상황에서 가지는 입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도 단계에서 이용되는 축은 그려지는 선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공간 이용자의 지각적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계획되는 축은 축선 상의 구성 요소와 종착점이 되는 요소, 축 주변 환경의 조성 등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의 고찰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획자의 축에 대한 고찰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3-1 계획을 위한 軸 내용 정리

| 계획을 위한 軸                                   |  |
|--|--|
| (1) 2차원적인 축의 사용                            | (2) 3차원적인 축의 사용  |
| 사례: Ecole de Beaux-Arts<br>J. N. L. Durand | 사례: Le Corbusier<br>Francis Ching                      |
| 특징: 구조중심선, 참조선 등 평면적 설계의 도구로 축을 사용함.       | 특징: 축을 “목적지로 이끄는 방향선”이라고 정의하고, 축에 지각적 감각 유도라는 역할을 부여함. |

92) 한편, 한국건축에서는 에콜 데 보자르나 듀랑, 르 꼬르뷔지에, 프란시스 칭처럼 적극적으로 축을 주요 설계 원리로 사용한 예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건축 설계 관련 교육은 대부분 해외의 이론서들을 토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축이나 그리드 등의 기하학적 요소 구성법을 가르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계 현장에서도 축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근이 공간지에 수록한 자전적 에세이에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을 설계할 때 캠퍼스의 동서축과 건물의 진입축을 일치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언급과 비슷한 정도의 단편적인 메모들이 존재할 뿐이다.

## 나. 해석을 위한 축

해석을 위한 축은 건축 관련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축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해석을 위한 축은 서술 대상과 서술 의도에 따라 변화무궁하지만, 큰 흐름은 기디온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간론을 기점으로,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건축담론에 도입되면서 축의 스펙트럼도 급격히 넓어졌다. 따라서, 서술자의 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류가 필요하다.

평면을 2차원적, 공간을 3차원적이라고 가정하면, 계획을 위한 축에 적용한 큰 분류가 해석을 위한 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서술 대상을 상위 분류 기준으로 삼겠다. 서술 대상이 기존 건물에 대한 분석인 경우와 추상적 개념 설명인 경우이다. 기존 건물에 대한 분석은 2차원인 평면적, 3차원인 공간적 서술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은 3차원적인 공간과 결부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면적 기존 건물 분석, 3차원적 기존 건물 분석, 3차원적 개념 설명에 해당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사례들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들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특징 도출을 통해 계획자의 축과 서술자의 축이 다른 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권위 건축이나 도시 차원의 대규모 건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에서 축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평면적인 분석이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출간된 건축 관련 책들 중 상당수가 궁궐건축이나 종교건축 등의 권위건축과 전근대의 도시계획을 설명할 때 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례 몇 가지를 표 3-2에 정리하였다.

표 3-2 최근 단행본 내 축 언급 사례와 내용 정리

| 책 제목                         | 종류            | 축 관련 내용  |
|------------------------------|---------------|--|
|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br>김석철/창비     | 도시계획<br>(서울)  | 한강 남북을 잇는 녹색문화가로인 서울 상징가로는 옛 서울의 중심가로인 세종문화대대로가 남산을 지나 서울역과 용산공원을 거쳐 한강을 건너 우면산·관악산에 이르는 남북 관통의 <b>도시 축</b> 이 될 것이며, 이 <b>중심축</b> 상에 서울의 공공시설·문화시설이 집합하는것이다.(137페이지) |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br>김석철/창작과 비평사 | 궁궐건축<br>(자금성) | <b>중심축</b> 을 기준으로 전체를 하나의 <b>축선 상</b> 에 집결시키는 공간형식으로 이루어진 자금성의 건축적 특성은 개성이 배제된 집단의 작품이라는 점에 있다.<br>(236페이지)  |

|   |                           |   |
|---|---------------------------|---|
| 『Architecture and Authority in Japan』<br>William H. Coaldrake/Routledge | 종교건축<br>(이세신궁)            | The orientation of the Ise sites was shifted from east-west, the trajectory of the sun and <b>an axis appropriate in direction to worship of the Sun-Goddess</b> , to a north-south orientation, in conformity with Chinese Practice(p.19)  |
| 『To Scale: One Hundred Urban Plans』<br>Eric Jenkins/Routledge           | 기타<br>(두칼레 광장 및 산 암브로조)   | Though the facade is centered on the piazza's <b>longitudinal axis</b> , the <b>church's axis</b> is actually shifted approximately fifteen degrees to the north. The curved surface allows an easy shift from the piazza's geometry to that of the <b>nave's axis</b> .  |
| 『Roman Architecture』<br>Frank Sear/Routledge                            | 종교건축<br>(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 |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Michelangelo's church followed the <b>long axis</b> , while Vanvitelli chose the <b>short axis</b> in his subsequent remodelling. The original church and its eighteenth-century modification thus illustrate <b>the dual axiality</b> inherent in the fully developed Imperial bath building. (p.263) |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순히 방위상의 축이 있다고 간주하며, 일직선상에 놓인 건물들의 배치를 축선 위에 자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직선으로 드러나는 축의 양끝점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자리하거나 2동 이상의 건물들이 일직선상에 나란히 배치되면 그 직선을 축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평면적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좌향과 방위상의 배치 등만 고려하는 이러한 경우는 가장 좁은 의미를 가지는 축에 속한다.

기존 건물의 공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축에 대한 3차원적인 고찰을 곁들이는 경우는 르 꼬르뷔지에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설명에서, 프로필라이아를 통해 들어서는 방향과 아테네 여신상으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파르테논이, 왼쪽에는 에렉테이온이 위치함에 따라 방문자들이 비로소 아크로폴리스의 전체 모습 가운데 4분의 3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sup>93)</sup> 또한, 그는 모든 건축물이 축 위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면서, 그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sup>94)</sup> 이와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르 꼬르뷔지에는 축을 통해 건축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이렇게 확립된 질서를 통해 방문자의 건축 공간 경험 방향이 조정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계획자의 축에서 언급하였던, 3차원적인 축으로 분류되었던 성질들이 실존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는 계획자인 동시에 서술자였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의 축의 개념

93) 르 꼬르뷔지에,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 193쪽

94) 르 꼬르뷔지에, 앞의 책, 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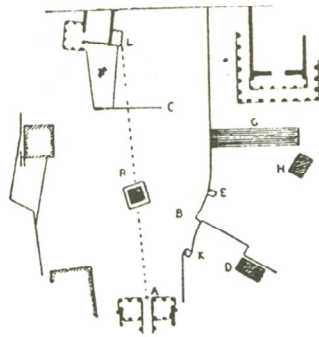


그림 3-5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드러나는 축  
출처: 르 꼬르뷔지에,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

과 의의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까지 분석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3차원적인 분석이다. 이 카테고리의 주안점은 이미 2장에서도 언급한대로, 공간과 인간에 대한 고찰에 의해 수반된 담론화에 있다. 슈츠가 축을 정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선으로 정의하고, 축이 드러나는 대칭적 공간에서 사람은 꼭 중축을 중

심으로 움직여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칭적 공간과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집중형 공간이 각각 다르게 경험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슈츠는 중심집중형 평면을 가진 르네상스 건축에서는 우리가 꼭 그 중심에 바로 서야만 공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sup>95)</sup> 슈츠는 명확한 대상의 평면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공간 지각 방법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그의 서술 방법은 3차원적인 공간의 성격을 제시하고, 그 공간에 인간을 대입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인간의 공간 활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축이나 구성요소 간의 위계질서 등을 서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축이 중요한 계획 도구이자 서술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건물의 분석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건축담론의 추상적 개념 설명에도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축과 인간의 동선을 결부시킨 설명을 학자 중의 한 명으로는 미국의 건축가이자 교육자이며, 국제주의 건축을 지향하던 하위(George Howe, 1886-1955)가 있다. 그는 “평면 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동선은, 예전의 이론적

95) Christian Norberg-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6, p.197

움직임을 반영하는 딱딱한 직사각형의 축보다는 실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곡선축에 가깝다.”라고 하였다.<sup>96)</sup> 이와 같이, 축은 공간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 가지 명시할 점은 하위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인간을 공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연구 동향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인간의 동선이 공간의 축으로 구현된다는 인식 자체가 ‘공간은 인간을 위한 곳’이라는 개념 하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해석을 위한 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3-3 해석을 위한 軸 내용 정리

| 해석을 위한 軸                                 |                                     |   |
|--|-------------------------------------|---|
| 기존 건물 분석                                 |                                     | 추상적 개념 설명                                 |
| 2차원적 분석                                  | 3차원적 분석                             | 3차원적 분석                                   |
| 건물의 좌향, 방위 등 단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축을 평면 상으로 분석 | 공간 내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축이 형성하는 공간 성격에 주목 | 공간과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된 담론화로 축의 다양한 해석 범주를 조성 |

3.1절에서는 서양의 근대 건축가 및 건축학자들의 서술 내용을 토대로 건축 분야에서 축이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학자들의 서술 내용 검토를 통해, 축이라는 키워드 혹은 개념이 사용되는 상황과 의도에 따라 축이 대변하는 속성 및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축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된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축이 수반하는 대표적인 성질로 생각되는 방향성, 대칭성, 통일성, 영역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축이 시각적, 공간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간 경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살펴보았다. 브루노 제비는 강렬한 축선의 설정으로 인해 생긴 대칭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한편, 피에르 폰 마이스는 객관적인 건물 분석에 있어 종교 건축에서 드러나는 대칭적 구조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축의 설정을 통해

96) Robert A.M. Stern, 『George Howe: Toward a Modern American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Hyungmin Pai, 『The Portfolio and the Diagram: Architecture, Discourse, and Modernity in America』, MIT Press, 2002, p.182 재인용

공간 질서를 확립하고 통일성 및 영역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다. 이 네 가지 성질들은 모두 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각각 상이한 성격을 보인다.

이렇게 축의 다양한 용례 및 견해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축을 분류해보았다. 계획을 위한 축과 해석을 위한 축이다. 축이 건축 계획을 위해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보자르건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일률적이고 빠른 설계를 위한 참조선 역할을 하였다. 축과 그리드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는 다양한 종류의 건축 설계에 적용될 수 있고 응용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근대의 다양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자르식 건축에 적합했다.

건축 해석을 위해 사용된 축은 추상적인 공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과 기존 건물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로 나눌 수 있다. 기존 건물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좌향이나 방위 등 단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평면적인 축을 강조하는 2차원적인 분석과 공간 내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축이 조성하는 공간의 성격에 주목한 3차원적인 분석이 있었다. 후자는 결국 기디온의 공간 개념에 영향을 받아 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축이 사용된 경우와 상통하는데, 대체적으로 축이 인간의 동선을 제시하고 시계를 조정하는 등, 인간의 지각적 감각에 초점을 두어 서술되었다. 즉, 기디온의 공간론이 축 개념의 확장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계획을 위한 축은 상대적으로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반면에, 해석을 위한 축 개념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이 크다. 근대건축계에서 축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제 3자가 현존 건축물과 그 공간을 해석하게 되는 상황에서 축은 단순한 선(線)적 요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축이라는 키워드는 그 개념의 다의성 덕분에 계획과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축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 공간론의 전개와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축 개념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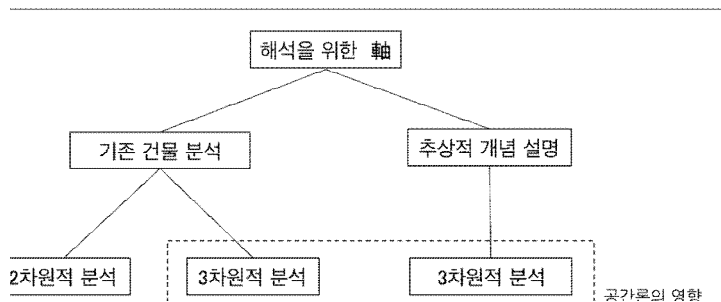


그림 3-6 해석을 위한 축 분류 다이어그램

## 3.2 축 개념에 대한 공간론의 영향과 동아시아의 수용

### 3.2.1 공간 개념의 담론화와 축 개념 형성의 상관관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간 개념의 영향을 받은 축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근대 건축계에서 공간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건축사의 긴 흐름에 있어 공간 개념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오래 되지 않았다. 공간은 19세기 말에 예술과 건축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한다.<sup>97)</sup> 피터 콜린스는 그의 저서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의 마지막 장을 ‘공간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명명하고 공간 개념의 등장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장의 앞부분에서 18세기까지 어떤 건축 논문도 공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sup>98)</sup> 콜린스에 따르면, 19세기 초 독일의 미학에 관한 저서들에서 공간 개념이 언급된 이후로, ‘공간’이란 단어가 건축적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99)</sup> 즉, 초기에는 헤겔이나 빌플린이 예술 비평의 기술로 공간 개념을 사용한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과 관련하여 근대적 의미로서의 공간 개념이 진화하는데 있어서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미스 반 데어 로에 등 건축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짚어낸다.<sup>100)</sup>

한편, 건축 이론상에서 공간 개념의 발달은 공간 그 자체보다는 ‘공간-시간(Space-Time)’이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간의 성질 조성에 있어 주된 매체가 인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개념의 근거는 기디온의 『Space, Time, and Architecture』에 기반하고 있는데, 기디온은 총체적으로 공간-시간 구조를 감상하기 위해서 관찰자는 건물을 통과하면서 또는 둘러보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sup>101)</sup> 이는 단순히 관찰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서 더 나

97) 배형민, 「한국건축 공간론」,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56쪽

98) 피터 콜린스, 이정수 외 옮김,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태림문화사, 1989, 313쪽

99) 피터 콜린스, 앞의 책, 314쪽

100) 피터 콜린스, 앞의 책, 314-315쪽

이 책에는 위 건축가들의 역할이 공간론의 진화에 중요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배형민은 그의 글 「한국건축 공간론」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돌프 로스, 르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등이 공간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공간은 이런 20세기 초반 현대건축의 형성기를 주도한 거장들의 작업과 모더니즘 전반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한국건축개념사전』의 「한국건축 공간론」 부분(857쪽) 참고)

101) 피터 콜린스, 앞의 책, 318쪽

아가, 건축 공간의 구성을 다차원화하려는 그 당시의 시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디온은 근대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4차원성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곧 2차원적인 르네상스 이전의 건축과 3차원적인 르네상스 이후의 건축, 4차원적인 근대 건축을 구분 짓는 잣대로 삼아 건축의 발전사를 엄두에 둔 해석을 전개하였다.<sup>102)</sup>

물론,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만들어내고 설명한 자들은 20세기 이후의 건축학자들이지만, 콜린스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건축 공간의 질(quality)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을 공간 개념의 등장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등장한 시기를 18세기 중반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sup>103)</sup> 그는 이러한 의식적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초기의 움직임은 로코코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설명한다.<sup>104)</sup> 1730년대 이전까지는 건물의 내부가 상자와 같이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내부 구역의 구분 또한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벽 또는 열주로 나뉘었다. 한편, 1730년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시차(parallax, 視差: 관측 위치에 따른 물체의 위치나 방향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공간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걸어다녀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sup>105)</sup> 여기서의 시사점은 ‘시차(視差)’나 ‘걸어다닌다’ 등의 단어에서 주어가 건축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이다. 즉, 건축에 공간 개념의 등장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건축의 해석과 인간의 감각이 불가분의 관계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에 건축 이론으로 발전된 공간론에 의해 공간과 형태가 건축과 예술의 규범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서, 건축의 가치가 재료, 양식, 구조에 있기보다는 공간과 형태를 매개로 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따라 형성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된다.<sup>106)</sup> 주체와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감정이입 같은 심리적 관계를 통해 건축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sup>107)</sup> 이러한 건축공간론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결국 공간론이란 공간을 구성하는 단계보다는 분석하는 단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지각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동향은 축 개념의 형성 및 활용에도

---

102) 피터 콜린스, 앞의 책, 319쪽

103)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McGill-Queen's Press, 1998, 26쪽

104) Peter Collins, 앞의 책, 26쪽

105) Peter Collins, 앞의 책 26쪽

106) 배형민, 앞의 글, 856쪽

107) 배형민, 앞의 글, 856쪽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령은 그의 저서 『공간의 기호학』에서 20세기 후반에 공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까닭으로 구조주의의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성이 강조되어 온 현상학의 영향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언급한다.<sup>108)</sup> 3.1절에서 살펴본 여러 건축학자들의 공간과 인간의 상호 교류에 집중하는 서술 경향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형태가 주제(대부분 공간을 경험하는 인간으로 설정)를 이끄는 방식에 주목한 것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 축이다. 즉, 이 당시에 이루어진 축에 대한 담론은 공간에 조성된 축이 어떤 성질을 수반하고, 이러한 축의 성질이 인간의 공간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공간 개념에 대한 고찰이 궁극적으로 축 개념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간에 삽입된 인간이라는 주체는 그 특성상, 시계(視界)와 관점, 동선 등의 새로운 개념을 수반하였고, 이에 따라 축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해졌다. 직선적인 축과 그에 상응하는 속성인 대칭성 정도를 포함하는 것에 불과했던 축의 개념적 범주가 넓어진 것이다.

정리하자면,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것은 1800년대 이후이며, 공간 개념이 인간과 공간, 시간 사이의 관계를 인간의 지각적 감각을 통해 설명하려는 공간지각론으로 발전되어 나가면서 대두된 하위 개념 중의 하나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빌플린과 기디온의 건축론에 힘입어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린 건축계의 중심에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공간과 시간을 연결지어보는 등 여러 가지 파생 개념들이 탄생한 것이다.<sup>109)</sup> 이렇게 공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배경으로는 20세기의 담론이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바뀐데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sup>110)</sup> 공간이야말로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위, 아래, 안, 바깥의 공간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되고 분절되는 것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sup>111)</sup> 따라서 고전건축보다 광범위한 다양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려는 근대건축계에서 이 개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연구된 것이다.

108)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7쪽

109) 박경립, 「전통건축 공간론」, 한국건축역사학회 편, 『한국건축사연구 2-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언, 2003, 29쪽

110)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7쪽

111) 이어령, 앞의 책, 7쪽

### 3.2.2 근대기 일본건축사학자들의 연구 동향과 축 개념 활용사례

공간론과 더불어 담론화된 축 개념이 동아시아로 수용되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하기는 힘들다. 19세기 말부터 서양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공간론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기디온의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 등의 저술을 통해 건축이론계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건축 담론에 공간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1899-2002), 스기야마 신조(杉山信三, 1906 -1997) 등의 학자들이 공간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또는 한국건축을 조사할 때 공간적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한다.<sup>112)</sup> 오히려 이 시기에 일본 학자들 중 공간적 인식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미술평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 정도라고 한다.<sup>1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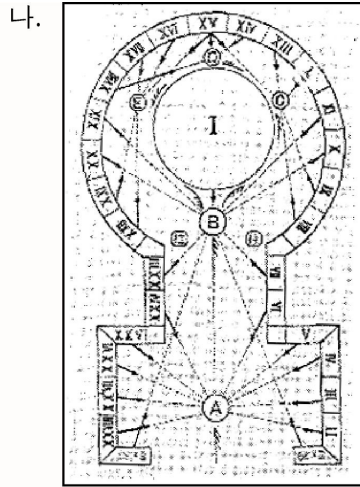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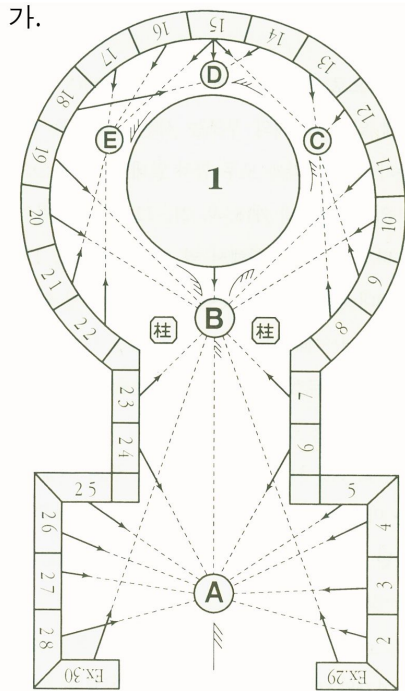
야나기 무네요시는 건축학자는 아니지만, 조선의 민예품 등을 수집하여 서울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조선의 예술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고, 조선을 식민지이자 연구하여 정복할 대상으로 간주한 관학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수집 및 저술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 건축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동선은 야나기가 공간적 인식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러한 추측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야나기가 1920년경부터 1934년 사이에 발표한 조선 관련 논고들을 수록, 편찬한 『조선을 생각한다』를 살펴보았다. 이 책의 대부분은 조선 시대 도자기의 아름다움, 조선민족미술관 관련 사항,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할애되어 있지만, 몇 개의 논고에서 조선의 건축에 대한 야나기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공간론의 주요 논점을 간단하게 말해서 ‘공간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한다면, 야나기의 석불사(석굴암)에 대한 설명에서는 공간론적인 인식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는 석불암 내의 조상이 가리키는 시선의 방향을 살펴보면, 이 방향들이 굉장히 세밀한 심리적 고찰 끝에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14)</sup> 이러한 생각은 야나기가 그린 ‘관람 순서에 따른 석불암 내부 그림’에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야나기가 1919년에 잡지 「예술」의 기고문 「石佛寺의 彫刻에 대하여」에 삽입했던 석굴암의 평면도이다.

112) 우동선, 「한국건축 공간론」,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58쪽

113) 우동선, 앞의 글, 858쪽

114) 야나기 무네요시, 심우성 역, 『조선을 생각한다』, 학교재, 1996, 62쪽



// 걷는 방향  
 → 각 조각이 갖는 시선의 방향  
 ..... 조각의 시선의 방향을 따라 사람이 서야할 위치

그림 3-7 가. 야나기 무네요시의 ‘관람 순서에 따른 석불암 내부 그림’을 토대로 필자 편집 (출처: 야나기 무네요시, 심우성 역, 『조선을 생각한다』, 학고재, 43쪽)

나. 야나기 무네요시의 ‘石佛寺의 彫刻에 대하여’ 평면도 원본 (출처: 야나기 무네요시, ‘石佛寺의 彫刻에 대하여’, 『藝術』, 1919/천천춘, 『야나기 무네요시의 한국미론과 종교철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재인용)

이 그림에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선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는 관람자가 걷는 방향을 가리키고, 두 번째 화살표는 각 조각상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뜻하며, 점선은 그 조각상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관람자가 서야할 위치를 의미한다. 야나기는 이 선들을 이용하여 석불사의 내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석불사의 제작자가 관람자들의 의식적인 움직임 및 시각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각 구성요소를 제작했다고 주장한다.<sup>115)</sup> 다음은, 야나기의 석불사 설명 중 일부이다.

누구나 이 굴원에 발을 들여놓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앙

115) 야나기 무네요시, 앞의 책, 62쪽

에 안치된 석가(1)이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먼저 모든 **관람자에게 자신이 신성한 사원에 있다는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 그는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고자 바로 정면으로 조용히 앉아 있다. 그런데 조각가가 추구한 **바른 위치에서 부처를 보려면, 적어도 A보다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광배가 굴 벽에 새겨져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는 바로 앞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서서 광배를 등진 부처를 보아야 한다.<sup>116)</sup>

이 설명은 ‘공간에 삽입된 인간이라는 주체’와 ‘공간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인간의 시지각적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야나기의 공간론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야나기가 주로 활동한 시기는 1900년대 초중반으로 기디온이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이 발표된 1941년보다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서양에서의 공간론 전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야나기가 1910년대부터 미국의 동양미술 연구자인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와 친분을 가지고 지내며 1929년에는 워너의 초청으로 하버드대학을 1년 동안 방문하는 등 서양과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것은 사실이므로<sup>117)</sup> 당시에 동양건축의 원류를 찾기 위해 실증적 자료를 집대성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던 관학자들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러한 감상 중심의 해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일제 관학자들<sup>118)</sup>의 연구에서 공간론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한국건축뿐만 아니라 동양건축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일본인 학자들의 건축사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연구 동향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건축사 연구에 여러 모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각 학자의 연구 목적과 방법, 또는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할 수 없어 일제 관학자들에게 대한 2차 사료를 중심으로 대략의 특징과 연구 동향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이들이 축에 대해 언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20세기 초의 일본인 학자들은 일본을 서양에 대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116) 야나기 무네요시, 앞의 책, 62쪽

117) 한영대, 『조선미의 탐구자들』, 학고재, 1997, 235-240쪽

118) 관학자는 관학의 학자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학자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소속되거나 그 지원을 받는 자들을 ‘일제 어용 관학자’로 부른다. 건축사 관련 일제 관학자들로는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무라다 지로(村田次郎), 스키야마 신조(杉山信三),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오가와 게이이치(小川敬吉) 등이 있다.

우동선, 「세키노 다다시와 관학자」,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569쪽 참고

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서양의 건축 관련 이론들을 일본건축에 적용하려 애썼다. 또한 이 시기 한국에 와 있던 일제 관학자들은 한국건축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여 실측하고 연구하였다. 이토 츠타(伊東忠太)와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를 필두로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스키야마 노부조(杉山信三) 등의 학자들은 전근대건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례와 그리드, 축 등의 기하학적 형태 조성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시기와 지역을 연구하였다.<sup>119)</sup> 이들의 대부분은 서양의 건축관을 동양건축에 적용하는데 집중하였다.

일례로, 일본건축사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토츠타(伊東忠太)의 논문인 『호류지 건축론(1893)』은 양식사에 입각한 일본 건축사 연구의 첫걸음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근대 일본건축사학의 최초의 성과라고 평가된다.<sup>120)</sup> 이 논문에서 이토츠타는 서양건축과 일본건축과의 양식적 관계를 기술하고, 동양건축의 양식적 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일본건축사 연구의 체계가 수립되어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실로 획기적인 논문이었다고 한다.<sup>121)</sup>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는 호류지를 아시아의 고대성을 잘 간직한 대표적 유물로서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입지에 배치하기 위하여 호류지와 에트루스칸(Etruscan) 신전을 일대일로 비교하면서 엔타시스, 비례의 유사성을 논하였다.<sup>122)</sup> 특히, 건축의 의장적 특징에 대해 논술하는 과정에서 탑의 높이가 금당 높이의 두 배라는 점과 탑의 상륜부와 탑신부의 높이비, 탑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까래를 배열하는 간격에 대한 비교 등을 기록하는 등, 건축의 비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sup>123)</sup> 이는 결국 일제 관학자들이 한국건축의 조사 과정에서 비례 연구를 중요시하는 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서 주목할 점은, 건축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축물의 설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토츠타의 건축사에 대한 일관된 태도이다.<sup>124)</sup> 즉,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가 연구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9) Pai & Woo, 「In and Out of Space: Identity and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19(3), 2014

120) 한지만, 「일본건축사의 선구자들-1. 이토츠타(伊東忠太)」, 건축역사연구, 20(4), 2011, 206쪽

121) 한지만, 앞의 논문, 206쪽

122) 우동선, 「동양 건축의 발견」,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319쪽

123) 한지만, 앞의 논문, 207쪽

124) 한지만, 앞의 논문, 207쪽

이렇게 양식론적 건축사를 수립하려는 이토츠타의 연구방법론은 일제 관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제 관학자들이 한국의 건축을 연구하는 목적은 일본을 동양 제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있었다. 따라서 낙랑이나 가야, 신라 등 일본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이 깊은 시대와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sup>125)</sup> 초기의 대표적인 일제 관학자는 세키노 다다시(関野貞)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나의 시대에는 하나의 양식이 대응한다.(一時代, 一様式)”라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강한 양식론적 건축사관을 보여주었다.<sup>126)</sup>

한편,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문화재 수리를 직접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건축의 연구에 깊게 관여한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의 경우에는 문헌사적 접근 및 실증주의적 접근을 모두 보여준다. 그는 1993년 한국에 와서 진행한 강연회에서 한국건축에 대해 공부한 동기에 대해 일본건축에서 잘 알 수 없는 문제점을 한국건축을 공부함으로써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sup>127)</sup> 이렇게 진행된 그의 연구는 한국건축사의 연구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의 저서인 「고려말 조선초기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는 고려말 조선초기 건축에 대한 문헌과 유구를 종합하여 여말선초 목조건축의 양식형성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한국 목조건축 양식형성론의 중요한 논저로 인식된다.<sup>128)</sup>

일제시기에 활동하였던 관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20세기에 활동한 일본인 건축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공간론과 축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몇몇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기디온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학자인 이노우에 미츠오(井上充夫, 1918-2002)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동양에도 존재해왔던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sup>129)</sup>

이노우에 미츠오는 그의 저서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에서 기하학적 공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의 첫째로 구성요소들의 참조선이 되는 축을 꼽는다. 각 구성 요소들과 이 참조용 축의 관계가 기하학적 공간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30)</sup> 이 책의 서술 방식을 따라가다보면 그가

125) 우동선, 「동양 건축의 발견」,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320쪽

126) 한지만, 앞의 논문, 208쪽

127) 김동욱,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박사의 일본건축이 한국건축에서 받은 영향에 대해서」, 건축역사연구, 2(1), 1993, 154쪽

128) 김동욱, 앞의 논문, 153쪽

129) Pai & Woo, 앞의 논문

기디온의 공간론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책의 구성 내용을 고안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일본 건축의 발전 과정을 ‘건축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디온이 제시한 공간 개념이 근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일본 건축의 전역사에 걸쳐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개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sup>131)</sup> 이러한 배경으로 그의 축 관련 언급을 다시 한 번 해석해보면, 이노우에 미츠오는 일본 건축 공간의 기하학적 해석에는 축이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디온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은 공간에 대한 담론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건축 공간과 관련된 연구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 중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축 공간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축의 외부 공간 또한 건축이라고 정의하고 고찰한 아시하라 요시노부(芦原義信, 1918-2003)가 있다. 그는 외부공간의 기본 개념과 디자인 기법 및 공간 질서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책인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sup>132)</sup>에서, 외부공간에서 축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그는 외부공간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의 끝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3)</sup> 또한, 그러한 요소가 없이는 공간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지며, 공간의 질 자체가 낮아진다고 덧붙인다. 이는 건물을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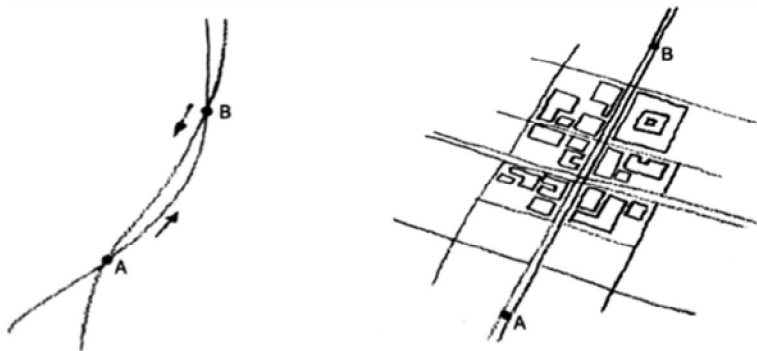


그림 3-8 아시하라 요시노부가 제시한 내적 질서와 외적 질서  
출처: 아시하라 요시노부 저, 김정동 역,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79

130) 井上充夫,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Weatherhill, 1985(original Japanese edition in 1969), p.140

131) Pai & Woo, 앞의 논문

132) 안영배가 『韓國建築의 外部空間』을 저술할 때 아시하라 요시노부의 이 책 중 상당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i & Woo, 앞의 논문 참고

133) 芦原義信,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1981, p.66

동 가진 건축군에 해당하는 설명이었다면, 도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도시 부분에서 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축의 성질을 가진 가로가 만들어내는 내적 질서와 외적 질서에 대해 설명한다. 즉, 여기에서 축에 주어진 역할로는 종착 요소 설정으로 인한 방향성 제시와 축 주변의 공간 질서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노부는 건축가이면서 건축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쓴 학자였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분석 이전에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계에 필요한 이론과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일본건축의 연구에서는 일본인 건축학자들뿐만 아니라 서양의 건축학자들의 성과 또한 눈여겨 볼만 하다. 미국의 최초 동양건축사학자인 알렉산더 소퍼(Alexander Coburn Soper, 1904-1993)는 일본 나라(奈良) 지방의 사찰 건물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면적 비례를 설명하기 위해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그는 나라 지방 사찰의 정면에서 퇴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부재의 위치 및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하학적 질서에 주목하는데, 대부분의 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개의 종횡축과 계단 등의 경사도를 보이는 곳의 입면 상의 대각선 축에 대해 언급한다.<sup>134)</sup> 즉, 건축물의 세부 부분에 대한 조형적 분석에 있어 비례와 기하학적 질서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축이란 키워드를 차용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배치 상의 축이나 공간 구성을 위해 적용된 축과는 다른 맥락을 보인다.

정리하자면, 일본 학자들의 축 관련 고찰에서도 공간 개념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로 서양 건축과 대등한 입지를 가지기 위한 동양 건축의 역사적 맥락 찾기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발굴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중국, 한국, 일본의 건축에서 시기별, 장소별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비례와 양식에 집중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기디온의 공간론과 더불어 건축 공간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접한 이후에는 기존 건물 분석을 초월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 정의 및 분석이 등장하였다. 4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되는 축 개념 또한 이러한 공간 개념 도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찰의 가람배치 연구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김봉렬은 시기별로, 혹은 지역별로 공통되게 드러나는 기하학적인 비례보다는 불교 종파별 교리나 사상이 사찰 배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다소 평면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외부 공간과 내부

---

134) A. C. Soper, 『The Evolution of Buddhist Architecture in Japan』, Humphrey Milford, 1942, p.107



공간의 관계에 주목한 안영배의 연구에서는, 공간 경험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축의 개념 자체가 고정된 시점을 위한 축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위한 축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3 한국건축 연구의 축 개념 수용

#### 3.3.1 축 개념의 도입 배경 및 전개 단계

이처럼 축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는 공간론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한국건축연구사에서 축 개념이 활용된 역사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론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양식사적 일본건축사 연구 동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 공간론이 발전한 시기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였고, 한국건축사의 초기 서술은 일본인 건축사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절에서는 한국건축연구사의 축 개념 활용 배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축 개념 도입 단계인 초기를 1970년대 중반까지로, 확장 단계인 중기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정체 단계인 후기를 1990년대 이후로 설정하고, 각 시기의 특징을 학문적 배경과 축의 적용 대상별 차이를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초기는 말 그대로 축 개념이 도입된 단계만을 가리키기 위하여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이 출간된 1970년대 중반까지만을 설정하였다. 한편, 안영배가 「空間」지에 한국건축 관련 글을 기고하고 해당 글을 정리하고 보강하여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을 출간한 과정은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로 이어지지만 축에 관한 내용이 이 시기에 그에 의하여 확장되고 후속 연구 또한 이 영향을 받은 경향이 크므로 중기에 포함시켰다. 1990년대 이후로는 축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나 이를 서술의 도구로 삼아 진행한 후속 연구가 다수 있으므로 대표적 건축가 및 건축학자를 나열하기는 힘들다. 또한, 후기에는 축을 이용하는 학문적 배경이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지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표 3-4 한국건축연구사에서 축 개념의 활용 내용에 대한 시기 구분

| 시기 설정                    | 축 개념의 전개 과정 | 대표적 건축가 및 건축학자                   |
|--------------------------|-------------|----------------------------------|
| 초기: ~1970년대 중반           | 축 개념의 도입 단계 | 정인국, 박만식                         |
| 중기: 1970년대 후반<br>~1980년대 | 축 개념의 확장 단계 | 안영배, 김봉렬, 김남응, 도용호 등             |
| 후기: 1990년대 이후            | 축 개념의 정체 단계 | 김은중, 이정국, 김지민 등 후속연구 진행 학자 다수 포함 |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토대로, 각 학자들이 축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3장에서 설명한대로 축이 계획을 위한 도구인지, 해석을 위한 도구인지 파악한 다음, 이에 대한 학문적 배경과 축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적용 방법, 적용대상 등에 대한 순차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된 축 개념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찰 범위를 해석을 위한 도구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각 학자들의 축 개념 활용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카테고리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먼저, 연구자의 태도는 계획자의 시선과 감상자의 시선으로 나뉘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계획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향후의 건축 계획을 염두에 둔 분석적 고찰인 반면, 감상자의 시선으로 건축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서술자의 주관적 시선을 반영하여 보다 추상적인 설명이 제시된다. 한국건축의 해석에 축 개념이 활용되는 경우에 축이 담당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중축형, 병렬축형, 교축형 등으로 축성(軸性)이 건축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축이 언급되는 경우, 건축 구성의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적용 방법은 축이 적용되는 영역의 규모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단일 건축물의 평면이나 입면 등 부분적인 단위 영역의 구성 요소의 비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 건축군 내 구성요소인 각 건물들의 평면적 배치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 건축군 외부와 주변환경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축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는 본 연구의 주안점인 배치 해석 사례에 대한 고찰과는 다소 맥락이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노먼 카버의 나라 지방 사찰의 입면 설명 등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여 분류틀에는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은 각 학자들의 연구 대상에 관한 것으로 4장의 주요 내용인 불교건축, 유교건축, 궁궐건축을 큰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나머지 종류의 건축들은 기타로 표기하였다.

표 3-5 축 개념의 활용 방식 이해를 위한 분류틀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연구자의 태도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이와 같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먼저 축 개념의 도입 배경 및 전개 단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축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건축의 연구사에 가장 최초로 도입한 자는 정인국이다. 그는 1974년 출간한 『한국건축양식론』에서 사찰건축의 배치유형 분류 기준으로 축선(軸線)의 성질을 제시한다.<sup>135)</sup> 정인국 이전까지는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가 1930년에 발표한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따라 탑의 수와 입지조건을 중심으로 가람배치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두 기준에 기반한 가람배치의 유형분류는 단탑식, 쌍탑식, 자유식 가람, 평지사찰, 산지사찰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창건 시기, 중건 과정, 입지에 따라 다양한 배치 방식을 보이는 한국사찰의 모든 종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sup>136)</sup>

따라서, 정인국은 축선의 성질이라는 새로운 분류기준이 한국 가람배치 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가능케 할 것이라 보고, 보다 세세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국건축양식론』에서는,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는 단일축형을 원칙으로 간주하고, 직교형과 자유형을 그 변형으로 본다. 정인국은 후지시마 가이지로에 따라 설정된 기존의 보편적 분류에서 일탑식(一塔式), 이탑식(二塔式), 자유식(自由式)의 설정 자체가 암암리에 어떤 축선(軸線)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sup>137)</sup> 게다가 자유식이라는 유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탑식, 이탑식에 상응하는 무탑식이라는 분류명을 제안하였으며, 축선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경우에는 일중심축형(一中心軸型)과 직교축형(直交軸型)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sup>138)</sup> 결과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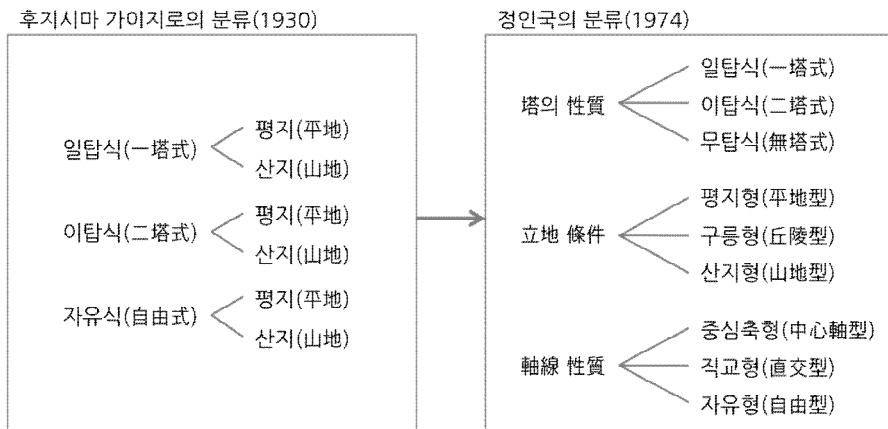


그림 3-9 후지시마 가이지로와 정인국의 가람배치 유형 분류법

135)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2004(10쇄), 137쪽

136) 정인국, 앞의 책, 136쪽

137) 정인국, 앞의 책, 137쪽

138) 정인국, 앞의 책, 137쪽

로, 정인국의 책에 서술된 세부적인 분류는 평지 일탑병렬형(平地 一塔竝列型), 평지 이탑병렬형(平地 二塔竝列型), 평지 직교형(平地 直交型), 구릉 일탑병렬형(丘陵 一塔竝列型), 구릉 이탑병렬형(丘陵 二塔竝列型), 구릉 직교형(丘陵直交型), 산지 일탑형(山地 一塔型), 산지 무탑형(山地 無塔型)의 8가지로 나뉜다.

정인국의 해석은 결국 한국의 사찰건축에 탑의 유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배치 상의 규칙이 있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율선(律線)에 대한 고찰은 탑의 유무나 입지 조건 등의 물리적인 해석 요소를 뛰어넘는 추상적인 부분, 즉 그 당시의 공간조형원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축선의 성질이라는 분류기준의 도입은 후속 연구들의 연구범위와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축 개념의 확장화를 살펴보기 전에, 정인국이 축선의 성질을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한 방식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가 배치축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주로 진입문이나 중문을 통하는 접근선을 정축선(正軸線)으로 보고 탑파(塔婆)와 금당을 연결하는 선을 부축선(副軸線)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축선의 설정은 각 학자들의 연구 방법이나 서술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후속연구인 김봉렬의 박사논문에서는 이 정축선을 진입축, 부축선을 구성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김봉렬은 진입축을 출입의 동선을 유도하는 행위적 축이라 지칭하고, 구성축은 건축을 체계화하고 각 요소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전체적 구성과 관계된다고 설명한다.<sup>139)</sup> 진입축이라는 단어는 공간이용자가 공간에 진입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즉, 공간의 해석에 인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인국은 평면적인 차원에 머무르던 한국건축의 배치 분석에 보다 다양한 방법의 해석이 가능한 축선의 성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축선의 성질에 대한 고찰은 단순히 현존하는 유구나 실물의 구성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건설 당시의 의도나 구성, 그리고 건축의 종류에 따른 사상적 표현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축선의 성질은 각 학자의 연구 방법 및 서술 의도에 따라 한국건축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해석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는, 분류기준으로서의 축선이 등장한 이후 한국건축의 해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9)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9, 50쪽

표 3-6 정인국의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연구자의 태도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 3.3.2 축 개념의 확장 및 세분화 과정

일본인 건축사학자들의 양식사적 접근과 비슷한 연구 방식을 택한 정인국 이후에 실제로 한국건축연구사에서 축 개념과 관련하여 다소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 학자는 안영배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일축형, 병렬형, 직교형 등 3가지에 불과했던 축의 유형을 5가지로 확장시켰다. 그는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서 공간을 역할에 따라 과정적공간(전위공간), 주요공간, 부공간(핵심공간), 매체공간, 승화공간으로 나누고, 이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는 매체로 축을 제시한다. 축이 가로지르는 형태에 따라 공간의 유형은 직선축형, 곡선축형, 단선축형, 직교축형, 병렬축형의 5가지로 나뉜다.

| 空間의 類型과 分類<br>TYPES & CLASSIFICATION OF SPACE |                                | 記 號<br>NOTATION | 實 例<br>Example     |
|---|--------------------------------|-----------------|--------------------|
| I 性格에 의한 分類<br>SPACES BY THEIR NATURE         | 1 過程의 空間<br>Processional space |                 | 梵 魚 寺<br>景 福 宮     |
|   | 2 主要空間<br>Major space          |                 | 景福宮 勤政殿<br>鳳停寺 大雄殿 |
|   | 3 副空間<br>Minor space           |                 | 景福宮 恩政殿<br>鳳停寺 極樂殿 |
|   | 4 媒体空間<br>Intermediate space   |                 | 鳳停寺<br>陶山書院        |
|   | 5 昇華空間<br>Sanctified space     |                 | 通度寺<br>海印寺 修理多藏 羅  |

그림 3-10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기록된 공간의 유형

|              |                             |  |            |
|--------------|-----------------------------|--|------------|
| IV 軸<br>AXIS | 1 直線軸型<br>Lineal axis       |  | 雙溪寺        |
|              | 2 曲線軸型<br>Curvilinear axis  |  | 浮石寺        |
|              | 3 段線軸型<br>Offset axis       |  | 海印寺        |
|              | 4 直交軸型<br>Intersecting axis |  | 華嚴寺<br>通度寺 |
|              | 5 並列軸型<br>Parallel axis     |  | 鳳停寺        |

그림 3-11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기록된 축의 유형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서 축선을 이용하여 한국건축의 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찰, 궁궐, 서원의 건축에서 드러나는 사상적 배경, 즉 불가적, 유가적사상이나 풍수지리의 반영 정도는 분석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의 서술 방식에서 드러나는 바에 따르면, 안영배는 서술자인 동시에 계획자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설계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건축을 설명했다고 생각된다.<sup>140)</sup> 이 시기, 그의 다른 글들에서도 드러나듯이, 안영배의 고건축연구 전제는 고건축을 바라보는 시점과 현대건축을 보는 시점을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sup>141)</sup> 다시 말해, 축과 공간이 거론된 배경은 결국 한국의 고건축을 연구하여 현대건축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설계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안영배의 고건축 분석 연구는 전대의 건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건축학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와 인간의 경험을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의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공간 이용자의 시점과 동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축에 더해져 다양한 분류와 확장이 가능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찰이나 궁궐, 서원 등의 해석에 있어 본래의 사상적 표현을 고려하는 부분은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안영배의 축 개념 활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안점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40) 안영배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사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찰의 건축적 변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도 함께 고찰하고 있다.

141) 안영배, 「한국건축외부공간의 유형과 구성기법 분류 및 표기법」, 대한건축학회지, 1976

표 3-7 안영배의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연구자의 태도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영배가 축 개념을 활용한 방식은 한 가지로 정리하기 힘들다. 그는 한국의 고건축을 연구하여 건축설계에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한편, 『공간』지에 기고한 글 등 문화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에 집중하는 등 감상자의 시선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축을 건축공간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축이 제시하는 시각적 감각에 주목하여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의 축 개념 활용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호함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 덕분에 다양한 후속 연구에서 큰 무리없이 인용, 혹은 차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불교건축뿐만 아니라 유교건축에 대한 연구에서도 안영배의 축 개념을 이용한 분류 또는 해석을 곁들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안영배가 한국건축에 활용될 축 개념의 범주를 확장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확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안영배의 연구에 있어 축선의 성질이라는 유형 분류 기준 자체가 사찰뿐만 아니라 궁궐, 유교건축 등 여러 종류의 건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 건축 종류의 사용 목적에 따른 특수성 도출이 아니라 한국건축의 보편적인 공간해석이 주된 목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영배가 시도한 축선의 성질 관련 분석은 건축의 종류와 관계 없이 여러 동의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군에서 주요건물과 진입문, 혹은 건물과 건물 간의 연결 관계만을 고려한 다소 단편적인 고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축선의 성질 적용에 대한 배경을 감안하고,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과 박사학위논문인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축이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4년에 발표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그간에 수립한 분류 기준들을 토대로 사찰공간의 유



형을 분류하는데, 먼저 전기형식과 후기형식으로 구분하고, 이 변화과정의 특징적 경향을 분석한다.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찰건축의 특징은 일직선의 배치를 강하게 드러내는 중축형에서 교축형이나 복합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인데, 이 배경으로 주변지형과의 조화, 길고 직선적인 중축이 자아내는 지나친 긴장감, 긴장과 이완을 통한 완전지향성 등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사선방향의 시계와 축선의 변위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한국건축의 특징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시점과 시계 등 시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서술태도로 보아 안영배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시점에서 공간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영배의 축 분류법과 연구 방향에서 제기되는 논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그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축을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의 다이어그램이나 사례 분석에서 드러나는 축은 단순히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맥락’보다는 더욱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sup>142)</sup> 이 논문에서 축이란 개념은 영역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축은 영역성을 만들어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영역성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방향성 자체는 건물의 정면과 후면, 출입구 등으로 나타나는 건물의 좌향이나 방위상 건물의 배치 정도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굳이 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건물과 건물의 상호관계로 결정되는 영역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라고 파악된다. 특히 그는 건축의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인 단위 공간이 건물과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건축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영배의 연구에 이용된 축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건물과 건물, 건물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중심선으로 건물의 방향성이 반영되며 영역의 성격을 결정짓는 공간분석의 한 매체, 즉 영역축’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5가지 분류 중, 곡선축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곡선축은 직선축이 아닌 축의 굴절이나 전위(轉位)가 일어난 경우를 통칭하는 카테고리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논문의 주요연구대상이 단일건축물이 아닌 여러 동의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군이기에 때문에 하나의 건물축과 다른 건물축이 중첩되어 하나의 영역축을 설정하게 된다. 일직선의 중심축과 축의 변위가 생긴 곡선축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일방향성인 직선축과 달리 곡선축에는 2개 이상의 방향성이 생긴다. 방향성은 일방향성인 경우에는 직선적 느낌이 강하지만, 다방향성일수록 중심성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축이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142) 안영배,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佛寺의 領域 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은 제각기 특정한 場所性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方向性을 지니고 있는 어떤 脈絡 즉 軸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다.”

어떤 맥락'으로 정의된 이상, 곡선축형은 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형이 되는 것이다. 즉,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의된 곡선축형은 직선축형, 단선축형, 직교축형, 병렬축형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례를 포함할 수 있다. 즉, 곡선축을 과연 축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곡선축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자유형, 혹은 복합형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등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3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슐츠도 곡선축의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슐츠의 곡선축에 대한 정의가 안영배의 곡선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먼저, 안영배의 곡선축형은 중심축형, 직교형, 병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포함하지만 슐츠는 '형태가 불안정한 위상적 연속성'<sup>143)</sup>이라는 반대항을 제시함으로써 축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슐츠의 곡선축은 형태가 일정한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의 불안정함과 대비될 수 있다.

둘째로, 슐츠의 축선과 안영배의 축선(곡선축)은 모두 구성요소를 축선 상에 배열하여 연속성을 가지게 하지만, 안영배가 축선을 적용하는 한국 사찰의 경우는 자연지형의 영향을 받는 산지 사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축선 또한 '형태가 불안정한 위상적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안영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 사찰의 가람배치 특성은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선 방향의 시계와 축선의 변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영배가 적용하는 축선은 불안정한 형태를 가진 위상적 연속성을 거스른다고보다는 오히려 동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논점은 축으로 인해 생성되는 위계질서와 사상적인 위계질서가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 동의 건물이 평면 상에서 하나의 중심선으로 연결될 경우, 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차례대로 배열된다. 그런데 논문에서 설명되었듯이 구성축(構成軸)과 진로축(進路軸)이 중첩될 경우도 있고 분리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축선 상의 배치 순서가 공간 내 실제 위계질서와 모순될 수 있다. 게다가 진로축을 결정짓는 공간이용자의 시계와 동선은 다소 주관적이므로 축에 의해 형성된 구성 순서가 영역의 성격을 결정짓는 매체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도출할 수 있는 안영배의 축의 특징은 평면적인 참조선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연구 당시의 현존 건물들에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면상에서 주요건물들의 중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드러나고, 주요 건물들이

143) 여기에서 위상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topological'로 『Intentions in Architecture』에서는 'geometrical'(기하학적인)과 대비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불안정한 형태를 가진 것과 정형적 형태를 가진 것으로 설명될 때도 있고, 자연과 인공의 대비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중축선 상에 배치된다거나 한 공간 내의 주축과 부축이 직교한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해석이 대부분이다. 사찰 건물의 경우는 건물이 조성될 때 영향을 미쳤을 불가적 사상을, 유교 건축의 경우에는 이에 영향을 미친 좌향, 형국, 풍수지리, 또는 유가적 사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모호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축 개념의 불확실성과 한계는 후속연구와의 비교 고찰에서 살펴볼, 축 개념 도입 후 발생한 한국건축 해석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축을 활용한 한국건축 관련 연구의 초기 사례에서 축 개념의 사용 방식과 범주를 애매모호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서술자들마다 상이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영배의 축선을 이용한 유형분류는 가람배치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향교와 서원과 같은 유교건축에서나 궁궐건축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활용되어왔다. 각각의 분야에서 축선의 성질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며 본래의 조형원리가 반영되는 정도도 상이하다. 다음으로, 축 개념의 확장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영배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후속연구들이 축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이후에 다수의 후속연구가 나타났지만, 그 중 축 개념이 비교적 더 중요한 입지를 가지는 연구라고 생각되는 김봉렬의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를 축 개념의 확장 과정의 후반 대표작으로 설정하였다.

### 3.3.3 축 개념의 정체 시기

한편, 1990년대 후반에는 축 개념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주요 서술 도구로 이용되지도 않는 등 한국건축연구사에 있어 축 개념이 정체된 시기가 도래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도 각종 연구에서 축 개념이 자주 언급되지만, 이전보다는 축소된 입지를 가지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한국건축사의 연구에서 사용된 축 개념은 축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에 따라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반영하는데, 이는 결국 바로 이전 시기에 축이 자의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축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차이와 관련된 학문적 배경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3-8 축의 역할 설정에 따른 학문적 접근 방식의 차이

| 축의 역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 관련 연구의 선구자 | 학문적 배경                                |
|------------------------------|------------|---------------------------------------|
| 1.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정인국        | 유형학적, 배치론적 접근으로 연결.                   |
| 2.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안영배        | 공간론적 접근으로 연결.                         |
| 3.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김봉렬        | 양식론, 공간지각론, 배치론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연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인국이 축선의 성질을 한국건축 유형 분류를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배치분석 및 유형 분류를 통해 한국건축의 다양성을 극복해보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안영배는 이러한 축 개념을 받아들여 공간론적 인식이 추가된 축 개념을 수립한다. 평면적 배치 상의 축을 논하는 동시에 진입축의 설정으로 인해 공간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배치에서 드러나는 축형의 차이를 통해 건설 당시의 조영 의도와 사상적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 김봉렬의 경우는 진입축을 배제하고 구성축만을 다루는 등 다시금 배치론적 접근에 가까워진 연구 동향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한국건축의 연구에서 축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배치 분석을 통해 한국건축을 이해하겠다는 배치론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각 학자들의 연구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유형학적, 공간론적, 양식론적 접근 등이 가미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있어서는 각 연구의 학문적 배경과 축의 역할 설정, 연구 대상이 되는 건축의 종류 등을 고찰하여 축 개념이 어떤 범주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축을 통해 배치와 관련된 유형 분류를 하거나, 축을 따라 형성되는 인간의 시지각적 감각을 통해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축을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중 하나로 간주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사상적, 문화적, 시대적 양상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나타난다. 한국건축의 해석에 축 개념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배경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정인국이 『한국건축양식론』에서 축 개념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가람배치의 유형을 보다 세밀히 분류해보기 위한 것이었듯이, 한국 전통 건축의 유형을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분야를 불교 사원의 발전 과정으로 여기는 견해도 있다.<sup>144)</sup> 이는 결국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켜나가

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사찰의 가람배치가 보여주는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고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탑 3금당식과 1탑 1금당식 사찰 유형이 2탑 1금당식 가람 형식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45)</sup> 이러한 유형 분류용 해석은 불교건축뿐만 아니라 유교건축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원과 향교의 배치의 변천 과정에 있어 최종 단계는 크게 전학후묘(前學後廟)와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두 가지 유형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유형학적 접근에서, 불교건축, 유교건축, 궁궐건축 등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는 종류의 건축은 배치와 유형이 사상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몇 가지 유형으로 대부분 정리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주거건축의 경우는 자연기후나 지역적 특색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간론의 발전에 관련된 연구 동향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통건축 연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1980년대 이후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사의 한 흐름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전통건축 공간론’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공간’이라는 개념은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sup>146)</sup> 2003년에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편집하여 발간한 『한국건축연구사 2-이론과 쟁점』에 수록된 박경립의 글 「전통건축 공간론」에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의 흐름이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한국건축 관련 학위 논문 몇 백 편 중에 공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석, 박사 학위논문이 130여 편 이상이라고 한다.<sup>147)</sup>

이렇게 많은 수의 연구 가운데, 배치 및 공간 구성 형식을 다루거나 공간 경험상의 시지각적 특성에 주목한 논문들이 주로 본 논문의 주제인 축 개념과 관련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논문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를 들어 사찰 공간 관련 연구 30여 편 중에 시지각적 특성을 다룬 논문이 8편, 공간의 구성형식을 다룬 논문이 1편이다.<sup>148)</sup> 전통건축 공간론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의 ‘공간’에 대한 정의 또한 서양 학자들의 견해 차이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실린 「건축 평면에서 공간의 시지각적 화상화에 관한 연구」에서 저자 윤재신은 건축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44) 홍승재, 「한국 건축 유형론」,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66쪽

145) 홍승재, 앞의 글, 866쪽

146) 박경립, 「전통건축 공간론」, 한국건축역사학회 편, 『한국건축사연구 2-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언, 2003, 28쪽

147) 박경립, 앞의 글, 28쪽

관련 논문의 리스트는 본 논문의 부록을 참고.

148) 박경립, 앞의 글, 42쪽

건축공간이란 관찰자가 평면 위에 정하는 시점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에 따라 그 경계가 수시로 변화하는 순간적 영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건축공간이란 관찰자의 시점에 의한 변수들과는 무관한 개념으로서, 둘러싸는 경계 벽면의 상호 연관 관계로 인하여 고정되는 지속적 영역을 의미한다.<sup>149)</sup>

순간적 영역이 아닌 지속적 영역을 강조하는 이러한 해석은 기디온이 제시한대로 공간이란 일련의 시각적 인상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건축공간의 정의는 앞서 설명한 안영배의 공간론적 접근과는 차이를 보인다. 안영배가 축 개념을 활용한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가 진입문-외부공간-내부공간-외부공간-내부공간 등으로 연결되는 지속적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매체로 관찰자를 대입한 것은 공간론적 인식에 근거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안영배의 연구에서 건축공간은 관찰자의 시점에 의한 변수들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선 및 동선을 감수하고 허용하여 관찰자의 느낌에 기반한 설명을 제시하곤 하였다. 즉, 공간론적 접근을 보이는 연구 중에서도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방법과 서술 방식이 다르다.

한편, 양식론적 접근의 한국건축사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특히 일본 건축사 학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방식인 공포(拱包)와 그 밖의 목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한 양식 구분을 한국 건축에도 적용하였다고 한다.<sup>150)</sup>

한국인 학자에 의한 양식론적 한국건축사연구는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이 가장 초기 사례에 속하는데, 그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빌플린 등의 이론에서 형식 발전의 주기성(週期性) 개념을 빌리는 등 공포의 형식, 시기별 구분 등을 고려하여 한국 건축의 양식 발전에 일관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sup>151)</sup> 『한국건축개념사전』 중 한국건축의 양식론 항목에 해당하는 글을 쓴 이우종은, 정인국의 연구가 한국 건축을 서양 이론에 자의적으로 접목한 면이 없지 않고, 현존하는 건물이 적은 여말선초의 건축적 상황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건물 형태의 변화를 근거로 시기를 나누고, 기존 학자들이 주관적인 미적 취향에 따라 역사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 건물들을 양

149) 윤재신, 「건축평면에서 공간의 시지각적 화상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5), 1998, 94쪽

150) 이우종, 「한국 건축 양식론」,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61쪽

151) 이우종, 앞의 글, 861쪽

식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한국 건축의 양식론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sup>152)</sup> 따라서, 정인국이 도입한 축 개념은 유형 분류를 통해 양식사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으로, 한국건축연구사에서 축 개념이 도입된 배경과 전개 단계, 이 개념이 발전하고 확산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건축의 연구에 있어 서술 도구로서 등장한 축 개념은 대부분 배치를 논하기 위해 설정된 도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배치의 유형 분류를 위해 도입된 이 개념은 초기에는 평면 상의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 불과했으나, 관련된 후속연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간의 시지각적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배치 상의 도구로 인식되기도 하고 사상적 배경에 기반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서양의 건축계에서 형성된 축 개념과 한국건축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서양에서의 축 개념과 같이 공간론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권위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축은 차후의 문제로, 유형 분류가 가장 큰 목적이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축 유형이 제시되었으며, 이렇게 범위가 확장된 축 개념은 각 연구의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다음 장에서는 축 개념을 활용한 한국건축 연구의 사례들을 분석 및 비교하여 축 개념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152) 이우종, 앞의 글, 864쪽

## 4장.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된 축 개념의 변화

---

- 4.1 사찰건축의 가람배치 연구와 축 개념
- 4.2 유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
- 4.3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
- 4.4 소 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의 담론이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공간 관련 연구가 신체성을 강조하는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배경을 감안하면,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에도 공간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지 짐작할 수 있다. 2장에서 설명한대로 한국 전통건축의 많은 부분은 ‘관계’에 집중하여 구현된 것으로, 이는 풍수지리나 불교관, 유교관 등의 사상적 배경이나 사회적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그 중, 군주가 남면한다는 규범이나 제왕의 자리를 북극성에 빗대어 배치하는 등의 원리에서는 공간 개념이 인간의 사회적 체계에 종속되는 하위 개념이라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에 공간 개념을 적용하는 동향은 수많은 연구자의 동참에 따라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 한 흐름이 축 개념의 활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4장에서는 2, 3장의 예비적 고찰을 토대로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전통적 조영 원리와 근대건축의 축 개념은 용어들은 다르지만, 축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지리관에서 확인한 하늘의 체계에서는 북극성과 남극성을 좌표로 하는 축이 중심이 되었고, 풍수지리관에서 거론되는 좌향 및 형국이 축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방향성과 중심성을 내포한다는 사실도 검토하였다. 유교 사상이 반영된 유교 의



례에서는 주종관계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좌우대칭성과 중심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불교우주론의 주축인 수미산설은 구심적 질서를 보이지만 四方과 수직적 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즉, 축을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계, 점과 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넓은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의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의 불교건축, 유교건축, 궁궐건축의 해석에서 축 개념을 적용한 사례와 다른 개념을 적용한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와 다양한 서술 방식을 검토해보겠다.

## 4.1 사찰건축의 가람배치 연구와 축 개념

### 4.1.1 축 개념과 불교 사상의 동시 고찰 가능성

한국사찰의 가람배치 분류에 있어 축선의 성질을 이용한 연구 동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각 연구에서 사용된 축 관련 어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절에서 서술한대로 축선의 성질을 한국건축의 해석에 가장 먼저 도입한 학자는 정인국이고, 이를 바탕으로 축선의 유형을 다양하게 세분화시킨 학자는 안영배이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이 시기에는 안영배 이외에도 한국사찰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중 가람배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 자는 박만식, 김봉렬, 조창한, 옥영무 등이 있지만, 축선의 성질을 연구의 도구로 삼은 경우는 박만식과 김봉렬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축선의 성질 관련 분류 내용과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 1970-80년대 한국사찰 가람배치 유형분류 관련 연구에서 축을 기준으로 사용한 연구자 및 분류 유형 정리

| 연구자 | 축의 분류  | 자료                               |
|-----|--|----------------------------------|
| 정인국 | 단일축형(單一軸型), 병렬형(並列型), 직교형(直交型)                             | 『한국건축양식론(1974)』                  |
| 안영배 | 직선축형(直線軸型), 곡선축형(曲線軸型), 단선축형(段線軸型), 직교축형(直交軸型), 병렬축형(並列軸型) | 『한국건축의 외부공간(1978)』               |
| 박만식 | 중심축형(中心軸型), 직교형(直交型), 부정형형(不整形型)                           | 『한국고대가람의 배치 및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1975)』 |

|     |                                |                            |                                  |
|-----|--------------------------------|----------------------------|----------------------------------|
| 안영배 | 전기형식                           | 탑구심축형, 1탑중축형, 1탑교축형, 2탑중축형 |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1984)』        |
|     | 후기형식                           | 후기중축형, 후기교축형, 복합형          |                                  |
| 김봉렬 | 중축형(重軸型), 교축형(交軸型), 병렬축형(並列軸型) |                            | 『조선시대 불교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1989)』 |

김봉렬의 경우, 축성에 대한 각 명칭은 선학들의 연구 결과를 따랐으나, 중축형(重軸型)<sup>153)</sup>, 교축형(交軸型), 병렬축형(並列軸型)의 정의는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중축형은 사찰구성의 기본형으로, 하나의 명백한 축을 가질 때 이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여러 영역이 있을 경우에도 각 영역이 한 개의 중심축을 가질 경우에는 중축형으로 분류한다. 교축형은 거의 대등한 위계를 가진 2개의 불전이나 2개의 영역이 있을 경우 이들의 중심축이 직교하여 서로가 결합되는 형식이다. 병렬축형은 다수의 영역이 존재하고, 이들의 중심축이 각각 평행으로 나란히 배열된 경우이다.<sup>154)</sup> 이렇게 그는 축형의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서론에 기술하면서 축 개념을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나, 각 공간에서 드러나는 축선의 성질이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나간다.

표 4-2 김봉렬의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연구자의 태도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공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다시 말해, 김봉렬의 연구는 단순히 축성을 분류기준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

153) 한 가지 명시할 점은, 안영배의 논문을 비롯한 선행연구에서는 중축형이 中軸型으로 표기된 반면, 김봉렬의 논문에서는 重軸型으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重이라는 글자는 겹친다는 뜻도 포함한다. 그동안 중축형은 中心軸型의 준말로 사용되어 대개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는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면, 김봉렬의 경우는 단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영역이 각각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는 경우에도 중축형으로 통칭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에 重軸型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54) 김봉렬, 앞의 논문, 62쪽

라 종파별 특징과 관련짓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사찰의 구성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16세기 이전에 해당하는 종파적 신앙에 의한 형식과 만 17세기 이후를 대변하는 통불교적 형식이다. 종파적 신앙에 의한 형식은 미타계(彌陀系), 미륵계(彌勒系), 화엄계(華嚴系), 법화계(法華系)의 4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는 이 4가지와 통불교사찰을 포함하여 모두 5가지 형식의 건축구성을 논하고 있다. 이들 다섯 가지 형식의 건축구성의 내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4-3 김봉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연구된 사찰별 형식에 따른 건축구성의 차이  
출처: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68-7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구분         | 탑  | 불전  | 영역  | 축선                  |
|------------|----|-----|-----|---------------------|
| 미타(彌陀)계 사찰 | 無塔 | 2佛殿 | 2領域 | 竝列軸型                |
| 미륵(彌勒)계 사찰 | 單塔 | 2佛殿 | 1領域 | 交軸型                 |
| 화엄(華嚴)계 사찰 | 單塔 | 2佛殿 | 多領域 | 重軸型                 |
| 법화(法華)계 사찰 | 雙塔 | 2佛殿 | 2領域 | 竝列軸型                |
| 통불교계 사찰    | 無塔 | 1佛殿 | 1領域 | 重軸型 <sup>155)</sup> |

즉, 이 연구는 각 사찰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축선의 성질이 해당 사찰의 종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타계 사찰의 경우, 타방정토 사상을 반영하여 영역성이 강조되며, 미륵계 신앙의 특징인 계율주의는 축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체계를 중요시하는 화엄사상은 사찰에서는 중심성으로 드러나며, 사바즉정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화계사찰의 경우 다양성이 강조된다고 설명한다.<sup>156)</sup> 물론 축선의 성질이라는 기준이 평면적인 고찰에서 더 나아가 사찰건축이라는 건축 본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영역성, 축성, 중심성, 다양성 등의 용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이 특징들이 어떤 조형으로 드러났고 어떻게

155) 김봉렬의 연구내용에 따르면, 연구대상이었던 61개의 통불교계 사찰 중, 총 57개의 사찰이 중축형으로 분류된다. 이 사찰들이 대부분 1동의 주불전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각해 보면 1동의 주불전만을 가지는 모든 사찰은 중축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 백분율로 따지면, 약 93퍼센트가 넘는 비율의 연구대상이 중축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불교계 사찰이 연구 대상의 대부분인 경우, 축선의 성질로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김봉렬의 논문에서 연구대상의 전체를 보더라도 통불교계 사찰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버리는 분류 기준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156)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국문초록의 내용에서 발췌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용어들이 명확한 정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미타계사찰 또는 미륵계사찰, 화엄계사찰, 법화계사찰이 단 하나의 고정된 가람배치형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엄계사찰의 경우, 다영역성을 갖는 배경이 종파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목적의 화엄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는데, 화엄계사찰의 가람배치에서 다영역성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부족하다.<sup>157)</sup> 또한 미타계사찰에서 중요한 극락정토신앙은 영역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된다고 하는데, 이 노력이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군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마당’이라는 공간이 왜 극락정토로 대변될 수 있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sup>158)</sup> 따라서, 가람배치의 어느 특성과 불교교리의 일부분을 연관 짓는 것은 성공했는지 몰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치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불교 교리와 연관 지어 사찰건축의 배치를 연구하는 경우에 적용된 축선의 성질이라는 기준이 사찰건축에 반영된 불교 교리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축선의 성질을 사용하지 않고 사찰건축의 배치를 설명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도구로서의 축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먼저 축선의 성질만을 통해 한국사찰의 가람배치 유형 분류를 시도한 안영배의 연구와 불교 교리의 건축적 구현을 전제에 두고 축선의 성질을 이용한 김봉렬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안영배와 김봉렬이 공통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은 사찰의 유형 분류는 표 4-4의 내용과 같다.

이 표에서는 안영배의 『韓國建築의 外部空間』과 김봉렬의 박사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연구한 사찰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의 내용에 따르면, 같은 사찰에 대해 다른 분류를 한 경우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부석사의 4가지이다. 먼저, 통도사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도사의 경우에는, 결과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 배경에 영역 설정의 차이가 있다. 먼저, 안영배는 상로전에 속하는 제 1군을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산령각을 포함하는 영역, 중로전인 제 2군은 대광명전 영역, 하로전인 제 3군은 영산전, 극락전, 약사전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여, 이 세 영역이 서로 병렬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159)</sup> 하지만 김봉렬은 전각의 위치에 따른 영역별 분류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람배치의 사상적 위계에 따라 상단전각은 대웅전,

157) 김봉렬, 앞의 논문, 69쪽

158) 김봉렬, 앞의 논문, 20쪽

159)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보진재, 1978, 142쪽

표 4-4 안영배와 김봉렬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된 대상 사찰과 유형 분류 결과

|     | 안영배의 유형 분류                                       | 김봉렬의 유형 분류           |
|-----|--|----------------------|
| 봉정사 | 병렬축형(並列軸型)                                       | 병렬축형(並列軸型)           |
| 쌍계사 | 직선축형(直線軸型)                                       | 중축형(重軸型)             |
| 해인사 | <b>단선축형(段線軸型)</b>                                | <b>중축형(重軸型)</b>      |
| 화엄사 | 구성축: 직교축형(直交軸型)<br>진로축: 단선축형                     | 구성축: 교축형(交軸型)        |
| 통도사 | <b>구성축: 병렬축형(並列軸型)</b><br><b>진로축: 직교축형(直交軸型)</b> | <b>구성축: 교축형(交軸型)</b> |
| 불국사 | 병렬축형(並列軸型)                                       | 병렬축형(並列軸型)           |
| 송광사 | <b>곡선축형(曲線軸型)</b>                                | <b>중축형(重軸型)</b>      |
| 선운사 | 병렬축형(並列軸型)                                       | 병렬축형(並列軸型)           |
| 부석사 | <b>곡선축형(曲線軸型)</b>                                | <b>중축형(重軸型)</b>      |

사리탑, 대광명전, 용화전, 약사전, 극락보전을 포함, 중단전각은 웅진전, 명부전, 관음전, 영산전, 불이문, 하단전각은 삼성각, 산령각, 개산조당, 천왕문, 가람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영역 설정의 차이는 불교적 사상에 기반한 위계가 사찰배치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안영배와 김봉렬 모두 종교상의 교리와 신앙이 공간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지만, 불교적 사상의 어떤 측면이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다. 안영배는 불교적 세계가 慾界와 無色界, 色界로 三分된다고 설명하고, 이 삼계의 위계적 표현이 불사건축에 반영된 바를 추측하고 있다.<sup>160)</sup> 또한, 이 삼계의 개념을 인체의 구성에 적용하여 각각 지체(肢體), 동체(胴體), 두부(頭部)로 나누어 이 분류를 건축 공간의 구성에 대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안영배는 해인사, 통도사 등의 대규모 사찰의 외부공간은 과정적(過程的)공간-주요(主要)공간-승화(承化)공간<sup>161)</sup>으로 三分되어 이 순서대로 공간의 위계가 점차 높아진다고 설명한다.<sup>162)</sup> 이와 같은 영역 구분 기준을 고려하면, 안영배가 통도사의 사례에서 전각들의 위치와 지형상의 높이차에 따라 1, 2, 3단을 나눈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김봉렬은 지형상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간의 종교적 위계가 높아진다

160) 안영배,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68쪽

161) 김봉렬의 논문에서는 承化공간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안영배의 논문에서는 昇華공간으로 표기되어 있다.

162) 안영배,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68쪽;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63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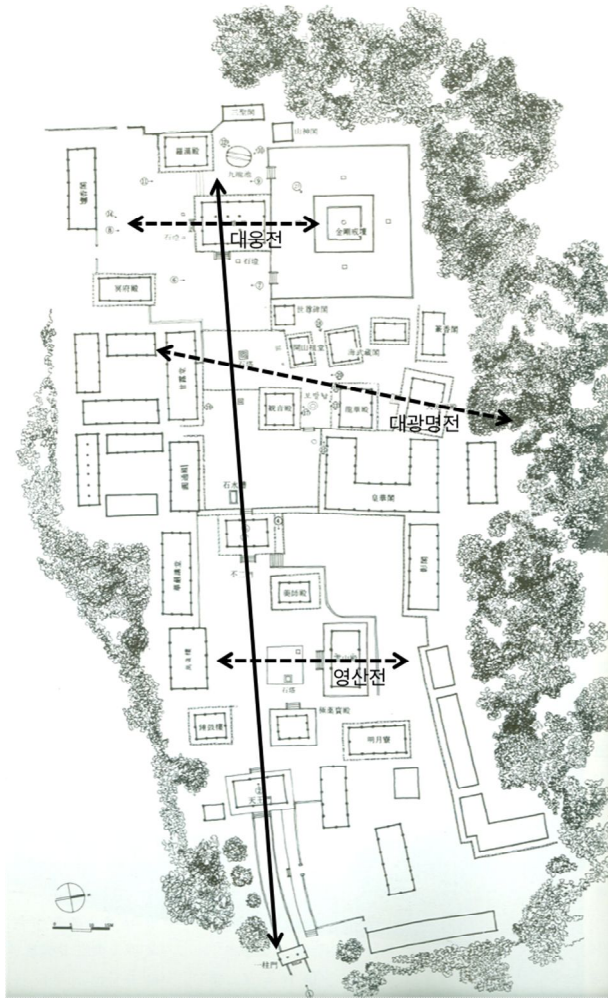


그림 4-1 양산 통도사 내 주요 불전의 축선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수록 도면에 표기)

및 물리적인 공간구성요소에 따른 분석과 최대한 많은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우선시하고, 김봉렬은 한국 불교의 변천사와 종파별 사상이 사찰건축에 반영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는 생각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63)</sup> 김봉렬은 보편적으로 사찰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은 대웅전 영역이므로 승화(承化)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달리 설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sup>164)</sup> 특히, 산지 사찰의 경우는 대웅전 영역 같은 주공간을 지난 이후부터 지형은 상승하지만 위계는 보살단(菩薩壇)-신중단(神衆壇) 순으로 낮아지기 때문에<sup>165)</sup> 승화공간을 무조건 인체의 머리 부분, 즉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김봉렬은 통도사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불교사상적으로 위계가 높은 대웅전, 대광명전, 극락보전이 각각 다른 중정을 가지고 멀리 배치되어 있지만, 모두 상단전각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 안영배는 외부공간

163)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63쪽

164) 김봉렬, 앞의 논문, 163쪽

165) 김봉렬, 앞의 논문, 163쪽

표 4-5 안영배와 김봉렬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축형의 의의 및 통합내용

|        | 안영배  |   | 김봉렬  | 각 연구에 적용된 축의 성질 |
|--------|------|---|------|-----------------|
| 축형의 분류 | 직선축형 | → | 중축형  | 건물 배치의 축(평면)    |
|        | 곡선축형 |   |      | 시지각적 경험의 축      |
|        | 단선축형 |   |      | 영역 구분의 축(지형고려)  |
|        | 직교축형 | → | 교축형  | 건물 배치의 축-변형 1   |
|        | 병렬축형 | → | 병렬축형 | 건물 배치의 축-변형 2   |

여기까지는 축선의 성질을 적용한 가람배치 연구가 불교 사상에 기반하여 고찰되는지 별개로 고찰되는지에 따라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축선의 성질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서, 통도사의 축형 분류에서 축선의 성질이라는 기준이 가지는 의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앞의 표 내용에 따르면, 안영배는 통도사의 구성축을 병렬축으로, 진로축은 직교축형으로 정의하였고 김봉렬은 교축형이라고만 설명한다. 김봉렬은 진로축과 구성축을 통일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배는 제 1군의 주요 전각을 대웅전, 제 2군의 주요 전각을 대광명전, 제 3군의 주요 전각을 영산전으로 보고 각각 건물군의 축이 모두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이르는 동서로 긴 진로축에 대하여 직교한다고 설명한다.<sup>166)</sup> 안영배의 책에 수록된 통도사 배치도 상으로 보면 대웅전은 동향이지만 진입 가능한 계단은 동쪽과 남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광명전이 남향, 영산전이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납득이 가능하다. 김봉렬의 연구에서는 통도사의 주불전인 대웅전과, 진입문인 천왕문을 잇는 선을 중심축으로 설정한다. 이 축을 중심에 두고 대광명전, 관음전, 용화전이 직각을 이루는 축선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축형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축선 적용의 기준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김봉렬은 천왕문과 대웅전을 연결하는 선을 구성축이라고 보고, 안영배는 진로축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결과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연구자들이 불교 교리와 종파별 특징들을 고려하여 영역 설정 및 축형을 분류한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교축형’이라는 분류명 자체가 주는 정보는 해당 사찰이 2개 이상의 불전을 가진다는 사실과 그 주요 불전들의 좌향이 나란하지 않다는 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류는 불교 교리의 구현 내용이나 사찰의 공간 이용 행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3장에서 분석한대로 근대건축언어로서의 축이

166)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보진재, 142쪽

가지는 속성들인 대칭성, 방향성, 영역성, 통일성을 적용시킬 명분도 딱히 가지지 않는다. 이 중 그나마 영역성이 가람배치의 분류 기준으로서의 축선과 관련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찰 내 하나의 영역마다 축이 하나씩 적용되고 이 영역들 간의 관계가 축의 관계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람배치의 유형 분류에 적용된 기준으로서의 축과 근대 건축언어로 사용된 축 개념의 성질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근대 건축언어로 사용된 축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첫째로는 편리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서의 참조선 역할이고, 둘째로는 공간과 인간의 매개체로서 인간의 시선과 동선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가람배치의 유형 분류에 적용된 축은 사찰의 건립 당시 계획의 도구로 사용된 축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이외의 요소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훨씬 컸을 것이라 판단되고, 사찰 이용자인 신도들과 승려들의 사찰 이용 행태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선의 성질을 적용한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의 기본 조영 원리인 남면 사상에 따라 많은 불전들이 남향하여 남북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았고, 사찰이 가지는 공간적 위계가 사상적 질서와 상통한다는 생각이 이러한 사상의 기하학적인 표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線)이라는 보편적인 기하학적 요소로서의 특징과 방향성을 가지는 영역에 적용하기 알맞다는 사실이 축 개념을 가람배치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로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영배와 김봉렬이 한국 사찰을 연구하는 관점은 수많은 연구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축이라는 보편적인 건축 개념이 연구의 접근 방식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이라 생각한다.

#### 4.1.2 축 개념 적용 해석과 풍수지리 적용 해석의 비교

우리나라의 사찰은 불교 사상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인 풍수지리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축은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풍수지리설 중에서도 좌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 따라서, 한국사찰의 가람배치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도 풍수지리적 관념을 적용시켜 분석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합천 해인사(海印寺)에 관한 풍수지리적 해석과 축 개념을 적용한 해석을 비교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해인사의 축형 분류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도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인사에 대한 축형 분류 역시 안영배의



연구와 김봉렬의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안영배는 단선축형(段線軸型)<sup>167)</sup>이라고 정의한 반면, 김봉렬은 중축형이라고 결론지었다. 해인사의 유형 분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진입축을 기준으로 하느냐 구성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아래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안영배는 각 전각에 대한 진입로를 중심으로 축선을 그렸고 일주문을 지나 봉황문으로 들어오는 진입축을 포함시켰지만, 김봉렬은 진입로와 상관없이 주불전인 대적광전의 중심을 가로지르면서 수다라장과 구광루를 한꺼번에 관통하는 축선을 그렸다. 이번 소절의 비교 사례인 풍수지리학적 해석이 해인사의 꺾인 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꺾인 진입축을 중심으로 해인사의 공간구성을 설명한 안영배의 서술 내용을 비교 대상으로 삼겠다.

안영배가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서 진입축을 따라가며 해인사의 공간을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황문과 해탈문을 지나 구광루를 거쳐 대적광전과 법보전을 잇는 축선은 완전한 직선이 아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간씩 이동되고 있다. 이것은 대적광전과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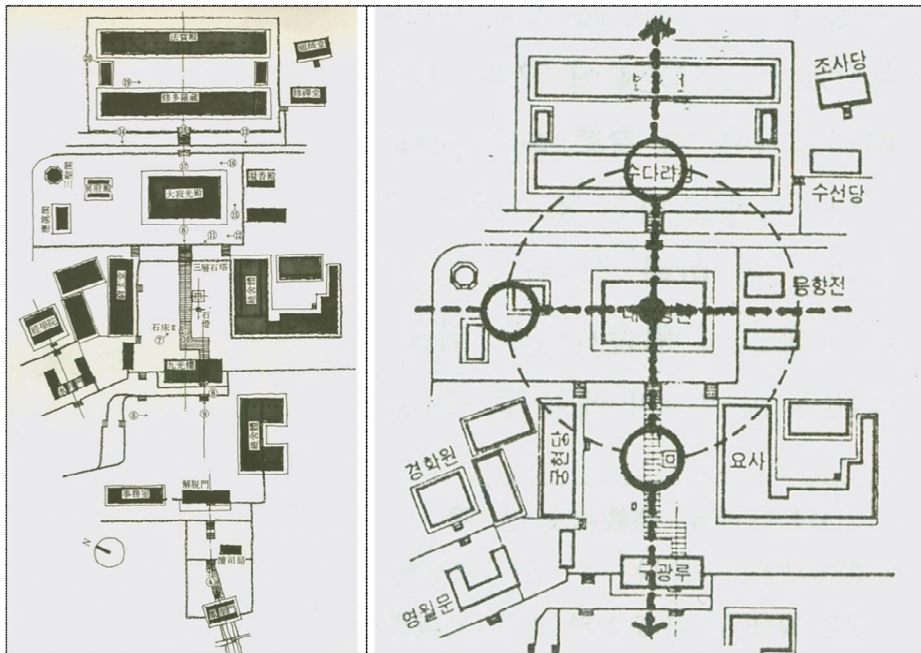


그림 4-2 左-안영배의 해인사 배치도/ 右-김봉렬의 해인사 배치도

출처: 左-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128쪽/

右-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102쪽

167) 안영배의 『韓國建築의 外部空間』에서 정의된 단선축형(段線軸型)은 offset axis, 즉 축선들이 연결되지 않고 끊겨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장경판고의 위치와 방향을 먼저 정하고, 여기까지 진입하기 위한 과정 상의 여러 건물들의 위치는 다시 그 부근의 지형에 따라 정해진 체계로 생긴 축선의 변화라고 생각되나, 직선적인 축선보다 오히려 변화가 있어 자연스러우며 이것이 이 건축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sup>168)</sup>

위와 같은 설명에서 안영배는 축선의 원형(原刑)이란 본래 일직선의 형태라는 전제 하에 축선이 변화된 배경을 건립 당시의 의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축선의 성질을 이용한 해인사 배치의 해석에 있어 별다른 불교 관련 사상이나 교리의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진입 과정에 있어 느껴지는 감정에 주목하여 공간 전체를 묘사한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가 해인사를 방문하여 실제로 진입축을 따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해인사의 건립 배경과 역사적 변천과정에 얽혀 있는 종파적 특징, 신도들의 공간 이용 행태보다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관찰하기 위한 서술 목적을 잘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해인사를 연구한 경우에는 진입축이 꺾이게 된 사상적 배경과 축을 통해 사찰에 진입하는 과정이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역사연구에 실린 이상해의 논문 「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에서는 좌향론, 형국론에 기반한 해인사의 배치 해석과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진입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의 지세와 형국을 두고 배가 나아가는 모양, 즉 행주형국(行舟形局)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모양을 위해 진입축을 조금 꺾어 좌향을 틀고 앞의 남산을 곧바로 보지 않게 한 것이라 설명한다.<sup>169)</sup> 이에 더하여 축의 꺾임으로 인해 해인사가 주변 지세와 어우러지고 전체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축의 변화와 공간의 생동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행주형국인 해인사는 정박하여 있는 배가 아니라 피안을 향하여 뱃머리를 틀면서 떠나가는 움직이고 있는 배로 느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sup>170)</sup> 이에 대한 뒷받침이 될 문헌 기록이 없어서 객관적인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진입축과 별개로 대적광전의 좌향에 대한 설명은 “원래 앞의 남산을 향한 좌향이었으나, 남산의 봉우리 형상이 火山이기 때문에 화기를 피하기 위해 대적광전의 방향을 꺾어서 지금의 좌향으로 배치하였다”고 한다.<sup>171)</sup> 이와 같은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주산과 안산으로 이루어지는 중축에

168)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보진재, 126쪽

169) 이상해, 「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 건축역사연구, 1995, 93쪽

170) 이상해, 앞의 논문, 96쪽

171) 이상해, 앞의 논문, 93쪽

맞추어 건물을 배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입지의 특정 조건에 의하여 변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풍수지리관에 기반한 조영 원리를 추측해보려는 목적을 가진 이 연구 사례에서 드러나는 축은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으로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반영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전 사례에서 축이 진입문과 주요 건물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으로 설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건물군 주변의 주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선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진입축이 꺾인 해인사의 배치에 대한 공간론적 해석과 풍수지리적 해석을 살펴본 결과, 이 둘 모두 축이라는 키워드를 서술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직선의 축이 아닌 꺾인 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찾으려는 의도는 두 연구에서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안영배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진입축의 역할은 공간 이용자의 진입 동선이라고 판단되며, 이상해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축은 진입 동선과 좌향 및 형국을 설명하기 위한 방위 상의 축을 모두 대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리하자면, 해인사의 배치 서술에 있어서 사용된 축은 3장에서 살펴본 축의 성질 중에 방향성 정도만 내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방향성은 공간 이용자의 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물의 좌향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이다. 해인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풍수지리적 해석 또한 방향성을 가지는 생동감 있는 형국이라는 뜻을 함의한다. 해인사에 진입하는 과정이 꺾여있어 자연스러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안영배의 관찰자적인 시점 역시 축이 가지는 방향성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

표 4-5 이상해의 『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연구자의 태도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정리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두 서술 사례는 현존 평면도를 토대로 당시의 건설

의도를 짐작하고자 하는 현대적 해석이므로 독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보편적인 키워드로서 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연구의 방향과 서술 목적에 따라 축이 함의하는 역할 및 속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2 유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

### 4.2.1 유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정인국과 안영배가 제시한 축선의 성질은 불교건축의 연구에만 국한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향교나 서원 등의 유교건축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불교건축의 해석에 있어서 축은 유형분류의 기준 및 진입 동선을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로 작용하며 축의 속성으로는 방향성이 가장 강조되었던 반면, 유교건축의 해석에 사용된 축은 풍수지리관이나 유교관 등의 사상적 구현 여부를 부각시키는 도구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교건축 같은 경우는 문묘구역을 구성하는 대성전, 동무, 서무와 강학구역을 구성하는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요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축에서 좌우로 부속건물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건축보다 축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가람배치 연구사에서와 같이 굳이 축형을 이용한 유형분류가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강렬하게 드러나는 중심축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고 이 의미 및 공간조성의도를 찾아내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유교건축의 배치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유교건축에는 중심축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일직선상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교건축의 배치 특성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 ‘축’에 대한 설명은 공간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사례에서부터 인체에 비유되어 풍수지리설을 대변하거나 엄격한 위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까지 다양하다.

먼저,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유교건축의 배치를 설명하려한 도용호의 연구에서 축에 부여된 성질 혹은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그는 유교의 제례가 평면적 집단을 넘어서 통일된 구심적 조화와 질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그 기능적 의미를 둔다고 이야기한다.<sup>172)</sup> 이에 따라, 유교건축 중 하나인 향교의 조영목적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지역민을 교육, 교화하기 위함과 문묘의 제향기능이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향교건축의 주요전각들은 방향성과 중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sup>173)</sup> 여기서 방향성과 중심성은 禮가 지니는 敬의 의미로서 시, 지각적, 행위적 측면에서 축의 구성과 그에 따른 건물들 간의 위계적 공간구성을 통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sup>174)</sup> 이와 같은 설명에

172) 도용호, 「유학적 질서규범에 의한 향교건축의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7), 1995, 80쪽

173) 도용호, 앞의 논문, 81쪽

서, 그가 단순히 평면적 배치 상의 축성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향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공간 이용 행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각적, 지각적, 행위적” 측면에서 강렬한 중심축이 의미하는 바는 향교가 유교 의례를 위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파악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건물들의 좌우대칭적 배치로 인해 드러나는 축뿐만 아니라 의례 시에 형성되는 방향성과 중심성을 통해 드러나는 축 또한 향교건축의 큰 특징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의 석사논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군신간, 부부간, 사제간, 부자간 등 모든 인간관계에는 서로 다른 위치가 있고 유교적 禮의 기본은 이것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유교건축에서 나타나는 직각배치(直角配置) 및 엄격한 공간축(空間軸)의 설정이 곧 이러한 유교적 위계관의 구현이라고 설명한다.<sup>175)</sup> 즉, 도용호의 연구에서 축은 공간 이용 행태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자아내는 축인 동시에 유학사상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보여주기 위해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기 위한 배치 상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6 도용호의 연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b>연구자의 태도</b>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b>축의 역할</b>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b>적용 방법</b>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b>적용 대상</b>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한편, 여기에서 생각해볼 점은 불교건축에 대한 해석에 사용된 축은 진입축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강조되고 자주 서술되었던 반면, 유교건축에 대한 해석에서 축은 행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례 형식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축으로서 언급되는 사례가 적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종파별로 각기 다른 주불전 및 부불전의 구성을 보이는 다양한 배치 형식의 사찰건축과 달리 서원 및 향교건축은 상대적으로 일률적인 구성(대성전, 동무, 서무를 포함하는 문묘구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 서재를 포함하는 강학구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입축보다는 배치 상에서 나타나

174) 도용호, 앞의 논문, 81쪽

175) 도용호, 『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51쪽

는 구성축에 집중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앞의 절에서 보았듯이 가람배치의 중축선 상에는 보통 진입문과 주불전 정도의 주요 요소가 배치되었던 반면, 유교건축에서는 외삼문, 내삼문, 명륜당, 대성전이 중축선 상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축보다는 구성축에 초점을 맞추기 수월했던 것이다. 또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적 구조를 보여주는 불교관보다 주종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성을 강조하는 유교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축의 상징적 의미가 보다 적합했기 때문에 굳이 진입 동선과 같은 주관적인 설명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남응의 석사논문인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1979)』에서는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서술된 축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서원건축의 특징을 일직선축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대칭성과 균형감이라고 주장한다.<sup>176)</sup> 그는 안영배의 해석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직교축이나 대칭을 지향하면서도 지형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축의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에 반대되는 특별한 예로 서원건축의 배치를 제시한다.<sup>177)</sup> 대표적인 사례로, 도동서원(道東書院)에서 수월루, 중정당, 사당 등의 주요 건물의 중심이 맞추어져 있고 계단, 환주문, 내삼문 및 석조물들도 정확히 축선 상에 위치한다고 설명한다.<sup>178)</sup> 또한, 이러한 일직선축 배치가 이루는 대칭적 균형은 공간에 안정감과 균제성을 부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sup>179)</sup> 이렇게 김남응의 논문은 안영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단순히 한국건축의 특징을 비정형이라고 생각하는 가설 정도만 차용하였을 뿐, 축선의 성질을 본격적인 연구의 방법이나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어서 2년 후에 나온 김지민의 석사학위논문 『향교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1981)』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축선상 배치, 즉 정대칭의 형태를 보이는 배치를 중국건축의 영향으로 보고 비정형적인 한국 주택의 배치와 대조적이라고 주장한다.<sup>180)</sup> 또한, 향교건축의 특징을 단순히 한국건축의 보편성과 대비되는 대칭성으로 보지 않고, 비정형과 정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sup>181)</sup>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정형성을 동적(動的) 대칭으로, 정대칭(正對稱)을 정적(靜的) 대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대칭성에 대한

176) 김남응,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31쪽

177) 김남응, 앞의 책, 31쪽

178) 김남응, 앞의 책, 31쪽

179) 김남응, 앞의 책, 65쪽

180) 김지민, 『향교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43쪽

181) 김지민, 앞의 책, 34쪽

이러한 해석은 축선과 대칭을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김지민의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에 이르러 축선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1992)』에서는 경사지형의 향교들을 직선축형과 굴절축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정인국이나 안영배의 분류보다도 축소된 것으로, 앞의 절에서 본 축 개념의 확장화와 대비된다.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향교건축에서 건물의 축은 남북 자오선에 맞춘 권위적인 단일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축에 따른 대칭요소의 등장(동무, 서무, 동재, 서재)이 건축의 균형과 안정을 극대화시킨다고 한다.<sup>182)</sup> 정리해보면, 향교건축은 다른 종류의 건축에 비해 대칭성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소 많아서 굳이 축 개념을 다양하게 세분화시키거나 확장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김지민의 연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연구자의 태도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 4.2.2 축 개념과 유교 사상의 혼재적 양상

한편, 향교건축의 배치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축선이 엄격한 종교적, 관념적 위계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고 간주하여,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상적 배치의 구현과 연관시켜 연구한 사례도 있다.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가 유교사상과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한 주요 요인이 성리학 전파의 시간적 차이라고 주장하는 이정국의 논문 「朝鮮時代 鄉校建築의

182) 김지민, 『향교건축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국문초록에서 발췌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향교건축 공간의 전개방식이 방위에 의한 공간형성의 원리와 신분질서적 예로서의 미학원리가 함께 적용된 결과라고 주장한다.<sup>183)</sup> 이렇게 형성된 공간의 주요 성격으로 직각배치와 철저한 軸의 설정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공간감은 형식성과 엄격주의적 특징을 드러내어 경직된 느낌을 준다고 설명한다.<sup>184)</sup> 이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향교들인데, 결론에 따르면, 외삼문-동, 서재-명륜당-문묘공간으로 점진적인 상승형태를 취하는 영남지방의 향교들은 성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윤리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성을 확립하고자 이러한 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sup>185)</sup> 이에 비해, 성리학의 영향이 적게 미친 호남지방은 수평적인 윤리관을 보이는 전통적 관습 및 신앙에 따라 외삼문-명륜당-동, 서재-문묘공간과 같은 수평적 위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의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軸의 설정으로 인한 정형적인 배치가 사상적 질서를 반영한다고 믿는 생각을 3장에서 살펴본 고덕성당의 신성성 확립을 위한 축의 확보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여기에서의 축은 인간의 진입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면(前面)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외의 직선적 방향이 공간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한편, 풍수지리관에 입각한 유교건축의 해석에서는 축의 설정을 균형감과 연결짓는 경향을 보인다. 박정해의 박사학위논문인 『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서원건축의 배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얼굴의 눈, 귀, 입, 코, 머리카락은 **하늘의 五行**을 본받고 얼굴의 일곱 구멍은 北斗七星에 해당되며 뱃속의 五臟六腑는 **땅의 五行**을 본받은 것이다. 또한 머리의 百會穴은 北極에 應하고 肛門은 南極에 應하여 **사람의 척추가 人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원 공간구성의 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sup>186)</sup>

이렇게 건축배치와 전체적인 공간구성을 인체의 구성에 비유하여 해석하는 일은 음양오행설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87)</sup> 2장에서 살펴본대로, 오행은 5가지 행의

183) 이정국,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5호, 1990, 34쪽

184) 이정국, 앞의 논문, 34쪽

185) 이정국, 앞의 논문, 36쪽; 김은중, 『韓國의 書院建築』, 문운당, 1996, 234쪽에서 재인용

186) 박정해, 『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7쪽

187) 실제로, 이렇게 건축군의 배치평면도에 인체에 비유하여 분석하는 일은 1970년대에 안영배가 공간지에 연재한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분석을 결들이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96-97쪽 참고.

연결 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를 그대로 서원의 공간구성에 대입시킴으로써 균형감과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설명이다. 조금더 자세히 각각의 건물에 풍수지리적 의미를 대입한 분석도 뒤따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원의 중심공간인 제향공간과 강당을 중심에 놓고 좌우에 입지한 동재와 서재가 마치 청룡과 백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sup>188)</sup> 이렇게 풍수지리학적 해석에서는 오행의 연결관계, 좌청룡우백호, 음양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정국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대로 사상적 질서를 반영하는 수직적 공간 질서에 대한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사상적 질서를 반영하는 축의 설정은 축 자체가 중요한 요소였던 반면, 풍수지리학적 해석에서는 축 주변 환경의 요소들이 강조된 후, 이 요소들의 균형을 잡는 축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표 4-8 박정해의 연구에 나타난 축 개념 활용 방식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b>연구자의 태도</b> | 계획자의 시선              |                           | 감상자의 시선                       |                          |
| <b>축의 역할</b>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b>적용 방법</b>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b>적용 대상</b>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배치 형식을 보이는 불교 사찰과 달리 서원이나 향교 같은 유교건축에서는 중심축에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누각) 등의 주요 요소들이 배치되고 이 좌우에 동무, 서무, 동재, 서재가 각각 정렬되는 등 대칭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연구가 다수 나타나는데, 어떤 관점으로 유교 건축을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축이라는 키워드에 부여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수의 사례에서 중축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률적인 배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람배치 연구사에서만큼 직교형이나 곡선축형, 병렬형 등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다. 반면, 유학사상을 토대로 유교건축의 배치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주와 從을 구분하는 유교적 위계관의 물리적인 구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축의 설정을 강조하였다. 풍수지리학적 관점으로 서원 및 향교의 입지와 건물의 좌향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좌향을 설명하기 위해 방위 상의 축을 언급하거나, 음양오행론의 대입과 인

188) 박정해, 앞의 논문, 62쪽

체와의 비유를 통해 유교건축의 평면상 드러나는 중심선을 인축(人軸)으로 묘사하는 등 중추로 인식하는 견해를 보였다. 가람배치 연구사에서 사용된 축과 가장 대비되는 점은 공간론의 영향으로 인간의 동선과 동일시되는 축 개념의 부재와, 축형의 세분화가 드러나지 않는 대신, 축이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한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 4.3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

### 4.3.1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흔히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의 배치를 설명할 때 정전, 편전, 침전을 가로지르는 중축이 자주 언급된다.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궁궐건축 중 주요 전각 영역을 정확한 일직선의 남북축 상에 배치시킨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안학궁에는 3개의 남북축이 존재하였고, 통일신라 유적인 안압지에서는 좌우대칭인 기본형을 유지하되,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려 개성 만월대의 궁궐터는 외, 내, 침전의 축이 각각 다르다. 회경전 중심의 외전 일곽과 장화전 중심의 내전 일곽, 장화전 후방의 침전 일곽이 지형에 맞추어 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sup>189)</sup> 본 연구는 축 개념을 활용한 해석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복궁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랜 기간 한국 건축사의 기본개론서로 인정받아온 김동욱 저 『한국 건축의 역사』는 경복궁의 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광화문과 좌우 십자각 덕분에 밖에서 보는 궁의 정면은 **대칭 구성**을 하게 되었다. 궁 안의 건물도 **남북 직선축** 상에 중심 건물이 놓이고 주변에는 네모난 행각이 둘러싸서 **엄격한 대칭**을 이루도록 했다.<sup>190)</sup>

실제로 경복궁의 경우, 정전인 근정전, 편전인 사정전, 침전인 강녕전은 모두 남면하고 있으며, 일직선의 남북축 상에 배열되어 있다.<sup>191)</sup> 경복궁의 경우는 주요 전각 영역을 둘러싸는 회랑 또한 네모반듯한 방향으로 지어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제성이 더욱 강조된다.<sup>192)</sup>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복궐도형」을 살펴보면, 정전, 편전, 침전 영역의 진입문과 전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189)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14쪽

190) 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2013, 194쪽

191) 경복궁을 제외한 다른 궁궐들에서는, 궁궐 내 중심전각 영역의 축성을 조성하던 회랑과 주변 전각의 좌우대칭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직선적 배치가 축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길이나, 전각이 나란히 배치된 방향이 축을 결정하게 되었다. (평면 상의 축보다는 인간의 동선을 이끄는 축의 역할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궐이나 서궐, 경운궁에서는 꺾인 축이나 장축과 단축이 직교하는 형태의 축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애초에 이 궁의 위상으로 영건되었기 때문에 의례형식에 맞는 건축조건을 갖추기보다는 지형적 조건과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2) 대개 축을 적용하는 범위를 주요 전각 한 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영역의 한계를 결정하는 회랑의 유무가 중요하다. 회랑이 영역을 둘러싸으로써 공간 내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내향적이고 완결적으로 만든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전각을 중축선 상에 일렬로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唐)대 태극궁과 대명궁의 구성에 그 연원이 있다.<sup>193)</sup>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 중 유일하게 강렬한 중축선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경복궁의 배치에 대한 설명에서 ‘남북축’이라거나 ‘대칭’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표의 내용은 위의 사례와 같이 경복궁에 대한 설명에 있어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축 관련 단행본들이다.

표 4-9 최근 단행본 내 축 언급 사례와 내용 정리

| 책 제목                            | 종류              | 축 관련 내용   |
|---------------------------------|-----------------|---|
| 『한국 건축의 역사』<br>김동욱/기문당          | 궁궐건축<br>(경복궁)   | 광화문과 좌우 십자가 덕분에 밖에서 보는 궁의 정면은 대칭 구성을 하게 되었다. 궁 안의 건물도 <b>남북 직선축</b> 상에 중심 건물이 놓이고 주변에는 네모난 행각이 둘러싸서 엄격한 대칭을 이루도록 했다. (194쪽) |
|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br>이기봉/새문사 | 궁궐건축<br>(경복궁)   | 세종로에서 바라 보이는 경복궁과 뒷산과의 관계는 경복궁의 경관적 이미지 조영에서는 진산(鎭山)인 북한산을 <b>중심축</b> 으로 하여 풍수적 주산인 북악이 겹쳐 보이게 하는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102쪽)        |
| 『서울이야기』<br>정기용/현실문화연구           | 도시계획<br>(조선 도성) | 즉, 지금의 세종로는 경복궁과 도시의 관계를 매개 하던 공간이라는 해석이다. 본래 이 매개 공간인 앞마당은 남쪽 끝에서 <b>동서 축</b> 으로 연결되어 동대문과 서대문에 다다랐던 것이다. (95쪽)            |
| 『新 궁궐기행』<br>이덕수/대원사             | 궁궐건축<br>(경복궁)   | 흥례문 일곽이 복원되면서 비로소 광화문-흥례문-근정문-근정전-사정전-향오문-강녕전-교태전으로 이어지는 경복궁의 <b>중심축</b> 이 되살아났다. (56쪽)                                     |
| 『조선의 정궁, 경복궁』<br>신영훈/조선일보사      | 궁궐건축<br>(경복궁)   | 백악의 신비가 도성 건설 원칙을 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면서 광화문에서 세종로를 내다본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다른 나라 왕궁은 서울 <b>중심축</b> 북쪽에 자리잡는다. (16쪽)                   |

그런데, 경복궁과 같이 큰 규모의 건축군에서는 주요 전각 영역뿐만 아니라 이외의 전각 영역도 대칭적 형태로 구성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북궐도형」<sup>194)</sup>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희루, 수정전, 자선당, 비현각, 만화당, 통화당, 만경전, 제수각(재수합), 경안당 영역에서도 동서좌우의 균형을 맞추어 대칭적으로 구성된 평면이 확인된다. 이들 중 내전 공간인 만화당, 통화당, 만경전, 제수각(만경전의

193) 김동욱, 앞의 책, 41쪽

194) 「북궐도형」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현재의 실측도면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이해원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궁궐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북궐도형」에서 근정전을 비롯한 중심영역은 근대적인 측량으로 작성된 도면과 거의 일치하나 주변부로 갈수록 위치가 조금씩 북쪽으로 밀려있다. 뿐만 아니라, 축이 틀어져 있는 건물의 경우, 중심축과 같은 축으로 그린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북궐도형」에 묘사된 형태대로 궁궐 전각들에 축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대칭성을 보이는 영역을 선정할 때는 단절되지 않은 회랑과 꺾임부가 없는 일자형 전각 등 기본적인 형태만 고려하였다.

부속 건물)을 제외한 경회루, 수정전, 자선당, 비현각은 임금이나 세자와 관련된 공간이다. 경회루는 연회공간이며, 수정전은 왕대비의 거처공간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집현전, 혹은 군국기무처 등의 업무공간이었다. 자선당은 세자의 생활공간이고, 자선당과 나란히 위치한 비현각은 세자의 학문 강학 공간이자 임금의 야대 공간이다. 이들 중 경회루만 동서축을 중심으로 대칭적 질서를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북축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전각 내에서 임금이 앉는 자리가 꼭 이 축선상에 위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공식적인 의례나 야대<sup>195)</sup>의 경우, 군주는 남면한다는 기본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중종대나 선조대에는 비현각에서 야대나 신하들을 접견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임금이 남면하고 앉는 경우도 있으나, 자리가 비좁아 때로는 동향하고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96)</sup> 임금이 직접 행차하는 행사의 경우, 임금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자리하기 때문에 공간 또한 대칭적 성격을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건축의 평면 구성은 공간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례와 평면 구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축 개념을 활용한 평면 구성의 해석과 비교해볼 것이다.

조선의 궁궐건축에 대한 다수의 서술이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궁궐배치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축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축이 궁궐 공간 조성 원리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95) 야대(夜對): 왕이 밤중에 신하를 불러 경연(經筵)을 베풀던 일.

196) “야대(夜對)하였다. 승지 허엽(許曄), 교리 유희춘, 정자 조정기, 주서 윤탁연(尹卓然), 한림 정언신·정사위가 입시하였다. 상은 비현각(丕顯閣)의 서쪽 벽에 동향하고 앉았다.”

夜對。承旨許曄、校理柳希春、正字趙廷機、注書尹卓然、翰林鄭彥信、鄭士偉入侍。上御丕顯閣西壁東向坐。

〔선조실록〕 선조즉위년 11월 5일 -허엽·유희춘·조정기·윤탁연·정언신·정사위 등이 야대하다 中  
 “정원이 다시 아뢰니, 상이 비현각(丕顯閣)에서 영상 및 경연관·대간·사관 등을 인견했는데, 자리가 좁기 때문에 지경연사·특진관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탁이 먼저 들어가 북쪽을 향하여 자리에 앉으려다가 남쪽으로 어좌(御座) 가까이에 앉고, 유희춘·박근원이 잇달아 들어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앉고, 헌납 하번(下番)도 역시 잇대어 앉고 사관 3인은 유희춘 등의 뒤에 앉은 다음에, 상이 전에 진강한 대를 읽었다.”

政院復啓，上乃於丕顯閣，引見領相及經筵臺諫史官等，而以地窄，知經筵特進官不得入焉。李鐸先入北向伏地，坐于南，而近御座。柳希春、謹元相繼入坐東邊向西，而獻納下番，亦連坐。

〔선조실록〕 선조 7년 1월 21일 -조강에 유희춘이 진강하여 소인이 정치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하다 中]

### 4.3.2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유교 사상

궁궐건축을 설명하는데 축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는 궁궐건축의 배치가 다른 종류의 건축에 비해 정형적이고 대칭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궁궐은 정전, 편전, 침전을 가로지르는 중축선을 이용한 좌우대칭성을 포함하여, 그 이외에도 전각의 규모에 따른 위계질서, 군주가 남면해야하는 원리 반영, 전조후침(前朝後寢) 등의 다양한 건축기법들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단순히 건물의 양식이나 배치를 벗어나 이러한 공간 구성이 공간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조재모의 박사학위논문인 『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型式』에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는 유가적 관점 하에서 宗法과 位階라는 신분관계의 물리적 구현은 ‘禮’라고 하는 질서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궁궐이라는 건축형식은 禮論의 틀을 통해 하위 신분의 공간과 차별적인 위계를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실체의 구현이라고 설명한다.<sup>198)</sup> 즉, 궁궐의 영조목적은 차별적 의례의 공간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sup>199)</sup> 궁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례의 형식에 따라 공간구성의 원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다음 표의 내용은 이 논문에 실린 의례의 진행 방식 사례를 몇 가지 인용하고 이와 관련지어질 수 있는 공간 구성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0 조선시대 궁궐 내 의례의 공간 활용 방식  
출처: 조재모, 『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型式』, 2003

| 의례명 | 장 소     | 의례의 형식   | 관련 공간구성원리                  | 페이지 |
|-----|---------|--|----------------------------|-----|
| 朝參禮 | 경복궁 勤政門 | <u>조참례 시 군주의 동선:</u><br>“군주는 익선관과 곤룡포로 사정전에 나아가 있다가 三嚴 이후 문무백관들을 비롯한 모든 참례자들이 자리에 서면 輿를 타고 사정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때의 동선은 사정전에서 사정문을 통하여 근정전 중앙을 거쳐 근정문에 이르도록 하였다.”   | 임금의 동선은 중축선을 따라 연결됨.       | 80쪽 |
| 常參禮 | 경복궁 思政殿 | <u>상참례 시 실내 공간 활용 방법:</u><br>“전 내에서 영의정 이하 관원은 동쪽에서 서향하도록 하고, 부원군 이하의 관원은 서쪽에서 동향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이조, 호조, 예조의 參議와 司諫 이하의 관원은 前楹 동쪽 가까이, 병조, 형조, 공조의 참의는 楹의 서쪽 가까이 자리하되 각각 서쪽과 동쪽을 상으로 한다. 楹間에는 承旨가 북향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史官은 楹 바깥의 동서쪽으로 나누어 위치한다.” | 임금을 중심으로 신하들은 좌우(동서)로 정렬함. | 83쪽 |

|      |            |  |                              |      |
|------|------------|--|------------------------------|------|
| 東宮儀禮 | 경복궁<br>正堂  | <p>행례 시 왕세자 및 신하들의 동선:<br/>“행례는 왕세자가 朝賀를 마치고 동궁으로 돌아오면 시작된다. 그 시각에 문무관이 門外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왕세자가 閣門을 나와 자리에 나아가면 西門을 통하여 들어와 자리에 선다. 三品 이하의 관원들이 자리에 서면 다음으로 二品 이상의 관원들이 庭으로 들어와 계속하여 西階를 올라 堂內의 자리로 나아간다.”</p> | 왕세자를 중심으로 신하들은 좌우(남북)으로 정렬함. | 85쪽  |
| 朝參禮  | 창덕궁<br>仁政門 | <p>조참례 시 군주의 동선:<br/>“임금이 익선관에 곤룡포 차림으로 宣政殿에 나아가 가마를 타고 仁和門<sup>197)</sup>을 지나 仁政門에 나아갔다. 승지와 사관이 동서로 나누어 들어가서 제자리로 간 다음 백관이 사배례를 행하였다.”<br/>(현종실록 16권 10년 1월 21일 기사내용)</p>                                | 임금의 동선이 중축선을 따르지 않음.         | 113쪽 |

위의 표에 정리된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의례 시에 위계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방위에 따른 공간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했으며, 군주 혹은 왕세자라는 중심 인물에 따라 공간 활용 방식의 방향성 및 중심성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남북축을 중심으로 일직선적 배치를 가진 경복궁에서는 임금이 남면하고 동서쪽이 좌우가 되는 일반적인 궁궐의 방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의례 시의 좌향 또한 큰 변동이 없이 군주가 남향하고 문무관이 각각동향, 서향하는 체제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흔히 말하는 단편적인 ‘남북축 중심 공간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東宮儀禮에서는 王世子座를 堂內의 북벽이 아닌 동벽에 설치하고 문무관들이 남북으로 나뉘어 배치된다.<sup>200)</sup> 하지만 이 사례는 왕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이므로 군주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방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복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례들은 임금의 동선이 중축선 위에 설정되었으며 이 동선을 중심으로 신하들의 정렬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위 논문에서도 의례를 위해서는 행례공간 이외에도 主席의 대기공간과 참례자들의 門外位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궁궐의 중심공간이 일렬로 구성될 때 가장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sup>201)</sup>

197) 여기서 등장하는 인화문이라는 문에 대해서, 조재모의 논문에서는 관광청으로 연결되는 인정전 동쪽의 복도각과 연결되는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東闕圖』 등의 그림자료에서는 확인될 수 없으나 『宮闕志』의 기록에 의하면, 인화문이 선정전 서행각의 복도7간 내에 있다고 한다.

조재모, 앞의 논문, 113쪽 참고

198) 조재모, 『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型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4쪽

199) 조재모, 앞의 논문, 4쪽

200) 조재모, 앞의 논문, 85쪽



한편, 남북의 중축선을 중심으로 대칭적 구성을 하지 않은 창덕궁에서는 의례 시의 공간 활용 방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위의 표 내용에 따르면 임금이 선정전에서 인화문을 지나 인정문에 나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곧은 직선을 따르는 동선이 아니다.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한다.

경복궁의 경우 사정전에서 사정문을 통하여 근정전 영역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창덕궁에서는 선정전 서쪽 행랑의 仁和門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창덕궁의 횡적 배치법이 가지고 있는 이동의 편리함이라는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경복궁과 같이 주요전각들이 일직선에 배치된 경우는 종적 배치, 창덕궁과 같이 불규칙하게 좌우로 배치된 경우는 횡적 배치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른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경복궁을 직선축, 창덕궁을 꺾인 축이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위 논문의 의례 시의 공간 활용 방식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축이라는 키워드보다는 군주의 위치 및 존재와 중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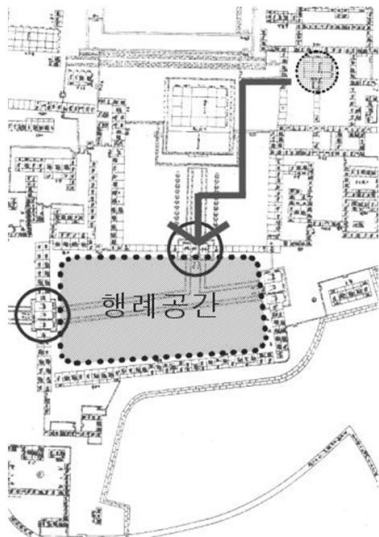


그림 4-3 인정문 조참동선  
출처: 조재모, 앞의 논문, 113쪽

조재모의 궁궐 연구 방법은 의례를 중심으로 한 공간 활용 방식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안영배의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 기록된 경복궁과 창덕궁 설명은 역시나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여 궁궐 공간이 주는 주관적인 느낌과 방문자의 동선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창덕궁의 배치에 대한 안영배의 설명으로, 경복궁의 배치와의 비교로 시작된다.

配置方式에 있어 景福宮은 一直線의 長軸線上에 建物を 配置하고 있는데 반해 昌德宮은 軸線이 여러번 꺾이고 있어 地刑이 狹小하여 평탄치 못함을 극복하고 주변의 山麓을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地形의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특유한 外部空間이 形成되며 단조로움을 벗어난 재미있는 空間을 構成하고 있다. ... 다리를 正

201) 조재모, 앞의 논문, 145쪽

面으로 바라보면 다리에 대한 인식이 약하지만 이같은 側面의 露出은 다리 위를 걷는 體驗을 分明하게 해 주기도 하고, 軸이 直角으로 꺾이는 곳에 位置하여 進行方向을 무리없고 自然스럽게 처리하기도 한다. ... 長方形의 이그러진 梯形空間은 St.Marco 廣場이나 Compidaglio 廣場 등 이탈리아의 古建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整然한 短形空間보다는 空間의 閉鎖感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한다.<sup>202)</sup>

물론 궁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박사학위논문과 건축일반 단행본인 이 서적의 설명 내용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축의 설정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에 대한 관찰자적 시점 및 서술 방식이다. “단조로움을 벗어난 재미있는 공간”이나 “다리 위를 걷는 체감을 분명하게 해 준다”는 표현은 궁궐의 정문을 지나 걸어 들어가는 방문자의 시선을 통해 공간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설명은 자연스럽게 ‘장축선’이나 ‘축선이 여러 번 꺾이고’, ‘축이 직각으로 꺾이는’ 등의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서술을 포함하지만, 이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동선 정도의 의미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안영배는 3장에서 정리한대로 서양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은 근대의 건축언어로서의 ‘축’ 개념을 사용하여 공간을 분석하려 하지만, 여기서의 축은 동선을 제시하는 역할만 맡을 뿐이다.

한편, 안영배가 경복궁과 창덕궁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음양론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경복궁과 창덕궁의 공간을 소개한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건축이다.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경복궁이 웅장하고 활달하여 남성적인 반면에 창덕궁은 아담하고 섬세한 기교로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sup>203)</sup>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양오행론에서 음양은 각각 음은 여성적이고 어두운 공간, 양은 남성적이고 밝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sup>204)</sup> 음양론의 이러한 배경을 배제한 채로 위와 같은 해석을 접하면, 다소 비약적이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안영배의 한국건축 해석에서 음양오행론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사례는 몇 가지 더 있다. 다음 그림은 1974년 공간지에 실린 안영배의 글에 수록된 도판으로, 그가 건축의 배치방법을 人體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sup>205)</sup>

202)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84, 86쪽

203) 안영배, 앞의 책, 86쪽

204) 2.2절의 음양오행론 부분에서 “陰이 추위, 구름, 비, 여성, 내면성, 그늘진 곳을 암시한다면 陽은 빛, 열, 봄, 여름, 남성들의 성격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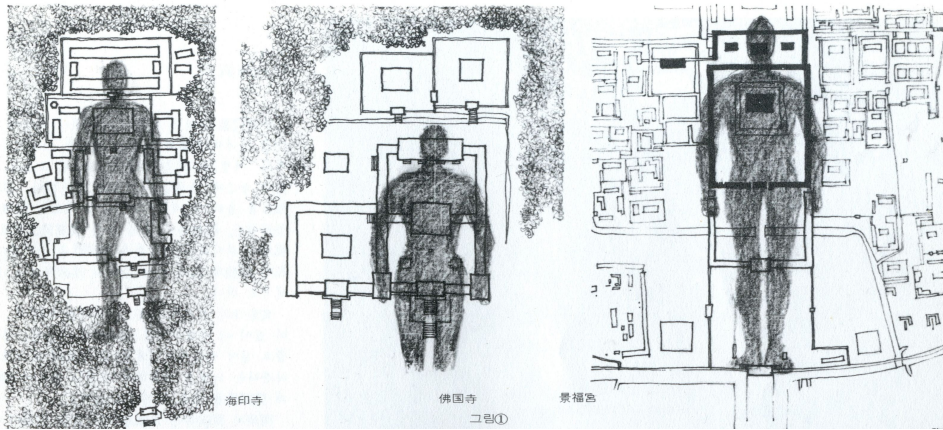


그림 4-4 안영배가 해인사, 불국사, 경복궁의 배치와 인체의 구성을 동일시하여 작성한 도판  
출처: 안영배, 「제3부: 外部空間의 構成技法」, 공간지 Vol.88, 1974

이 글에서 그는 법전을 인체의 두뇌(생각하며 이성으로 사리를 판단하는 곳)에, 불전을 심장부(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곳)에 비유하고 있다.<sup>205)</sup> 또한, 그 앞의 중정, 즉 주요공간은 복부(음식을 소화하며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곳)인데, 이 胴體부분을 두 팔 격인 좌우건물이 에워싸고 있으며, 주요공간에까지 이르는 여러 개의 과정적공간은 인체의 양다리 사이가 된다고 설명한다.<sup>207)</sup> 이렇게 건축의 배치를 인체에 비유하는 것과 천문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둘 다 건축이 자연의 섭리를 쫓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제시한다.<sup>208)</sup>

건축의 배치를 인체의 구성에 비유하는 시도는 안영배뿐만 아니라 음양오행론에 대한 고찰을 수행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서술에서는 인체의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축선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비유는 선택적인 사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복궁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창덕궁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205) 이는 앞 절의 통도사 관련 내용에서도 한 번 확인했던 부분이다.(본문의 58페이지 참고) 안영배는 불교적 세계가 慾界와 無色界, 色界로 三分된다고 설명하고, 이 삼계의 위계적 표현이 불사건축에 반영된 바를 추측하였었다. 위의 공간지 수록 글에서 설명했던 인체 비유를 구체화하여, 삼계의 위계적 표현을 인체의 구성과 동일시하는 해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206) 안영배, 「제 3부: 외부공간의 구성기법」, 『空間』, 88호, 56쪽

207) 안영배, 앞의 글, 56쪽

208) 이 글에서 건축의 배치가 천문오행사상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한 자는 米田美化治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관학자인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영배, 앞의 글, 56쪽

해석 방식에 대한 한계는 안영배도 스스로 체감했으리라 생각된다. 공간지에 실린 글들을 함께 엮은 책인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서는 이러한 도판과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안영배의 궁궐건축 해석에서는 공간 개념과 축이라는 키워드, 음양 오행론, 인체와의 비유 등 다양한 해석 방식이 혼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상자의 시점으로 궁궐건축의 공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또한 관찰자가 되어 궁궐을 둘러보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축의 개념은 공간 이용자의 동선 제시라는 역할을 포함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안영배의 고건축 연구 전제를 떠올리게 된다. “고건축을 바라보는 시점과 현대건축을 보는 시점을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sup>209)</sup> 즉, 안영배의 한국건축 해석에 있어서 당시 궁궐의 공간 이용 행태와 전통적 조영 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한편, 궁궐의 의례형식을 고찰함으로써 공간운영규범과 건축형식을 연구한 조재모의 경우에는 딱히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편적인 건축언어인 ‘축’은 한국건축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을 위시한 연구보다는 현존하는 공간의 경험 및 성격 설명하기 적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표 4-11 안영배의 축 개념 활용 방식-궁궐건축

| 카테고리  | 상세 내용                |                           |                               |                          |
|-------|----------------------|---------------------------|-------------------------------|--------------------------|
|       | 연구자의 태도              |                           | 감상자의 시선                       |                          |
| 축의 역할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인간의 공간 인식을 돕는 매개체         | 상징적 의미 추출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 적용 방법 | 단일건축물의 부분적 구성 요소에 적용 | 건축군 내 구성요소의 평면적 배치에 대한 적용 | 건축군 외부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적용 |                          |
| 적용 대상 | 불교건축                 | 유교건축                      | 궁궐건축                          | 능묘건축, 마을 및 도시, 주거건축 등 기타 |

209) 본 논문의 3.3.2 소절 내용 참고

#### 4.4 소결: 한국건축 연구에 사용된 축 개념의 변화와 의미

이상으로, 한국건축 연구에서 축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과 한국건축의 해석에서 축 개념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축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이 출간된 1970년부터로 서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늦지만, 일반적인 중심축(직선축)뿐만 아니라 직교축, 곡선축, 병렬축 등의 기준을 만들어내면서 보다 넓은 의미로 축이 사용될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축의 세분화 과정에는 안영배의 공간지 수록 글들과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 도입된 ‘축선의 성질’이라는 배치 분석 방법은 서술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현존하는 유구나 실물의 구성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건설 당시의 의도나 구성, 그리고 건축의 종류에 따른 사상적 표현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된다. 안영배는 축의 세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배치나 궁궐 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을 단순히 관찰자의 시점이나 동선을 제시하는 선(線)적인 요소 정도로만 간주하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후속연구에서 축은 사상적 발현의 도구로 인식되어 서술도구로서 힘을 얻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사찰건축의 가람배치 연구사에서 김봉렬이 불교 종파별 특징과 축선의 성질을 연결지어 연구한 사례 중 통도사의 설명 내용과 이상해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해인사의 배치를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김봉렬의 논문은 미타계, 미륵계, 화엄계, 법화계, 통불교계 사찰의 건축구성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탑의 수, 불전의 수, 영역의 수, 축선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각 종파별 사찰구성방식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성공 여부를 떠나 축 개념이 외재적인 사상적 논리와 연관지어지는 흐름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는, 축선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한 영역 설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불교 종파별 사찰을 축선의 성질로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적용된 축선의 성질은 사찰 건립 당시의 조영 원리나 사찰 구성의 변천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사찰 이용자인 신도들이나 승려들의 공간 이용 행태도 고려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도에서 확인한 가능성은 건물군에서 주요 건물들의 배치를 통해 드러나는 축의 형태가 다수의 연구 대상을 분류하고 유형화할 때 효과적인 보편적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상해의 해인사 배치 설명에서도 축이라

는 키워드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해인사의 진입축이 꺾인 이유에 대해 행주형국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방향성을 가지는 축은 한국 전통의 조영 원리 중 좌향 및 형국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사용된 것이다. 이상해의 연구에서는 인간을 공간에 대입시키는 공간론의 영향과 전통적 조영 원리에서 사찰의 배치 구성 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접근 방법이 공존한다.

유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또한 안영배가 세분화한 축형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서의 축은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유학사상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크다. 유교건축에서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 서무가 좌우에 배치되는 문묘구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 서재가 좌우에 배치되는 강학구역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사찰 배치만큼 각양각색의 배치 형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배치 유형을 다양하게 나눌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유교건축의 연구에 적용된 축은 유학사상의 禮를 위한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성리학의 윤리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대칭적 질서를 낳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또한, 음양오행론이 서원의 배치에 구현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음양오행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균형을 잡기 위해 중축이라는 물리적 형태가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즉, 유교건축의 연구에서는 축형의 세분화나 인간의 동선을 의미하는 진입축이 강조되기보다는 축의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한 사례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궁궐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은 다른 종류의 건축을 해석할 때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이 정형적인 대칭적 질서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 질서의 배경에는 사회적 위계 질서의 반영뿐만 아니라 의례 형식을 위해 엄격한 동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궁궐의 영조목적을 차별적 의례의 공간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조재모의 논문에서는, ‘축’이 강조되기보다는 군주의 위치로 인해 결정되는 중심성 및 차별적 위계의 물리적 구현 여부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배치를 비교하는 부분에서도, 저자는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보다는 ‘종적 배치’, ‘횡적 배치’라고 표현한다. 한편, 안영배는 궁궐배치의 설명에서도 관찰자의 시선 및 동선 등의 지각적 경험을 중요시하여 ‘남성적’, ‘여성적’ ‘단조로움을 벗어난 재미있는 공간’, ‘진행방향의 자연스러운 처리’ 등의 주관적인 어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즉, 축을 진입동선이라고 간주하고, 축의 설정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에 대한 관찰자적 서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

나라, 안영배의 궁궐건축 해석에서는 공간 개념과 축이라는 키워드, 음양오행론, 인체와의 비유 등 다양한 해석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안영배가 서술자인 동시에 계획자의 관점으로 한국의 고건축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내기 위한 탐구 정신을 전제로 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편적인 건축언어인 '축'은 한국건축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을 위시한 연구보다는 현존하는 공간의 형태를 설명하거나 이 형태에 드러난 배치 상의 의도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정리하자면,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은 공간분석의 도구뿐만 아니라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가지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는 단편적인 키워드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축은 사상적 배경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해석되었을 때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서술의 도구로서 보다 큰 가능성을 가진다. 축이라는 키워드가 배치 유형의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빈번히 사용된 것은 한국건축연구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로, 이는 건축에서 축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된 축은 단순히 건물과 건물, 혹은 건물과 진입문을 잇는 참조선의 평면적 적용에서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배치 평면에 적용된 축은 진입축과 구성축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진입축은 진입문과 주요 건물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인 동시에, 공간 이용자의 진입동선을 대변하는 선(線)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분류에서 더 나아가 공간 이용자의 공간지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찰자의 시점에서 공간을 설명하는 것이 다소 주관적인 느낌의 설명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공간지각 경험 관련 연구는 더 이상의 연구 확장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軸의 설정에 불교 교리나 유교 사상적 의미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축 자체가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축의 유형별로 배치 형식을 분류하는 선행 연구들의 기본적인 틀을 따르고 있지만, 이보다는 축의 형태가 드러난 사상적 배경과 조영 원리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대상,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축이 사상적 배경을 반영하는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으로 인식된 연구에서는, 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반될 수 있었다.

## V. 결 론

---

축(軸)은 전근대의 문헌 기록에서 건축과 관련지어져 사용되어온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한국건축 해석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심지어, 한국건축의 연구 중 다수에서 축은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거나 상징적 의미의 표상으로 간주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적 조영 원리에 기반한 한국건축을 서양의 근대건축계에서 개념화된 축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20세기에 진행된 한국건축의 연구에 적용된 축 개념의 실체와 의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수행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축은 1800년대 이후의 서양 근대 건축계에서 담론화된 개념으로 대부분 공간론과 더불어 언급된다. 공간론의 등장은 건축을 더 이상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과 시공간의 관계 고찰을 통해 건축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계론이라는 범주에 들어서면서, 공간론은 건축담론의 가능성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공간론의 하위 개념인 축은 빠르고 일률적인 설계를 가능케 하는 보편적인 계획의 도구인 동시에, 축을 따라 공간에 진입하는 인간의 시지각적 감각을 통한 설명을 가능케 하는 공간 해석의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조영 원리 속에는 서구의 근대건축에서 파생된 축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축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속성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지리관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체계는 별자리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것으로 대개 북극성과 남극성을 좌표로 하는 축이 중심이 된다. 풍수지리관에서 거론되는 좌향 및 형국에 대한 논의 역시 일종의 방향성과 중심성을 내포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자좌오향(子坐午向), 주산(主山)과 안산(案山),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등에서 보듯 축과 부수적인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또, 유교 사상이 반영된 의례에서는 주종관계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교 건축에서는 사회적 질서가 물리적 질서로 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공간은 좌우 개념이 확실한 대칭 구조를 보인다. 특히 궁궐의 공간은 군주의 위치를 고려하여 중심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한편, 불교우주론의 중심이 되는 수미산(須彌山)설은 수직적 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적 질서를 보여주는데, 이를 사찰 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이용 행태를 고려한 질서 재배치가 필요하다. 불교우주관에서는 동,



서, 남, 북의 방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방에 위치한 관념적인 요소들이 사찰건축에 실제로 구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주불전과 부불전, 부속 건물의 배치가 불교우주론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사례가 많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축(軸)의 의미를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계, 점과 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넓은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영 원리의 여러 측면에서 축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이후,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된 축은 서술자의 의도와 연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내포한다. 축은 평면적 배치 분석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도구나 다수의 연구 대상을 일률적으로 유형화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편적인 유형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축은 다수의 사례를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하여 설명하기에 적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각 사례의 배치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인국이나 안영배, 김봉렬의 연구와 같이, 축선의 성질을 가람배치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적용한 연구는, 중심축이나 직교축 등 축선 사용 방식의 분류를 현존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립 당시의 조영 원리나 변천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찰 이용자인 신도나 승려들의 공간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 도구로서의 한계를 보였다. 한편, 배치상에서 드러나는 축을 사상적 배경의 물리적 구현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서술 도구로서의 축이 가지는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 일례로, 해인사의 진입축이 꺾인 이유에 대해 풍수지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이상해의 연구에서는, 해인사의 행주형국을 설명하기 위해 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유형 분류를 위해 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설명을 위한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에, 축의 굴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축이 가지는 방향성에 반영된 조영 의도, 방위상의 축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강력한 서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서원이나 향교 등의 유교건축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찰 건축 연구에서 제시된 축 개념을 받아들여 부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축이 유형분류의 기준으로만 사용되기보다는 유학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축이 드러난 배경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공간 구성에 대한 평면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공간 이용 행태인 의례나 생활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간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유학 사상에 기반한 주종(主從) 관계의 성립을 위해 배치 상에서도 강력한 중심축이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즉, 사찰건축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유교 건

축의 중심축과 대칭성은 유학사상의 예(禮)를 위한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성리학의 윤리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대칭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궁궐건축은 한국건축의 상위에 위치하는 정형적이고 격식있는 건축으로 다른 종류의 건축보다 엄격한 공간 질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궁궐건축의 배치에 대한 설명에서는 축이라는 키워드가 더욱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축 중심의 배치는 경복궁의 주요 전각에 국한된 사례일 뿐, 조선시대의 다른 궁궐들에서는 경복궁과 같은 강력한 남북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시대 궁궐의 공간운영규범과 건축구성형식을 심도 있게 연구한 경우에는, 축이라는 단어보다 의례형식과 공간 활용 방식에 주안점을 두어 ‘횡적 배치’나 ‘종적 배치’ 등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문화재로서의 궁궐을 방문하는 관찰자가 되느냐 조선의 법궁으로서의 궁궐을 실제로 이용하는 당시의 조선인이 되느냐에 따라 축은 다른 층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영배와 같이 공간감을 우선시하는 해석에서는 축이 진입동선과 동일시되어 중요한 서술 상의 키워드로 작용하였고, 조재모와 같이 공간 활용 방식을 토대로 궁궐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는 축이란 단어가 서술 도구로서 별 효용을 가지지 못하였다.

정리하자면, 서양의 근대건축계에서 형성된 보편적인 건축언어인 ‘축’은 대칭성, 방향성, 통일성, 영역성 등의 다양한 속성과 결부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데, 한국건축의 해석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통의 사회적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 물리적 구성 방법으로 인식되어 방향성과 영역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위계 질서는 중심성과 연결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중심성은 단순히 군주를 가운데 위치시키는 구심적 질서가 아닌, 의례 형식을 위한 일방향적 성격을 가진 중심성이기 때문에 축 개념과 더불어 언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축 개념의 활용 방법은 단순한 유형 분류의 기준이 아니라 사상적 재현의 해석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풍수지리적 관점과 결부되면서 다소 주관적인 서술 내용을 보이기도 하고, 한 공간 내에서 여러 종류의 의례가 진행되는 공간 이용 행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축은 조영 과정에서의 기능이나 목적을 다루는 연구의 서술 도구보다는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배치의 사상적 배경을 찾거나 현존하는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서양의 공간론과 더불어 대두된 축 개념처럼, 공간을 인식

하기 위해 대입된 인간의 시지각적 공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서술자가 인간의 진입 동선을 따라가며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3차원적인 공간 분석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초기 사례들은 관찰자적인 시점의 주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두 번째는 건물군의 주요 요소들을 연결하는 구성축을 평면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연구 대상을 직선축형, 곡선축형, 교축형, 병렬형, 자유형 등의 축형(軸形)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축은 배치론적 접근 방식의 연구에서 일차적 분류 체계로 사용되지만, 단순한 분류 기준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다수의 연구 대상을 하나의 기준 아래 수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각 학자들의 적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서서히 서술도구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다. 마

표 22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 축 개념의 역할                          | 가능성   | 한계  |
|-----------------------------------|---|---|
| (1) 인간의 시지각적 공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 ㉠ 한국건축의 공간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을 함으로써, 한국건축의 해석방법을 다차원화하였다.<br>㉡ 한국건축에만 적용될 수 있는 서술도구가 아닌 보편적인 건축언어로 한국건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 관찰자적 서술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간감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br>㉡ 대부분 설정된 진입축은 한 가지로 설정되기 때문에, 공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동선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   |
| (2) 배치상의 구성축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 ㉠ 다수의 연구 대상을 한 가지 기준 아래 수렴하는데 성공적인 유형 분류 기준이 되었다.<br>㉡ 중축형, 교축형, 병렬형, 곡선축형, 자유형 등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 ㉠ 현존하는 건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배치상의 축이기 때문에 건립 당시의 조영 원리나 구성 방식, 배치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br>㉡ 영역 설정의 차이나 각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등 학자들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 (3) 조영 원리의 사상적 분석을 위한 기하학적 질서의 표상 | ㉠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축을 사용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서술 도구로서 축 개념으로 전통적 조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br>㉡ 축이 보편적인 기하학적 질서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여러 종류의 사상적 배경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 ㉠ 조영 당시에 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축과 사상적 배경의 일차원적인 비유 또는 조영 의도에 대한 추측 단계에 머무른다.<br>㉡ 문헌을 통한 논증이나 과학적 증명이 어려운 샤머니즘적 관점, 혹은 풍수지리적 관점과 결부지어지는 경우에 주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

지막은 축이 유형 분류의 도구를 넘어서서 배치 상의 상징적 의도를 반영하는 계획의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축이라는 기하학적 질서의 물리적 구현이 천문지리관이나 유교사상, 불교 교리, 풍수지리관 등 당대의 사회적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조영 원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면 구성의 도구로서 축의 가능성을 찾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의 두 역할, 즉 공간 분석의 도구이자 유형 분류의 기준을 담당하는 축의 속성도 함께 고려되고 있어 각 연구의 방법에 따라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한국건축의 해석에 적용된 축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라고 이름붙였지만,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축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한 사례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따라서, 한국건축 중에서도 불교건축과 서원 및 향교 등의 유교건축, 그리고 궁궐건축의 해석 중 몇 가지 사례만을 그 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2장과 3장의 예비적 고찰에서는 축과 관련지을 수 있는 개념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수반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3장에서는 현대의 축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축 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19세기 이전의 축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축 개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역사 정리와 축 개념을 활용한 건축 해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고찰은 후속 연구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사료

- 『朝鮮王朝實錄』
- 『宣和奉使高麗圖經』
- 『宮闕志』
- 『易斷繪圖朝鮮民宅三要』
- 「北闕圖形」
- 「東闕圖形」

### ■ 단행본

#### (1) 국내서

- James Scarth Gale, 『한영사전(韓英字典)』, Kelly & Walsh,
-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1974
-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78
- 브루노 제비, 이해성 역, 『建築의 現代言語』, 세진사, 1982
- 최창조, 『韓國의 風水地理』, 민음사, 1984
- 피터 콜린스, 이정수 외 역,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태림문화사, 1989
- 홍윤식, 『만다라』, 대원사, 1992
- J. C. 쿠퍼, 이윤기 역, 『세계 문화 상징 사전』, 도서출판 까치, 1994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서울민족대관-11.풍수편/12.관습편/13.종교편』, 서울특별시, 1996
- 김은중, 『韓國의 書院建築』, 문운당, 1996
- 야나기 무네요시, 심우성 역, 『조선을 생각한다』, 학고재, 1996
- Francis D. K. Ching, 황연숙 역,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도서출판국제, 1997
- 김석철,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창작과비평사, 1997
- 한영대, 『조선미의 탐구자들』, 학고재, 1997
- 아시하라 요시노부, 『건축의 외부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1998
-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사상적 배경』, 까치, 1998
-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 르 꼬르뷔지에,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
- 신영훈, 『조선의 정궁-경복궁』, 조선일보사, 2003
-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사연구 2-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언, 2003
- 유돈정,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2004

- 이덕수, 『新궁궐기행』, 대원사, 2004
- 김석철,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창비, 2005
- 정기용, 『서울이야기』, 현실문화연구, 2008
- 이기봉, 『조선의 도시-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2008
- 한성우,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지식: 지식영 편찬의 『兒學編』의 언어 자료』, 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13
-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21세기북스, 2014

## (2) 국외서

- Alexander C. Soper, 『The Evolution of Buddhist Architecture in Japan』, Humphrey Milford, 1942
-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 Da Capo Press, 1948
- Norman Carver, 『Form &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Documan Press, 1993(First edition in 1955)
- Christian Norberg-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6
- Rudolf Arnheim,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芦原義信,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1981
- 井上充夫,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Weatherhill, 1985
- Roger Trancik, 『Finding Lost Space: Theories of Urban Design』, John Wiley & Sons, 1986
- Maurice Besset, 『Le Corbusier』, Architectural Press, 1987
- Michael Snodin, 『KARL FRIEDRICH SCHINKEL: A Universal Man』, Yale University Press, 1991
- William H. Coaldrake, 『Architecture and Authority in Japan』, Routledge, 1996
- Leupen, Grafe & Kornig, 『Design and Analysis』, 010 Publishers, 1997
-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McGill-Queen's Press, 1998
- Eric Paul Mumford,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MIT Press, 2002
- Frank Sear, 『Roman Architecture』, Routledge, 2002
- Hyungmin Pai, 『The Portfolio and the Diagram: Architecture, Discourse, and Modernity in America』, MIT Press, 2002
- Caroline Humphrey & Piers Vitebsky, 『Sacred Architecture』, London: Duncan

- Baird, 2003
- Eric Jenkins, 『To Scale: One Hundred Urban Plans』, Routledge, 2008
  -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010 Publishers, 2009
  - Simon Unwin, 『Exercises in Architecture: Learning to Think as an Architect』, Routledge, 2013
  - Pierre von Meiss,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Form to Place』, Routledge, 2013

## ■ 논문

### (1) 국내 학술지 논문

- 안영배, 「한국건축외부공간의 유형과 구성기법 분류 및 표기법」, 대한건축학회지, 20(73), 1976
- 이정국,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5), 1990
- 김동욱, 「스기야마 노부조오(杉山信三) 박사의 일본건축이 한국건축에서 받은 영향에 대해서」, 건축역사연구, 2(1), 1993
- 김봉렬, 「근세기 불교사찰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 연구-수도권 원당사찰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95
- 이상해, 「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특히 풍수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95
- 도용호, 「유학적 질서규범에 의한 향교건축의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7), 1995
- 윤재신, 「건축평면에서 공간의 시지각적 화상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1998
- 배형민, 「미국 보자르 건축의 이론과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2), 2000
- 배형민, 「현대건축에서 그리드와 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1(4), 2002
- 김종현, 「우리나라 사찰건축의 입지와 교통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0
- 염중섭, 「불교우주론과 사원구조의 관계성 고찰」, 건축역사연구, 17(1), 2008
- 홍병화,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봉불과 강설공간의 변화과정」, 건축역사연구, 2010
- 염중섭, 「가람배치의 내원과 중국적 전개양상 고찰」, 건축역사연구, 19(2), 2010
- 한지만, 「일본건축사의 선구자들-1. 이토츠타(伊東忠太)」, 건축역사연구, 20(4), 2011
- 이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궁궐도형의 내용과 특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4

## (2) 국내 학위 논문

- 박만식, 『한국 고대가람의 배치 및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 김남응,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김지민, 『향교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안영배,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조창한, 『한국사찰과 희랍신전의 건축공간구성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도용호, 『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봉렬, 『조선시대 불교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지민, 『향교건축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정정남, 『조선 후기 주택의 양택론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염중섭,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에 관한 공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정해, 『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3) 국외 학술지 논문

- Hyungmin Pai, Don-Son Woo, 「In and Out of Space: Identity and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19(3), 2014

## (4) 국외 학위 논문

- Ozgur Dincer, 『Axiality in the Process of Space Organization in Architecture』, A Dissertation for Master Degree at Izmir Institute of Technology, 1999

## ■ 기타

- 안영배, 「제 3부: 외부공간의 구성기법」, 『空間』, 88호, 1974
- 「네이버 국어사전」, 2014, 국립국어원 제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부록 1. 박경립의 「전통건축 공간론」에 기록된 ‘공간’ 관련 논문의 목록  
(해당 글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 분류  | 소분류                         | 논문 제목   | 저자명        | 연도   |
|---|-----------------------------|---|------------|------|
| 1. 전통건축 공간에 세계관을 포함한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관계하며, 그 결과 공간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시도 | ● 사상과 철학이 전통건축 공간에 미친 영향    | 『전일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박경립        | 1987 |
|   |                             | 『한국건축에 있어서 음양공간의 질서』                                | 이강훈        | 1989 |
|   |                             | 『삼재론적 해석에 의한 한국전통건축 형태, 공간 원리연구-동양실존철학 상수이체계를 중심으로』 | 김광민        | 1992 |
|   |                             | 『전통사상에 의한 건축공간의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 이인희        | 1996 |
|   |                             | 『동양의 입체오행사상을 통하여 본 세계관과 건축공간 배치에 관한 가설』             | 성인수        | 1983 |
|   |                             | 『한사상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이진길        | 1993 |
|   | ● 전통건축 공간의 구성방법 및 공간 자체의 특성 | 『한국건축공간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                                | 원대연        | 1983 |
|   |                             | 『한국 전통건축공간구성의 유기적 상호연계에 관한 연구』                      | 이재현        | 1989 |
|   |                             | 『폐합관계로 본 한국전통주거공간』                                  | 이동언        | 1984 |
|   |                             |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공간의 상보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김범중        | 1995 |
|   |                             | 『한국전통건축 공간구조의 영역과 경계에 관한 연구』                        | 우인식        | 1995 |
|   |                             | 『전통건축 공간 구성의 연속 체계에 관한 연구』                          | 민승현        | 1997 |
|   |                             |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깊이 표현에 관한 연구』                         | 최은석        | 1999 |
|   |                             |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의 공간 구성에 내재된 상보적 질서에 관한 연구』             | 김기덕        | 1998 |
|   | ● 특정 종교 및 사상 관련 건축          | 『한국 유교건축의 경의 공간에 대한 연구』                             | 이왕기        | 1986 |
|   |                             |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교육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도통호        | 1996 |
|   |                             | 『도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한국전통건축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원성혁        | 1993 |
|   |                             | 『노자사상의 유기적 원리를 통한 건축공간 구성 분석: 한국 전통건축공간을 중심으로』      | 윤영선        | 1998 |
|   |                             | 『동양사상의 중심성을 통하여 본 전통주거의 마당공간에 관한 연구』                | 이응희<br>이종우 | 1995 |

|  |                            |  |                   |      |
|--|----------------------------|--|-------------------|------|
|  |                            | 『독락당의 공간 표현과 사상에 관한 연구』                                  | 박해성               | 2000 |
|  |                            | 『금계포란형 국면의 마을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 강선중               | 1999 |
| 2. 건축종별로 접근한 연구<br><br>-계층별 특성<br>-지역별 특성<br>-시대별 특성 | ● 주거-공간별 특성                | 『조선조 상류주택 마루의 공간론 연구』                                    | 조계순               | 1986 |
|  |                            | 「의례건축으로서 마루공간의 상징성」                                      | 이왕기               | 1987 |
|  |                            | 「정서감 유발요인으로 본 한국전통건축공간의 디자인 유형에 관한 연구: 마루공간과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 박현진               | 1998 |
|  |                            | 『전통주거건축의 처마공간에 관한 연구』                                    | 이은정               | 1998 |
|  |                            |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연경당을 중심으로』              | 최상현               | 1992 |
|  | ● 주거-계층별 특성                |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적 특성 연구』                                   | 이종철               | 1977 |
|  |                            | 『사대부가의 공간도식적 특성』   | 이원교               | 1986 |
|  |                            | 『한국전통건축의 비정형적 구성과 공간표현에 관한 연구: 하회 양진당의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 권영상               | 1998 |
|  |                            |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역동성: 조선시대 상류주택공간을 중심으로』                     | 이금진               | 1998 |
|  | ● 주거-지역별 특성                | 「충청지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이재현<br>도용호        | 1987 |
|  |                            | 『충남지역 한옥주택의 내,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신명승               | 1988 |
|  |                            | 「전통 주거공간의 경관인식특성에 관한 연구; 충북지방을 중심으로」                     | 신상섭               | 1989 |
|  |                            | 「경남지역 전통 농촌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이상정               | 1988 |
|  |                            | 「제주도 전통가옥의 공간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현영숙               | 1982 |
|  |                            | 「무속의례를 통해 본 제주도전통주거의 공간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정영철<br>이해성        | 1991 |
|  |                            | 「전통주거 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문화재를 중심으로」                     | 박강철<br>외          | 1995 |
|  |                            | 「전라구례 오미동 가도를 통해 본 윤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최수영<br>김광현<br>홍대형 | 2001 |
|  |                            |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농촌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김지연               | 1996 |
|  |                            | 『중국 한민족 주거의 공간구조 연구』                                     | 임문범               | 1996 |
| 『중국 길림성 용흥촌 조선족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 정영석                        | 1997   |                   |      |
| ● 주거-무속적 접근  | 『전통건축공간 의미의 무속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신왕선  | 1992              |      |

|                   |                          |   |            |      |
|-------------------|--------------------------|---|------------|------|
|                   |                          | 『무속신화의 구조적 고찰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건축 공간조직의 이해에 관한 연구』 | 양성필        | 1996 |
| ● 민가              |                          | 『서민 주거공간에 대한 고찰』                            | 송수구        | 1971 |
|                   |                          | 『한국 고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이규목        | 1975 |
|                   |                          | 『한국 전통적 건축공간 구성의 특질』                        | 이성관        | 1976 |
|                   |                          | 『재래농가의 주거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이규봉        | 1980 |
|                   |                          | 『전통민가에서 표출되는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 김광빈        | 1984 |
|                   |                          | 『농촌주택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박성준        | 1986 |
|                   |                          | 『조천리 민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신석하        | 1999 |
| ● 기타 주거공간         |                          | 「대립, 역동, 조화의 이론과 한국전통 건축에 있어서 공간 구성의 실체」    | 이배화        | 1991 |
|                   |                          | 「자연관이 건축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                       | 윤홍택        | 1979 |
|                   |                          | 「안팎 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최병선        | 1985 |
|                   |                          |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구성원리」                           | 최동호        | 1996 |
|                   |                          | 「한국전통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박덕규<br>김홍부 | 1997 |
|                   |                          | 「관가정의 건축공간 구성수법에 관한 연구」                     | 노동성<br>홍대형 | 1999 |
| ● 전통 마을과 도읍의 공간구성 |                          | 『한국자연부락의 공간 구조』                             | 이정근        | 1972 |
|                   |                          | 「마을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한국전통사상 연구」                   | 김홍식        | 1975 |
|                   |                          | 『동족부락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임봉진        | 1982 |
|                   |                          | 『한국농촌마을의 공간구성방법에 대한 연구』                     | 강선중        | 1984 |
|                   |                          | 『한국성곽도시의 형성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김철수        | 1985 |
|                   |                          |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읍성마을 중심』                | 장구식        | 1987 |
|                   |                          | 『하회마을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서상윤        | 1988 |
|                   |                          | 『마을의 정주공간에 관한 연구: 구례상사, 양동마을중심』             | 문병용        | 1989 |
|                   |                          | 「자연부락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민속신앙적 요소를 중심으로」          | 안기상        | 1989 |
|                   |                          | 『조선시대 반가 중심 마을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정시춘        | 1990 |
|                   |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연구』 | 한필원   | 1991       |      |
| ● 사찰 건축의          |                          | 『불사의 예불공간에 관한 건축 설                          | 이재헌        | 1977 |

|                  |                                      |       |      |
|------------------|--------------------------------------|-------|------|
| 공간               | 『한국 사찰건축의 수도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 이철영   | 1989 |
|                  | 『한국 사찰건축 기반부의 매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하춘태   | 1988 |
|                  | 『한국 산지가람건축의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최상헌   | 1979 |
|                  |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내부공간에 관한 연구』             | 박영호   | 1976 |
| ● 궁궐 건축의 공간      | 『한국 궁궐건축 전이공간의 시지각 경험에 관한 연구』        | 김대순   | 1988 |
|                  |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이병호   | 1983 |
|                  | 『운현궁의 벽-칸막이 형식과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 정명주   | 2000 |
|                  | 『조선 궁중건축 상량송시문의 해석에 따른 전통건축공간의 의미론』  | 채훈관   | 1994 |
|                  | 『창덕궁 연구 1: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공간의 시대적 변화』 | 손창구 외 | 1991 |
|                  |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 김정희   | 1983 |
|                  | 『조선시대 궁원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이유직   | 1988 |
|                  | 『전주향교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 홍대형   | 1978 |
| ● 서원 및 향교 건축의 공간 |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김남응   | 1979 |
|                  | 『조선시대 향교서원 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도용호   | 1987 |
|                  | 『향교 강학공간 구성형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이대진   | 1987 |
|                  | 『정자건축의 난간과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 최영철   | 1989 |
| ● 기타: 누정         | 『정자주변의 공간구성을 통한 강정의 입지에 관한 연구』       | 김호중   | 1990 |
|                  | 『한국 누정건축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이용범   | 1994 |
|                  | 『누정형식을 표현한 현대건축의 형태구성과 공간특성』         | 임숙희   | 1996 |
|                  | 『전주 관아배치의 외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송제룡   | 1989 |
| ● 기타: 외부공간       | 『전통 릉역 공간구성의 우주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박재길   | 1976 |
|                  | 『한국적 외부공간 고찰』                        | 홍대형   | 1971 |
|                  | 『한국 고건축의 배치계획에 따른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고찰』     | 김제동   | 1974 |
|                  |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 하상옥   | 1980 |
|                  | 『한국 고건축의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김제돈   | 1981 |

|   |                |   |                   |      |
|---|----------------|---|-------------------|------|
| 3. 전통건축의 공간성을 밝히고 그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여 현대의 디자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 | ● 기타: 장소성 / 맥락 | 『한국 전통 주거건축 외부공간 구성의 특성 연구』                 | 정태호               | 2000 |
|   |                | 『한국전통건축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장소성을 중심으로』             | 최병우               | 1984 |
|   | ● 기타: 전통 정원    | 『맥락개념을 통한 전통주거건축의 외부공간』                     | 지영주 외             | 1991 |
|   |                | 『전통조경의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상류주택 중심』            | 김한도               | 1989 |
|   |                | 「보길도 부용동 세연정 정원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 최은정<br>홍광균        | 1994 |
|   |                | 「고산 윤선도 해남 수정동정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1)」           | 김은일<br>백지성<br>김진성 | 1996 |
|   |                | 『한국전통주택의 외부공간 구성요소로서 담에 관한 연구』              | 조상묵               | 1989 |
|   |                | 「한국전통건축의 마당공간에 관한 연구」                       | 안경환               | 1998 |
|   | ● 시대별 특성       |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주남철               | 1977 |
|   |                | 『조선시대 반가의 식사, 취사생활과 공간사용』                   | 박선희               | 1989 |
|   |                | 『조선시대 영남지방 반촌의 형성과 공간구성에 의한 연구』             | 이규성               | 1995 |
|   |                | 『고려시대 사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이정국               | 2002 |
|   |                | 『전통건축 공간미의 현대적 표상에 관한 귀납적 연구』               | 한재수               | 1983 |
|   |                | 「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그 현대적 의의」                      | 이강훈               | 1985 |
|   |                |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김경숙               | 1996 |
|   |                | 『전통건축공간 구조체계의 현대건축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승현               | 1996 |
|   |                |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 이봉환               | 2000 |
|   |                | 『전통건축공간의 시각구조 분석을 통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연구』          | 정주연               | 2000 |
|   |                |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의한 전통공간 특성의 현대실내건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정석연               | 2000 |
|   |                | 「전통 주거 건축 공간의 시지각적 특성을 적용한 집합 주거 계획」        | 이영주               | 2001 |

## 부록 2. 한국 사찰건축의 가람배치나 공간구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목록

| 연도   | 연구자                     | 제목  | 분류       |
|------|-------------------------|---|----------|
| 1930 | 후지시마<br>가이지로<br>(藤島亥治郎) | 조선건축사론  | 단행본      |
| 1973 | 윤장섭                     | 한국건축사   | 단행본      |
| 1974 | 정인국                     | 한국건축양식론   | 단행본      |
| 1975 | 박만식                     | 한국 고대가람의 배치 및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 1984 | 안영배                     | 한국불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 1985 | 조창한                     | 한국사찰과 회람신전의 건축공간구성 비교 연구                                    | 박사학위논문   |
| 1987 | 옥영무                     | 신라말 고려초 미륵신앙 사찰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
| 1989 | 김봉렬                     |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 박사학위논문   |
| 1992 | 김성우                     | 통일신라시대 불교건축의 변화   | 건축역사학회논문 |
| 1993 | 김홍식                     | 구례 화엄사 가람 배치의 미학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건축학논총    |
| 1993 | 이원교                     | 부석사의 공간구조에 투영된 화엄 불국토관과 지리체계                                | 건축학논총    |
| 1995 | 김봉렬                     | 근세기 불교사찰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 연구-수도권 원당사찰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학회논문 |
| 1995 | 이상해                     | 해인사 가람의 상징성에 관하여-특히 풍수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학회논문 |
| 1996 | 김성우                     | 고구려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5세기전후 불사계획의 변화                              | 건축역사학회논문 |
| 1999 | 양상현                     |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   | 박사학위논문   |
| 2000 | 김종헌                     | 우리나라 사찰건축의 입지와 교통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03 | 김상태,<br>박연곤             |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 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05 | 장현석,<br>최효승             | 속리산 법주사 가람배치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 2007 | 염중섭                     | 불국사 진입 석조계단의 공간분할적 의미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08 | 염중섭                     | 불교 우주론과 사원구조의 관계성 고찰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09 | 이경미                     | 기문으로 본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전각평면과 가람배치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10 | 정자영                     | 6~7세기 백제 사찰 내 강당 좌우 건물지의 변천과정 고찰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10 | 홍병화                     |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봉불과 강설공간의 변화과정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11 | 탁경백                     | 백제 사찰 조영계획 고찰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11 | 이주형,<br>장석하             | 한국고대가람 변천양상에 관한 불교사적 고찰-불신관의 발전과 불탑 및 불상의 위상변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학회논문 |
| 2013 | 현승욱                     | 중국 초기 불교사원 배치에 관한 연구-후한부터 남북조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학회논문 |

## ABSTRACT

# The Possibilities of the Concept 'Axis'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Chae, Uri

Advised by Prof. Jeon, BongHee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d 'axis' appears frequently in architecture-related books, diagrams, articles, or dissertations. It is a universal architectural language that people use without hesitation, but the definition of 'axis' in architectural terms and a criterion for applying 'axis' in spatial descriptions are still ambiguous. Especially, it is interesting that the use of axial typ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uilding layouts can be commonly found in the studies of Korean architecture, published during the late 1900s. This study has begun with questioning the status of the keyword 'axis' in architectural context and the possibilities of it when interpreting Korean architectu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sive denotation of a keyword 'axis,' and it traces back the architectural history to find out how and since when axis-related concepts have been discussed.

Discourses about architectural space have appeared after 1800s, and they are developed into the discourses about spatial perception, in which the relationship among space, time, and human beings is analyzed through the human perception. One of the derivatives of these discussions is axis. Axis was one of the design tools for Ecole des beaux-arts' architectural education curriculum during the 19th century, and also, it was used f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al

space and existing buildings. The keywords of space and axis used for architectural narratives are not substantial; rather, they are about the relationships, being realized by the perceptual sense of humans inserted to analyze the spatial qualities.

If the concept 'axis' is defined a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oints or two spaces,' many of traditional construction principles or ideologies of East Asia can also be connected to this concept. Fundamentally, axis is a linear element that it accompanie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directivity, centrality, symmetry, or uniformity; furthermore, it establishes spatial hierarchy and affects the perceptual senses of human beings within space.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have existed even before the concept 'axis' became to be widely used in architectural context; they have been embodied and described through other concepts than 'axis.' For example, Five Elements Theory of ancient East Asian astronomical and geographical views aims for understanding the universe's order system through the relationship among five elements. Also, major aspects of Confucianism emphasizing a master-servant relationship reflect centrality, and Buddhist Cosmology tends to stress a centripetalism. Moreover, feng shui principles rely on 4 cardinal points, north and south becoming the main axis in many cases.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representative of the concept 'axis' and its derivatives. In other words, a polysemy of 'axis' rather allows unconstrained use of this concept,

In 1974, In Kook Chung's *Korean Architectural Style* discussed the classification of layouts of Buddhist temples in Korea by applying the types of axis re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fterwards, other follow-up studies also borrowed these classifications, including a central axis type, an intersecting axis type, and a parallel axis type. The categories of relevant studies are extensive, including Buddhist temples, Confucian memorial halls, Palace architecture, royal tombs, et cetera, but backgrounds or usage patterns of applying 'axis' vary according to each study's purpose, subject, and approach. For in-depth examination of the polysemy of 'axis' and its contextual significance, this study reviews a number of interpretations on Korean architecture either applying the concept 'axis' or excluding the usage of 'axis.'



Studies on the layouts of Buddhist temples utilized the concept 'axis' the most. In Kook Chung and Yong-bae Ahn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axis' in Korean architectural studies by subdividing axis types into several categories(Yong-bae Ahn suggested 5 categories, including linear axis, curvilinear axis, offset axis, intersecting axis, and parallel axis), but their usage of axis was limited to the application on the planar layouts of building complex. Afterwards, follow-up studies expanded the usage patterns of the concept 'axis' by considering axis as the tools for ideological manifestation and examining the meaning represented on this axis. Especially, Bong-Ryol Kim's Ph.D. Dissertation on Buddhist architecture scruti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t doctrines and the axis types. Likewise, axis can be a universal keyword for describing layouts and a criterion for classific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axis applied for the studies of Buddhist temples has a limitation because it can neither fully explain the construction principles of the moment or the transition of the spatial composition over the period, nor it takes account of the space usage patterns of believers and monks who are the real users of the temples.

The studies on Confucian architecture, such as Confucian memorial halls(*Seo-won*) and Confucian schools(*hyanggyo*), tend to focus on the symbolic meanings of axis rather than use axis as a classification criterion or a processional axis representing people's movement within space. Many of studies on Confucian architecture regard axis as a means of physical manifestation for 'courtesy' of Confucian ideology or as a tool for organizing a symmetric hierarchy reflecting ethical and strict social hierarchy based on Neo-Confucianism. Also, some of the studies focusing on feng shui principles emphasize the central axis which is needed for balancing the factors representing Yin and Yang or five elements of 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

Axis appears more commonly in the studies of palace architecture than in others because central areas for *Gyeongbokgung Palace*, a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shows a typical symmetrical hierarchy in which social hierarchy and a rigid circulation for ritual ceremonies are reflected. Jae-Mo Cho's dissertation focusing on the comprehension of

architectural norms as spatial background for the rituals in the royal palaces emphasizes the centrality of palace space organized after the priorities like the king's position during the ceremonies and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social hierarchy; this study does not mention axis even though many of the concepts are related to the axiality. However, Yong-bae Ahn's description on *Gyeongbokgung Palace* is based on observer's perspective that it focuses on the human perception such as sight and movement of visitors. Moreover, the mixture of the background ideologies, including architectural space, axis, Yin-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and the comparison between building layouts and human body, is found in Ahn's interpretation on Korean architecture.

To sum up, by comparing the interpretations of Korean architecture that applied the concept 'axis' and those of other approaches,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that 'axis,' a universal keyword of architectural language, has been used for following roles: a classification criterion, a tool for explaining spatial qualities through human perception, and a form of physical manifestation of background ideologies. Furthermore, axis applied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architecture implies more possibilities when understood a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ideological principles or a tool for spatial analysis on existing buildings than when used for examining original usage patterns or purposes of Buddhist temples, Confucian architecture, or Palace architecture.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the possibilities and validity of the architectural language 'axis' through comparison analysis of various interpretations on Korean Architecture and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axis' and its derivatives.

---

**Keyword:** Axis,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In Kook Chung, Yong-bae Ahn, Spatial composition, Space, Buddhist temples, Confucian architecture, Palace architecture

**Student Number:** 2013-20574